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6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424호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아~ 새만금! 국민적 화두로 떠올라



◇전북 부안 해창 갯벌에서 시작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단이 64일만인 5월 30일 조계사에 도착, 1천여 사부대중들의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진은 조계사에 운집한 사부대중. 사진= 박재완 기자

삼보일배 대장정 65일만에 광화문서 회향

1천여 사부대중 박수와 눈물로 맞아

수경 스님, 오랜만에 문신부와 웃음

31일, 광화문 '새만금 물결'

삼보일배 5월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 지난 해 붉은 악마가 뒤덮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새만금'이라는 화두를 들고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삼보일배단과 시민 1만여명이 모였다. 삼보일배 65일간의 순례를 회향한 것이다.

하유스님(안동 용수사)의 법고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촉구 및 삼보일배 종교인 기도회'는 장사익 · 정태춘 · 범능스님의 새만금갯벌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공연과 노무현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 등으로 이뤄졌다.

30일, 명동성당서 조계사까지

30일 삼보일배단은 조계사에 입성했다.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출발한 삼보일배단이 오전 11시 25분 조계사에 도착하자 성관(조계종 총무부장) · 미산(조계종 사회부장) ·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은 일주문까지 나와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1천여 사부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전국승가학인연합, 도선사, 개운사, 사자암, 구룡사,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등 불교계에서 절반 이상 참석해 달라진 불교계 사회참여의지와 위상을 실감케 했다.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뒤 수경스님은 문규현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충만한 미소였다. 문 신부도 말없이 웃음으로 화답했다.

29일, 국회의원 절반넘는 지지

29일에는 국회의원 272명 중 절반이 넘는 147명(54.1%)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잠정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40명, 자민련 5명, 개혁국민정당 2명, 민국당 1명, 무소속 1명이 공사 중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4명의 성직자가 국회의원들까지 감동시킨 것이다.

늘어나는 동참자

삼보일배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한명숙 환경부 장관, 이부영 의원, 장선우 감독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했다. 동참자는 서울입성을 앞두고 현격히 늘어 전 국민적인 이슈로 부각된 것임을 증명했다.

새만금은 더 이상 종교계나 환경단체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로 풀어야 할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세계연꽃 350종 한자리 '활짝'

상록리조트, 6월29~9월21일 '연꽃축제'

세계의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천안 상록리조트(대표 김건회)가 세계의 연꽃 350종을 모아 제1회 세계연꽃축제를 연다. 6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85일간 열리는 이 연꽃 축제에서는 수련 100여종과 홍련, 백련, 외개연, 가시연 등 200여종의 연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남 무안군, 아산 인취사, 김제 청운사 등 연꽃 군락지인 방죽이나 연못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곳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세계적인 희귀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록리조트는 이 연꽃 축제를 60여 만 명의 불자와 국민이 관람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시용 화분 1200여개에 연꽃 식재를 마친 상태다. 또 연꽃의 수중 정화 기능과 생태적 효능, 집안에서의 연꽃 재배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연꽃 축제에서는 연꽃 사진전시회, 문화상품 특판, 연꽃 차 시연 등의 특별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다.

이 전시회에 소개되는 연꽃은 공주대학교 서승연 교수(생물학과)가 생태학적으로 연구하고 기독교 공주 원로원의 차기천 목사 등이 직접 재배한 500여 종 가운데서 엄선된 것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98년 멸빈징계자 특별법 따라 처리 불교 복지 · 불교문화센터 건립 추진"

법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밝혀

멸빈 징계 확정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98년 종단사태 징계자 5인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당시 이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던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법장스님은 5월 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호계원장 월서스님으로부터 이들(5인) 문제가 아직 (특별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원로회의가 내놓은 '98년 멸빈 징계자를 해종행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라'는 결의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종헌 개정 없이도 이들에 대한 사면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장스님은 또 "현재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와 전통불교문화센터(중앙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들은 계속해 늦춰지고 있는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6 · 15 남북공동선언 3돌 조불련, 동시법회 제의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6 · 15 남북공동선언 세 돌을 맞아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서기장은 5월2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보낸 전문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종단협은 "지난 2년간 동시법회를 열었던 만큼 올해도 법회를 봉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www.dhsystem.co.kr
ISI ISO 9001 KAB
• 실용신안특허 0224039호
• 속깊은 장 실용신안 0258524호
불자님들께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맞춤 붙박이장 전문 메이커
空間藝術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희 대한시스템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시스템 붙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사찰 납품 대표 모델 •법흥사 •삼운사 등
(주)대한시스템 붙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3-7 (남동공단 167블럭 8롯트)
TEL:(032)822-0022-30 FAX:(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타:(032)822-0030

사 설

법장스님 취임 백일에 부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취임 100일이 지났다.

변화하는 종단, 원융화합의 종단 만들기라는 기치에 '코드'를 맞추고 종단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법장스님의 지난 100일은 상당히 실험적이었다. 개혁, 신뢰, 화합이라는 명제를 풀기위한 포석을 전개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단 화합의 상징인 멸빈자를 포함한 대사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이 부분에 있어 종정 스님과 원로회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위로부터 형성된 화합 의지가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형국은 앞으로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장스님은 정체된 종단의 틀을 과감히 해체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힘도 발휘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을 행정일선에 전진 배치한 것과 환경운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열기의 리드, 복지 분야에 대한 현실인식과 불교적 개념 정립 등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가르침의 종교에 부합되는 행보들이다. 때문에 다소 실험적이었던 지난 100일이 각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종단이 보다 큰 틀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성과 위주의 정책 개발 보다는 종도 모두가 긍정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설정하고 실현해 내야 한다. 종단의 3대 사업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거시적인 발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충언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치료' 안되는 동국대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이 하세월인 모양이다. 지난 5월 27일 병원 개원 문제로 소집되었던 재단 이사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다는 소식이다. 백여년에 가까운 학교 역사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이 대학 설립을 주도했던 수많은 선지식들의 여망이 병원 문제로 상처받을까 걱정이다.

재정적 문제가 병원의 개원을 가로막는 이유라 한다. 어차피 돈을 준비해 놓고 벌인 공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기획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 행정에 직간접으로 관계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구성원 각자의 이해 상충과 불화도 그 원인이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전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 그래서 타협과 이해가 필요하다.

병원의 개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부작용이 파생될 것 같다. 불교계 전체와 동국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며, 지역주민과 병원개원에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조계종과 전체 불교도들의 몫으로 돌아올 염려도 있다.

우선 학교 당국자 내지 재단의 관계자들은 병원이 하루 속히 개원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미스런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해보지도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 사부대중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 역시 불자의 도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원융화합·신뢰회복 토대 구축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일

현장·원칙중심 행정·자주성 평가할만
멸빈자 사면·계파정치 청산 등 난제도

이달 3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법장스님 집행부 출범이후 변화하는 종단의 모습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장스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에 오르면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종단 구성원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총무원장 선거 당시 '종단 개혁'과 '신뢰받는 종단'을 내세웠던 법장스님은 취임 이후 각종 제도 및 조직의 변화를 통해 종단 개혁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조계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이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제시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몇몇 중점사업을 내세웠던 과거 총무원장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장스님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당시 제시했던 공약과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31대 집행부의 31대 중점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원융화합종단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 4월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던 제적 이하 징계자 49명에 대한 사면을 이끌어낸 것은 종단화합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중심의 행정체계 구축도 이뤄지고 있다.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후 총무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각계의 의견과 현장(사찰)의 목소리를 종무행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법장스님 스스로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내려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문화부장 발탁이나 대 정부 관계에 있어서의 자주성 확립도 평가 받을 만하다. 또 종회 계파나 문중 간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조계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총무원의 '분위기'를 만든 것도 총무원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종단 관계자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멸빈자 사면 문제를 비롯해 31대 종책과제의 실천, 계파정치 배제 소신의 지속, 종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시스템 정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근기·단계별 수행법 제시돼야"

혜원스님, 작년 안거참여 비구니스님 조사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은 5월 24일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비구니의 수행체계와 간화선'을 통해 "선방 스님의 89.8%는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단계별로 적합한 수행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계종 소속 비구니 선원에서 하안거와 동안거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른 수행법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4%는 '체계적으로 수행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69.8%가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구축하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행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 스님의 72.3%는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에도 '수행지침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수행체계를 어떤 원칙에서 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화선을 최고 수행법으로 삼고 다른 수행법을 보조수행법으로 수용해 수행체계를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으나 '간화선과 관계없이 모든 수행법을 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31.7%에 달했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불교병원 내년봄개원 난망

동국학원이사회 성원미달로 유회
병원장 선임·정관개정등 토의 못해

동국대 불교병원 정관개정을 다룰 예정이던 동국학원 이사회가 5월 27일 성원미달로 연기됨에 따라 일산병원의 개원이 당초 예정했던 내년 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13명의 이사 중 6명만 참석,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질 경우 개원추진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사회가 미뤄짐에 따라 병원개원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며, 2002년도 회계감사 결산심의 안건도 처리되지 못해 교육부 보고도 못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12일 병원개원추진본부(본부장 홍기삼 총장)를 발족했다. 추진본부는 정관개정이 통과될 경우 조직을 확충한 뒤 병원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개원 후 수익전망까지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업체를 6월초 선정할 계획이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조명
금강대, 11일 세미나 개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를 조명하고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11일 논산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금강대 개교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상월원각 대조사와 천태종'과 '21세기와 불교'.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태종 종학과 상월원각 대조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이봉춘 교수와 동국대 최기표 강사가 '천태종 중창의 역사적 의의'와 '상월원각 대조사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사찰방범·방화시설
표준지침마련 통보

지난달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생한 국보 강탈 사건시 방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 방범방화시스템 설치 표준지침'을 마련, 5월 26일 350여 문화재 보유 사찰에 통보했다. 표준지침은 화상감지시설과 침입자 감지장치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의 최소 사양과 요령 등을 담은 일종의 '시설 설치 기준'이다.

표준지침 마련은 사찰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미설치 문화재 보유사찰 300여 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사 령

윤제학
면 취재부장
위촉 논설위원

강유신
면 취재기자
위촉 뉴욕특파원

2003년 5월 24일

'현대'만평 심 민 섭



정신과 육체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비의 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특별 강좌





요가의 효능 및 방법

바른자세와 호흡을 통하여 폐와 내장기관을 청소한 뒤 해맞이 운동 12가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개강일시 및 장소

▶ 서울 : 6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개월 간)

▶ 기흥 :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6개월 간)

① 물구나무서기(Sirshasan)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이 강화되고 시력, 청력이 좋와지며 신경이 튼튼해진다.

② 척추곧세우기(Sarangasan)
갑상선, 심장혈압, 비만에 좋고 목과 가슴부위가 튼튼해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료된다.

③ 쟁기포즈(Halasan)
등, 어깨, 팔, 근육이 강화되고 소화가 잘 되며 변비, 불면증이 없어진다.

④ 물고기자세(Matsyasan)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굽은 어깨가 펴지고 중추신경이 발달하여 충치가 예방된다.

⑤ 앞으로 굽히기(Paschimothanasan)
비만을 치료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뼈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

⑥ 코브라(Bhujangasan)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요통 류마치스를 치료하며 체온조절이 잘 되 자궁이 튼튼해진다.

⑦ 메뚜기운동(Salabhasan)
장, 췌장, 간장 등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 등, 팔을 유연하게 한다.

⑧ 활(Dhanurasan)
만성변비, 소화불량, 간무력에 좋고 굳은 뼈를 펴준다.

⑨ 척추반비틀기(Ardha · matsenbrasan)
힘줄이 펴지고 혈액공급이 원활해지며 특히 관절에 좋다.

⑩ 까마귀포즈(Kakasan)
팔과 목 어깨를 튼튼하게 하고 손가락, 팔목, 근육이 늘어나 무기력증이 없어진다.

⑪ 손과 발포즈(Padahasthasan)
허벅지 뼈가 부드러워지고 체지방이 없어지며 두뇌에 혈액공급이 잘 된다.

⑫ 삼각형(Thikonasan)
월경불순, 골절건강에 좋으며 척추신경과 내장기관이 좋아진다.



세계전통요가실천본부 · 세계젠요가학교

본 부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13번지 / 전화 031) 375-0778
서울교육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02) 969-2410




◇5월 26일 4명의 성직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부 간부 등 31명이 삭발 농성을 하고 있다.


◇5월 30일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꽃다발을 받으며 조계사로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자" 각계각층서 지원 '봇물'

31일 삼보일배단 환영·회향 '시민한마당'

국회의원 147명(54%) 공사중단 찬성 뜻

방조제 건설 중지 전북지역 1000인 선언

D-day(삼보일배 65일째)

▲5월 31일 조계사를 출발한 삼보일배단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촉구 및 삼보일배 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했다. 1만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4명의 성직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 앞과 정부중앙청사 등을 삼보일배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 즉각 중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촉구했다.

D-1(삼보일배 64일째)

▲5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출발한 삼보일배단은 오전 11시 25분 조계사에 도착했다. 수경스님은 대웅전 참배 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했다. 오후 7시부터는 조계사 앞마당에서 '생명 평화 염원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 환영 및 회향 전야 시민 한마당'이 열렸다. 법장스님의 법문과 108참회 정진 등으로 이뤄진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삼보일배 창작곡 문화공연이 열렸다.

D-2(삼보일배 63일째)

▲삼보일배단이 서울역을 비롯 서울시내를 관통하는 가운데 아현교차로 부근에서 동학사와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과 불자 수백명이 동참해 수경스님의 힘을 북돋웠다. 또 국회의원 272명 중 절반이 넘는 147명(54.1%)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잠정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쁨이 배가됐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5월 29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40명, 자민련 5명, 개혁국민정당 2명, 민국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47명이 공사 중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지를 위해 갯벌에 대한 간척사업 최대규모를 30만㎡로 제한하는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을 마련,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부칙에서 새만금 등 이미 허가된 간척사업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은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충북환경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회원 30여명은 청주상당공원에서 간척사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중 7명은 삭발 시위를 벌였다.

D-3(삼보일배 62일째)

▲5월 28일 삼보일배단이 한강을 건너는 가운데 전북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농·어민들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1000인 선언'을 했다.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4(삼보일배 61일째)

▲삼보일배를 하루 쉬는 5월 27일 독일의 한 갯벌전문가가 갯벌의 보존 가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한국 법정에 선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 3천5백명이 "새만금 개발사업은 부당하다"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켈러만 박사에 대한 원고측의 증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D-5(삼보일배 60일째)

▲5월 26일 오전 삼보일배단 150여명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삼보일배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부의 간부 등 31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신교 사거리에서 집단 삭발식을 열었다. 삭발 농성단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같은날 오후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회장)은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삼보일배단이 시청앞에 도착하는 날까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에게 서명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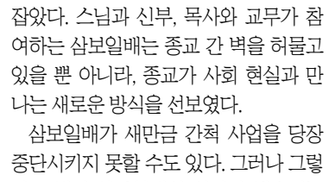
D-6(삼보일배 59일째)

▲5월 25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는 범종교인 기도회 및 시민촉구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대회에서 정호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산 대각사 주지)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설법을 통해 "새만금은 우리들의 탐욕이며 부끄러움임을 참회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끝난 뒤 수경스님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와 참석자들은 간간히 내리는 빗속에서 시민공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한편 수경스님은 24일부터 휠체어에서 내려와 다시 삼보일배에 직접 동참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생명 죽어 가는데 나는 어디에…

특별기고 **이문재** (시인 · 시사저널 취재 1부장 직대)



조용한 삼보일배 유례없이 강력한 시위

시속 1㎞ 느린 걸음 큰 고통·불편 따라

강북삼성병원 952호실. '절대 안정' '면회사절'이라는 푯말이 나란히 걸려 있는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중인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출발한 지 55일, 경기도 과천 관문체육관 앞에서 의식을 잃은 스님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처를 받은 다음,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있었다. 10개월 전, 스님은 북한산 관통 도로를 막기 위해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 삼보일배를 하다가, 조계사 입구에서 쓰러져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평소 안면이 있는 진행팀의 양해를 구해 병실로 '잠입'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병실 안은 조용했고, 또 어두웠다. 스님은 모로 누워 있었다.

스님의 검게 탄 얼굴과 부르튼 손을 내려다보며, 한 달 전 충남 보령을 떠올렸다. 4월18일, 나는 21번 국도에서 삼보일배 행렬 뒤를 따라 걸었다. 스님과 신부님이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속도에 맞추다 보니, 나는 일곱 걸음 걷고 한 번 기도해야 했다. 칠보일도. 모내기를 준비하는 보령 일대 들판은 분주했다.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행렬의 리듬과 숙연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

느린 것은 고통이었다. 빨리 달리는 것 못지 않게, 시속 1km로 걷는 것도 몸에 큰 무리를 가져왔다. 평소 걷는 속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빠르기는 매우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내 몸의 불편함은 두 분 성직자의 고통 앞에서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삼보일배를 따라가며 칠보일도를 하는 동안, 나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거대 도시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소시민이었고 소비자였을 따름이었다. 죽어가는 물과 흙에 대해 나는 무심해져 있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일상적 삶의 터전이 바로 새만금과 다르지 않았는데도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보령에서 홍성으로 넘어가는 21번 국도 위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스님은 6시 경에 눈을 떴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녀님들과 스님 몇 분이 다녀갔다. 묵언 중인 스님은 병문안을 온 손님들에게 웃음과 손짓으로 답했다. 저녁 회진 때 주치의는 '일주일 이상 푹 쉬셔야 한다. 면회객들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병실 전등도 다 꺼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스님은 이틀날 휠체어를 타고 삼보일배 행렬의 맨 앞에 있었다.

삼보일배는 고행이자 수행이며, 시위다. 유례가 없는 '강력한' 시위이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또 가장 낮은 자세. 묵언 수행까지 병행하면서 삼보일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로 자리잡았다. 스님과 신부, 목사와 교무가 참여하는 삼보일배는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가 사회 현실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삼보일배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보일배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삼보일배는 그 느리고 낮고 조용한 '모습'만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 탐·진·치 삼독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또 어디에 있을까. 네 성직자가 지난 60여 일 동안, 전북 부안에서 서울 광화문에 이르는 305km의 길 위에 남긴 '온 몸의 흔적'은 경(經)이 아닐 수 없다. 네 성직자가 눈물과 땀으로 쓴 저 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삼보일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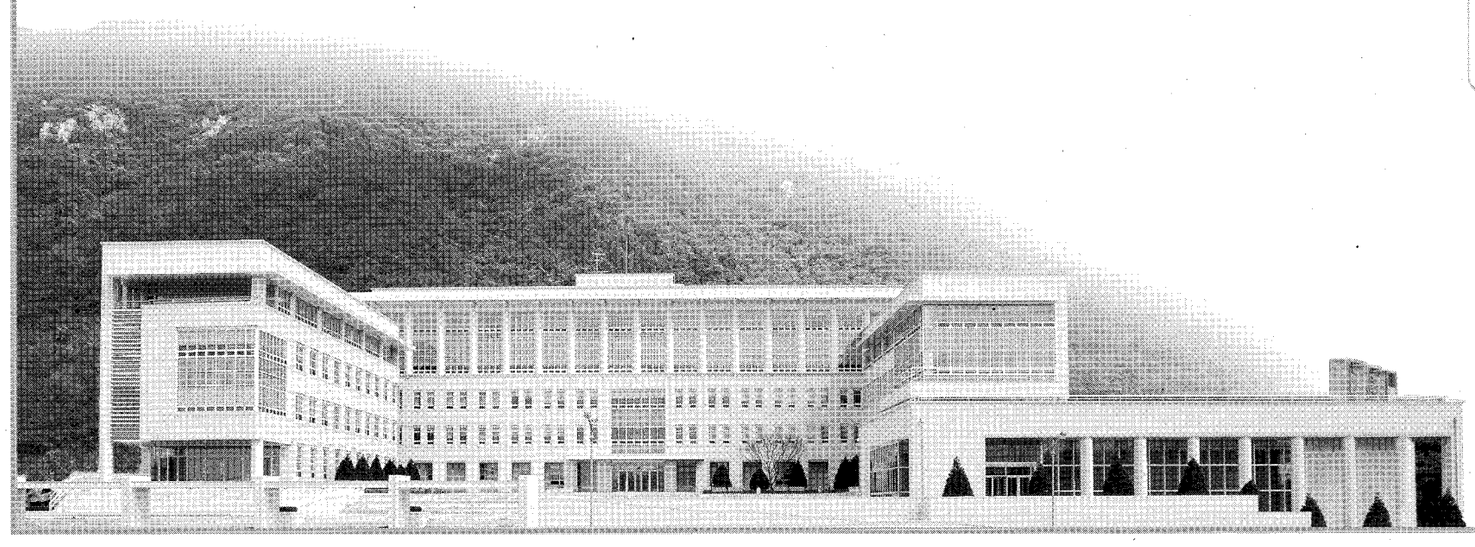
봉 금강대학교 개교 기념 불교 학술 세미나 축

금강대학교 개교를 맞이하여 불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태종의 위상과 앞으로 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학계의 저명 학자들이 참신한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태학에 관심 있는 불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및 발표 주제

제1부 상월원각대조사와 천태종
이봉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천태종 중창의 역사적 의미"
최기표(동국대 강사)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업적"

제2부 21세기와 불교
권기종(동국대 교수) "21세기와 불교의 진로"
권탄준(금강대 교수) "미래사회와 불교의 수행"
최종석(동국대 연구원) "21세기와 불교의 사회화"



—일 정—

• 일 자 : 불기 2547년 6월 11일(음 5월 12일) 수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금강대학교 대강당
• 문의처 : TEL (041)731-3032
FAX (041)731-3049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www.geumgang.ac.kr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

현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은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일주문



소외아동 미국문화체험

제원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은 4일 발대식을 갖고 소외아동 50여명과 7박 8일간 미국문화체험여행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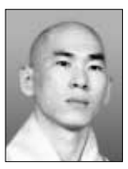
경기불교문화원서 법문

지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30분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우리들의 본래모습'을 주제로 법문한다.(031)251-1083



강남포교원 작은운동회

성열 강남포교원장은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도곡중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작은 운동회를 개최한다.(02)539-2631



무보시 천도재 회향법회

효선 부산 지장불교 공덕원 주지는 5월 23일 공덕원 법당에서 4월 4일 입재한 제2회 무보시 천도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대학 재학생 수계법회

지성 대구불교대학장은 5월 25일 보현사 2층 법당에서 불교대학 재학생 121명에 대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만일염불결사회 3주년

보광 서울 정토사 회주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정토사 극락전에서 정토사만일염불결사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파라미타 새 사무총장

진각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은 최근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법구경 강의 1년 회향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5월 30일 불교방송 3층 대강당에서 '불교방송 법구경 경전 강의 1년 회향 법회'를 개최했다.



조동종 상반기 임시종회

진일 조동종 중앙종회의장은 10일 오후 2시 총무원 대회의실(보리원 4층)에서 상반기 중앙임시종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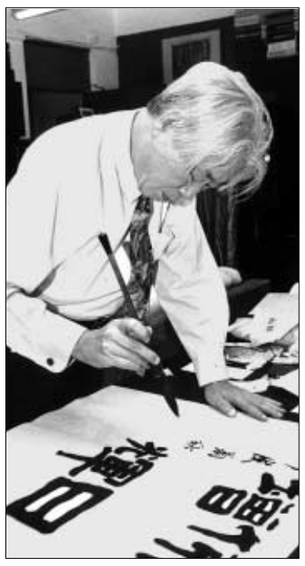


민주당 경남도지부 상임고문

선진규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5월 28일자로 새천년민주당 경남도지부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그때 그사람 지금은 — 서예가 김응현씨

교통사고 후유증 딛고 왼손으로 선서일여 필봉



우리나라 서예계를 대표하는 거장 여초 김응현(如初 金應顯, 77) 씨. '독창적 세계를 확보한 현대 한국서단의 서성(書聖)'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 여초 선생은 서법에만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서법학 이론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사다. 서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해 이를 모아 <서여기인(書與其人)>이라는 저술집을 냈고 후학들을 위해 서예의 모든 것을 담은 <동방서예강좌>를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초 선생은 99년 불의의 교통사고와 중풍으로 마비증세를 보여 오랜 병원생활을 보내야 했다.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작품을 쓸 정도로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여초 선생은 예도삼매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심혈을 기울려 설립한 동방대학원대학도 태고종에 넘기고 현재 인제 한계리 영시암(永矢庵)이란 암자에 머물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경은 기도 · 참회 · 선근공덕 불사"

사경집 펴낸 서예가 이청자 보살



"사경은 곧 기도요, 참회요, 선근공덕을 짓는 불사이며,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인연있는 경전을 사경해서 거듭나는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주부이자 서예가인 이청자(60, 법명 소림자 · 사진) 보살이 사경수행 30년만에 <금강경 무량공덕 사경기도집>(일월정사)을 펴냈다. 행서로 쓴 이 사경집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만봉 스님이 책표지에 그려준 달마도와 금강경 한글 번역본이 함께 들어있다.

한번 금강경 사경을 시작하면 3일동안 잠을 자지 않고 몰두하는 이 보살은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금강경을 7독 하는 수행을 해왔다. 26세에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시동생이 스님인 불교집안에 시집온 이 보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개종을 결심했다. 이때부터 법구경을 시작으로 법화경, 지장경, 금강경을 차례로 공부했다. 그러다가 20년전, 가평 도솔천사 주지 신흥 스님을 뵙고 4년간 채식만 하면서 금강경을 다시 공부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금강경 사경기도가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보살은 가평 도솔천사 정기법회엔 빠진 적이 없으며 1년에 4번씩 21일씩 하는 지장, 관음기도 역시 쉰 적이 없다. 사경은 기도라는 생각에 반드시 법당에서 사경했다.

남앞에 드러나지 않는 은은한 달빛처럼 신행해 온 이 보살은 서예가로서의 입지도 녹록치 않아 이미 <금강경> 서예교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평생 경전을 쓰다 죽겠다'는 이 보살은 사경은 한 자 한 자 서도삼매에 빠져 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사경함으로써 삼독(탐, 진, 치)을 떨치고 다같이 성불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군포교 성금 1억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5월 28일 조계종 포교원에 군포교 특별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전달식에서 혜원스님은 "군불자 장병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혜원스님은 성역화 불사 기금으로 5천만원을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스님에게 전달했다.



北 단청불사 1차분 선적식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법타 · 학담)는 5월 27일 인천항 영진창고에서 단청안료와 재료 및 도구 1차분 선적식을 개최했다.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전달되는 물품은 단청안료 및 재료 15톤 분량 등 단청도구 일체(총 6천5백만원 상당)다.

한국불교예술대 인천전수관 개관

무형문화재 범패 · 나비춤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학장 일초)은 5월 23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회춘원빌딩 2층에 인천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전수관을 개관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일초 스님이 직접 강의한다. (032)529-6708



대불어 사무실 이전 개원법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5월 26일 불교회관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 포교라는 커다란 틀에서 부불어 사무국과 합쳐지면서 함께 연구,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교화원 보살계 수계법회

한국불교교화원은 5월 27일 서울 흑석동 도림사에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개최했다. 전계아사리 운허(한국불교교화원 중앙회관) · 갈마아사리 성도(도림사) · 교수아사리 구관(서울 정법원) 스님 등 35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법회는 참회, 연비 등으로 이뤄졌다.



불교TV 대구지사 법당 개원



불교TV 대구지사는 대구시 동구 동양고속 5층 법당 무상사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박정석 불교TV 대구지사장은 "앞으로 큰스님 다큐멘터리나 불교관련 영상 만화영화 제작을 통해 지역 멀티미디어 포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4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자원봉사 희망자
②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3년 6월 25일~ 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1시~3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 (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3년 5월 26일~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분할 납부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불교환경의제 21' 마련 워크숍 회향

연계성 갖고 보다 근원적 추진 필요
의제21 점검표작성 실천사항 평가
종단내 불사위원회 설치도 바람직

불교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부대중의 행동약속인 '불교환경의제21' 수립을 위해 불교계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교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위원장 미산, 조계종 사회부장)'는 5월 23~24일 양일간 충남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불교환경활동의 새로운 전망을 위한 불교환경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 17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워크숍은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환경운동, 왜 생명인가' 강연과 이병인 국립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불교환경활동의 평가와 전망' 주제 발제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불교환경운동의 주요 문제점에서 "종단의 경우 정치적이고, 일시적이며, 임기응변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있고, 불교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이며, 연계성을 갖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5월 23~24일 충남 도고 글로리 콘도에서 열린 '불교환경의제21' 워크숍 장면.

"10월 2차 워크숍…윤곽 드러날 것"

여기에 대해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불교환경활동의 다양화 △종교간 환경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활성화 △불교생명운동의 지역화와 생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찰의제21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사찰의제21의 3가지 핵심요소는 △지속가능한 개발(수행환경보전) △동반자(종단, 사찰, 신도, 사회) 관계 △행동계획 이라고 정의하고 "의제21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 진행과정과 실천사항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개별 사찰 불사를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종단적 장치가 전무해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종단에 불사위원회를 둬 친환경적 불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및 발제토론 후 분과토론에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분과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쓰레기 제로 운동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등을, '생태사찰 만들기' 분과는 △발우공양 정신 살리기 △사찰 유휴지 나무심기 등을 제시했다. '수행환경 지키기' 분과는 △신도회 사찰 운영 참여 △수행환경 개념 확대 등을 '사찰과 지역공동체' 분과는 △공양미를 친환경적쌀로 올리것 △생명살림 책임질 인재불사 시작 등을, 결과물로 내놓았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류쵤주 간사는 "이번 워크숍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 내부 점검과 반성에 중점을 뒀다"며 "올 10월에 있는 2차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의제21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

강탈 국보불상등 4점 무사회수

범인1명 구속, 도주공범 1명 자수의사 밝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강탈당했던 국보 불상 등 문화재 4점이 15일 만인 5월 26일 모두 되돌아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와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인근 우유대리점 출입문 앞 빈 화분 속에 수건으로 싸여있던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을 회수한 데 이어 5월 30일 호남고속도로 유성IC 인근 비상전화부스 뒤편 풀 속에서 조선시대 분청사기인화문접시, 고려시대 청자상감포류문대접 및 청자상감국화문고배형기 등 나머지 비지정 문화재 3점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주박물관에 침입 문화재 4점을 강탈한 임모(31)씨를 구속하고 도피 중인 공범 박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한 훔친 문화재인 줄 알고도 불법 유통시키려한 양모(34), 김모(36), 윤모(35)씨 등 장물운반책 3명을 구속하고 임씨로부터 '문화재 4점의 처분을 부탁받았다 되돌려줬다'며 경찰에 제보한 손모(36)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번 범행은 임씨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박씨의 제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공주박물관 금동불상 회수와 관련해 5월 27일 논평을 내고 경찰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성보박물관 도난방지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방송내용 불만사항 전화로 알려주세요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가 시청자 전용 전화(02-745-5811)를 24시간 운영한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그동안 시청자 제보 전화를 운영해 왔으나, 전용 회선을 두지 못해 효율적인 시청자 제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혜승 간사는 "시청자 주권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올착공 어렵다

환경청 "환경평가 변경내용 이행후 시공"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월 25일 통영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공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사업계획내용이 변경(모노레일 승강장 폐지 및 하부 곤도라승강장 부지변경 등)됨에 따라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가정폭력 상담가 교육생 모집

여불련, 6월25일부터 2개월과정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이하 여불련)가 2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 과정의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서울 인사동 여불련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동국대 불교학과 이현옥 교수와 박숙자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실장, 정제숙 여성부 폭력방지과장 등 25명의 강사가 '불교에서 본 가족문제', '여성상담의 기초개념',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02)738-5586

여수령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이라크 어린이·주민돕기 JTS, 자원봉사자 모집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만 20세에서 35세 남자 7명과 여자 5명을 모집하는 이라크 파견 자원봉사자는 17일부터 30일까지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신청자는 서류접수 후 면담과정을 거쳐 JTS에서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아야 최종 선발된다. 문의 02)587-8756

한편 JTS는 이라크 바그다드 근교 3개 마을 3500가구에 긴급 식량구호를 했으며, 초등학교 학생 6000여명에게 학용품을 지원했다. 또 전염병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명성여고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달

평불협에, 전교생 자비의 쌀 모아 조성

조계종립 명성여고(교장 주정식)는 5월 27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에 북한동포돕기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교생이 자비의 쌀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절반은 교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북한동포돕기에 쓰인 것이다.

한편 평불협은 같은 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 성북동에 통일법당 건립을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명성여고 학생들이 5월27일 평불협회장 법타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목탁소리

법장스님의 단호한 원칙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지난 5월 23일 열렸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워크숍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법장스님은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종단정치의 고질적 병폐이자,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던 계파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또 "변화와 개혁을 거스르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의 시기와 뉘앙스를 종합해볼 때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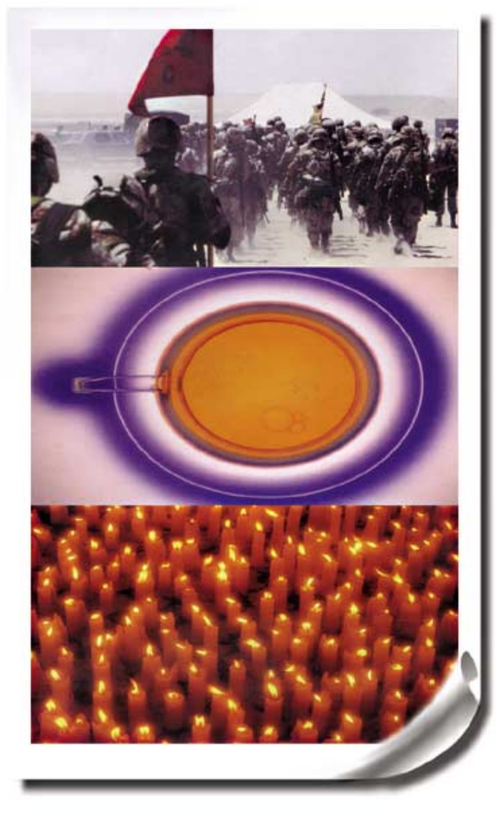
법장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여왔던 멸빈 징계자 사면은 중앙종회 각 계파의 이해에 의해 일단 무산됐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소임자 자리를 놓고 각 계파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셀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마당에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앞으로도 '주고받기식'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총무원장의 능력은 '정치적 수완'에 의해 평가됐다. 계파 간 이해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던 것이다. 여기에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이나 '불교발전'에 대한 문제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정치는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구태다. 명분과 실리가 맞설 때 실리가 우선시되는 집단에는 희망이 없다. 많은 불자들은 지금 계파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그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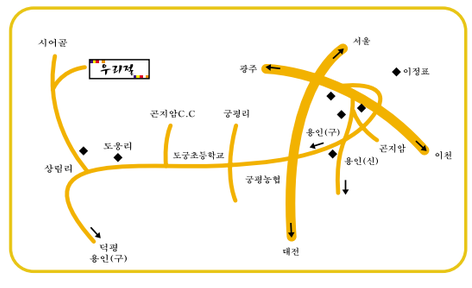
부처님 가피가 충만한 우리절



이라크 전쟁과 사스 · 알제리 지진 희생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를.....

-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지금도 SARS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알제리 지진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의거 불우한 영가를 천도합니다.
- 모두 오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국제영가님들에게 차 한잔씩 올립시다.
-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6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 큰법당
  - 법공양 : <일원곡> 제5권 (동봉스님의 40번째 책)
  - 후 원 : 동선회,겨운행복,목련사랑,신도회
  - 곁들임 : 동봉스님 출판기념법회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5권과 목련사랑에서 보시한 배건을 나누어 드립니다.



장소: 곤지암 우리절
www.urijeol.com
우리절.net
Tel: (031)763-4674~5

천태종 비구니스님 위상 높인다

총무원등 종무기관에 창종이래 첫배치
변화시대에 발맞춰 종책 유연하게 운영

다른 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이 낮았던 천태종이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최근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각 부서에 비구니 스님들을 배치했다. 특정한 직급을 부여하진 않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에 참여시킨 일은 천태종 창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천태종은 2백여명에 달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사중 살림과 영농으로 제한해 왔다. 종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이 3명에 불과하고, 각 사찰 주지로도 임명되지 못하도록 관례화 하고 있다.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무기관 배치는 인재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태종은 이에 앞서 90년대 중반부터 어린이회와 중·고등학생회의 법회를 지도하는 법사로 3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배치했다. 청소년들이 비구 스님 보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친밀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앞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종단내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종단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 나가는 유연한 종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의 역할 증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에 참여시킨 이번 조치가 향후 종단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찬반 양론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천태종의 한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불교와 종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더욱 많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은 5월27일 구인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29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29주기 열반대재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의 열반 29주기를 추모하는 열반대재가 5월 27일 총본산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열렸다.

이날 열반대재는 조사 법어 봉독, 헌화 및 헌향, 조사 영반, 추모사, 추도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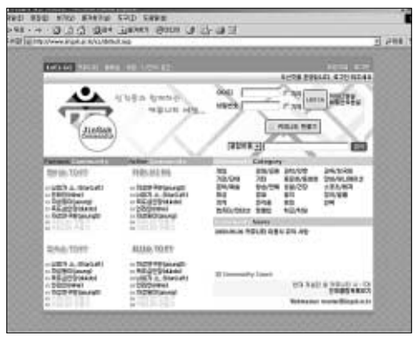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일미평등(一味平等)과 중도의 정신으로 모든 대립과 갈등, 편견과 아집을 지양하고 조화와 유화, 상호 존중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우리 모두 대조사님의 염원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여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발분서원(發奮誓願)하자"고 추모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천태종의 초대 종정을 지내면서 한국 천태종을 중흥시키고, 새시대 불교중흥의 염원으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삼대지표와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종풍을 내세웠다. 또한 총본산 구인사 창건을 비롯해 오늘날 천태종의 기반을 다지는 업적으로 모든 천태종도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단양=박봉영 기자

진각종 '홈피'에 커뮤니티 코너

심인당 모임·교리연구 등 10여개 모임 개설



진각종 홈페이지가 불자들의 건전한 의사소통 공간으로 거듭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각종은 5월 26일 홈페이지(www.jingak.or.kr) 내에 커뮤니티 코너(사진)를 신설해 심인당 모임, 교리 연구, 취미활동, 게임 등 건전한 교류를 이끌어내고 있다. 커뮤니티 코너가 개통된 지 1주일만에 10여개 모임이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커뮤니티 코너에 등록한 모임에는 50M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이메일 계정(…@jingak.or.kr)과 10MB의 사이버 공간, 커뮤니티 활동 권한 등이 부여된다. 또 커뮤니티를 홍보할 수 있는 코너와 접속 순위, 회원가입 순위, 개설 시기를 알 수 있는 서비스와 자유로운 채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커뮤니티는 게임, 기관·단체, 동문회·동창회, 스포츠·레져, 여성, 취미, 교육, 경제·금융, 진각종, 팬클럽, 컴퓨터·인터넷 등 23개 분야로 나눠 모임의 성격에 따라 카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진각종도는 물론 일반 불자와 청소년,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이버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 전산실 관계자는 "네티즌과 청소년들을 겨냥한 종단의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보급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jingak.or.kr/cc/

박봉영 기자

가사·장삼 검인증제도 적용

태고종, 27기 합동득도 수계자부터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가사와 장삼의 검·인증 제도를 도입, 제27기 합동득도 수계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사·장삼 검·인증 제도를 통해 승려의 품위 향상과 위계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가사장삼 검인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사장삼 검인증위는 법계와 승랍에 따른 가사의 조수, 색상, 일월광 문양 등을 정하는 한편,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종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원융종 창종 23돌…평화통일 수륙재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창종 23주년을 맞아 5월 29일 여주 신륵사 남한강변에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및 영가 천도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전통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수륙대재에는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법륜스님은 "수륙재를 계기로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을 다하는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진각종 청년회 단석산 등반법회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류호선)는 5월 25일 경주 단석산에서 등반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종단 불사가 원만히 회향돼 새로운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 진언행자들의 원력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 곳이 불교와 진각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육성할 수련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서원했다.

종단소식

국내·외 장학승 선발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국내·외 정규대학 석사과정 2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승을 선발한다.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 재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행이력서, 대학원 재학·성적 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7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해외장학승 신청자는 '해외 유학 지역의 불교현황'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과제', 국내장학승 신청자는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 '종단의 승가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가운데 각각 주제를 선정해, A4용지 5매이상의 보고서 1편을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총지종 (통리원장 법공)은 5월 28일 종단 산하 전국 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반기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이번 불공은 49일 동안 진행되며, 7월 15일 회향한다. 입재식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불공기간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전쟁 희생자 천도재

미륵종 광주 미륵사는 6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월남동 소재 미륵사 경내에서 5·18 광주민주항쟁 희생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천도대재를 봉행한다. 호국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천도재는 전통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다.

게시판

행사 ▲조계종이 창작 찬불가에 대한 저변 확대와 유능한 불교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4회 창작 찬불가'를 공모한다. 신청서 교부기간은 19일부터 10월6일까지며, 접수는 9월15일부터 10월 6일까지. 1인이 3곡까지 출품 가능하며 피아노반주를 원칙으로 한다. 발표는 10월15일. (02)739-1830

▲문화답사 모임 '터사랑'은 6일 강원도 인제로 '점봉산 곰배령 들꽃기행'을 떠난다. 출발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참가비는 어른 3만8천원, 어린이 3만3천원. (02)725-1284

모집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아동 통합지원프로그램 '맑은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정신지체 및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개별치료와 그룹언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 (051)264-9033

▲서울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11일 오전 11시 관내 2층 탁구실에서 '금천 어르신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마감은 10일까지. (02)804-4058

▲서울 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료 경로식당에서 배식보조와 설거지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02)365-3677~8

구인 ▲서울광진자활후견기관이 상근 실무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운전면허1종 소지자우대, 지역운동 및 빈민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준비서류는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게재),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각 1통. 접수는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마감은 5일까지. (02)453-8373

▲서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언어치료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 각 1통. 마감은 채용시까지. dbwelfare@yahoo.co.kr, (02)3494-4755~6

이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의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3번지 현대1차 APT 상가2층 201호로 변경됐다. (02)404-9199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체강의한곳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외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척추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짱다리, 허리굽은분,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선착순 20명한]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전화주시면 책(39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 013094-02-213631 주문옥]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 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국내 자생 오가피 '간기능보호효능' 탁월 입증
수신물산(수신오가피)에 기술 이전돼....
국내자생오가피가 탁월한 간기능보호약리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자생오가피의 품종별 성분 및 효능 비교에 의한 식품의약개발과제를 수행중인 생명공학연구원 이정준 박사팀은 급성간염을 모델로 한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자생오가피가 간기능의 지표효소인 GOT, GPT의 혈중농도를 정상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활성이 가시오가피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했으며 급성간염모델에서 오가피를 투여하지 않은 쥐는 24시간이내에 90%이상 사망한 반면 오가피를 투여 받은 쥐는 90% 생존율을 보였으며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간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간세포의 괴사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발현이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우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내자생오가피가 간염치료제뿐만 아니라 간보호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박사팀은 국내특허 3건 국제특허 1건을 각각 출원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최근 연구참여기업인 수신물산(수신오가피)에 기술 이전돼 간보호용 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상품화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incws24 보도내용)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기술이전기념 고객사은행사!
축 【기술이전】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는 이번에 한국산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결과를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토종오가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이번 연구를 통해 고객여러분께 더 좋은 품질,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종오가피를 사랑하시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은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15만원상당의 생찌앗베개나 어린이용 수신천사토종오가피를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수신토종오가피 3개월분을 신청하시면 생씨앗과 토종오가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나 어린이를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부모님은 가난할지라도 아이들 마음은 부자다. 이 아이들에게 누군가 조금만 더 '희망'을 불어넣어준다면 우리 사회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비싼 학원 안가도 공부 쏙쏙 재미 짱~!

미아 '희망 만들기 열린학교'

IMF이후 불교계 최초로 문열어
저소득층 자녀 대상, 전액 무료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수업진행



◇학생들의 물품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선반.

2000년 기준 전국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 규모 약 7조1천2백7십6억1천4백만원. 학생 100명 중 56명은 사교육을 받는 현실. 하지만 서울 미아6동에 위치한 방과후 교실 '희망만들기 열린학교(교장 신응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사교육비가 필요치 않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련)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이다.

5월 28일 오후 2시쯤 미아 열린학교를 찾아갔을 때 '교장' 선생님은 탁자에 앉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정규 수업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되지만 먼저 온 학생들의 자습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교장선생님은 질문하는 학생과 기자에게 한 마디씩 번갈아 대답해줬다.

열린학교는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의 뿌리인 가정이 흔들리자 1999년, 사교육을 시키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이를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몫을 조금이나마 책임지기 위해 시작됐다. 2000년 7월에는 안암동 로타리에 용두 희망만들기 열린학교가 열렸다.

불교계 최초의 방과후 학교인 미아 열린학교는 40여평 규모에 교실 2개와 컴퓨터실, 법당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때는 전국에서 제일 크고 내실있었지만 이제는 후원금도 줄어 교장 선생님 한 명과 자원봉사자 15명 정도가 학교를 이끌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CJ에서 나오는 4명, 동덕여대 화학과 동아리 '아린사이'('아린'은 겨울눈을 싸고, 뒤에 꽃이나 잎 따위가 될 연한 부분을 보호하는 비늘 조각이라는 뜻) 8~9명, 주부 불자 2명 등으로 이뤄져있다.

희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같은 반 친구들이 방과 후 각종 학원에 쫓아다닐 때 그들은 희망학교로 몰려온다. 교육 대상은 3~6학년이지만 빈집에 동생들을 두고 올 수 없어 특별한 교육 대상이 있지는 않다. 한달 운영비는 300~400백만원 정도. 쓰려면 한없이 들어가는 게 교육비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

오후 4시 쯤 되자 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 선생님도 몇 분 모습을 보였다. 이명진 글쓰기 선생님(23, 천안대 중국어학과 4), CJ에서 나온 김창완(39, DNS추진팀 부장) 수학선생님, 주부 불자 이민애(47) 선생님.

이명진 선생님은 올해 1월 학원인 줄 알고 희망학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월 12만원의 보수도 감수했다. 김창완 선생님은 '사회공헌'이라는 회사 내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었다. 3년 전 용두 희망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던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인 자녀들을 두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민애 선생님은 별도로 과외지도를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희망학교에 몸담았다. 이왕이면 불교계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를 찾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업이 시작돼도 교실 안은 여전히 어수선한다. 이 교실 저 교실을 뛰어 다니는 아이들. 선생님이 말씀을 해도 탁자에 엎드리거나 바닥에 누워버리는 아이들. 출석체크 후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금은 버릇없을지라도,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기초학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신응균 교장선생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사회에 진출해서도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세습화'가 이뤄진다"며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지금 열린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우리 불자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문의:02)983-3783 후원계좌:980-04-095494 희망학교 (조흥은행)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신응균 교장
미아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실직 부모 재취업했을 때 보람
한달 월급 학교 운영비에 보태

미아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신응균 교장선생님(43·사진)은 33살 때인 94년 자비의 집이 문을 열면서 경불련과 인연을 맺었다. 친구와 건축회사를 운영하다 혼자는 잘 먹고 살수 있겠지만 둘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친구에게 양보했다. 신 교장선생님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가졌던 생각도 한 몫을 했다.

신 교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영비다. 이웃종교의 경우 방과후 교실이 연합체 단위로 정부에 프로젝트를 신청해 기금을 따내지만 불교의 경우 연합체를 구성할 단위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직한 부모들이 열린학교에 아이들을 맡긴 뒤 안정된 상태에서 70~80% 이상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달에 150만원 정도 받는 보수는 학교 운영비로 쓴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더니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요 뭐…"라고 대답하곤 씩 웃는다.

어딘가 조금은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속은 꽉 차 보이는 남자 신응균. 그는 아직 미혼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불교복지사업 개선 이렇게…

최근 들어 복지법인들이 사업방향을 자체 시설 건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사업 위주의 불교복지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조계종의 복지원 신설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불교복지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노인·아동복지 편중현상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왜 복지법인들이 자체 시설을 설립하고 있을까? 이 같은 추세 속에서 불교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짚어본다.

수탁위주 사업서 탈피 직영체제로 전환 시급

보건복지부 등록 종교계 복지법인의 자체 건립시설 비율

	불 교	천주교	개신교
전체 산하시설	115곳	620곳	2,000여 곳(추산치)
자체 건립시설	12곳(10.4%)	470곳(75.8%)	1,600여 곳(80%)



◇최근 자체 시설 건립으로 불교복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위탁 아동복지시설에서 '합장인사생활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자체시설비율 40%까지 높여야

불교사상 고취·프로그램 개발·인력양성 수월
지자체 관리·감독 안받고 지원금 부담 덜게 돼

노인·어린이 편중도 시정과제

▣수탁 위주의 불교복지 한계

그간 불교복지는 지난 98년 이후 큰 폭의 외형적 성장세를 보였다. 6월 현재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에 등록된 불교사회복지시설은 총 468곳. 지난 98년 292곳에 비해 37.6%(176곳)가 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설 수탁 위주의 불교복지사업 전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수탁 위주의 사업은 수탁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행정적 간섭을 받게 됐고, 그러다보니 불교적인 자체 복지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는 불교복지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은 물론, 불교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까지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다. 또 한 가지는 불교복지법인들이 수탁이 쉬운 분야로 복지사업이 몰리다보니, 분야별·지역별 편중현상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성·인권·환경 등 불교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상해내는 결과도 초래됐다.

물론, 불교복지법인들이 전혀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그간 소홀했던 여성·노숙자·상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또 천태·총지종복지재단도 소속 종단의 성직자 노후복지를 위한 자체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불교복지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생력을 갖고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대구 H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스님은 "불교복지도 진작부터 자체 시설 건립에 사업 역량을 집중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왕 투자할 비용이라면 위탁 시설보다는 스스로 시설을 세워,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불교복지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자체 시설 건립 확보, 왜 필요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법인 사업의 '안정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이는 복지법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재·위탁 경쟁 없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고, 법인 설립 이념에 따른 복지사업 전개도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시설 건립은 복지법인이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설립 법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교육할 수 있는 효과도 얻고 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속편해질 수 있고, 산하 운영체의 지원금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6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종교계 복지법인 자체 시설 현황 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전체 77개 법인 중, 불교 종단 4개가 설립한 복지재단 산하 시설은 조계종복지재단 84곳, 진각복지재단 23곳, 천태·총지종복지재단 각 4곳 등 총 115곳으로, 자체 건립 시설은 12곳(1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는 산하 시설 620곳 가운데 470곳(75.8%), 개신교는 2,000여 곳 중 80% 정도가 자체 건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카톨릭사회복지법인 박중빈 총무부장은 "천주교는 사회복지활동을 처음 시작한 40년대부터 자체 시설 건립중심의 사업을 벌여왔다"며 "시설 위탁 사업은 불과 90년대부터 기존 사업들과 병행돼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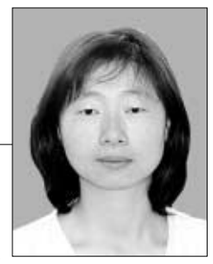
▣자체 시설, 최소한 40%대로

복지전문가들은 수탁시설 대비 자체 시설의 비율을 40%대에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복지법인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계 복지법인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곳은 진각복지재단이다. 이 재단은 이미 종단 소속 퇴역 성직자를 위한 자체 복지 시설인 '기로원'을 지난 69년에 건립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유휴시설 활용사업에 참여해 대구와 인천 지역 2곳에 실비노인요양원을 개원하는 등 자체 시설을 점증적으로 늘리고 있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시설법인을 제외한 불교계 복지법인 대부분은 산하 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시설 위탁 중심의 몸집 키우기에 치중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사업 역량을 자체 운영시설로 바꾸는 것은 불교복지의 체질개선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장

사찰내 어린이 편의시설

신도들 고령화… 육아문제 '모르쇠'
젊은 여성불자 위한 세심한 배려를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창립 때부터 사찰 내 놀이방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요즘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서는 고객확보를 위해 수유실과 기저귀 가는 곳, 어린이 놀이공간 등 여성들과 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인 사찰에서는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요일 아이를 데리고 시내 모 사찰을 찾은 젊은 부부는 사찰에 기저귀 갈 공간조차 없다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로 사찰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하였다. 관계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장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도의 대부분이 중년과 노년 여성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조계종에 등록한 신도를 보면 40대 이후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 놀이방이 설치되고 법회 때만이라도 운영을 한다면 젊은 엄마들뿐만 아니라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찰 공간은 법회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어있다. 조그만 실내외 놀이터와 약간의 편의 시설을 갖춘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요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젊은 여성을 위해 사찰에서 배려해 준다면 이들의 신행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서는 엄마가 볼일을 보는 사이에 아이들을 잠깐 맡아주던 개념에서 나아가 아동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아동을 데리고 나온 엄마가 아동을 기다리는 동안 쇼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추세다.

이와 같은 유아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사찰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엄마가 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동을 맡아보는 기능이다. 둘째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찰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는 장과 탁아시설이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넷째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과 여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사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신행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교단이나 사찰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또 사찰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찰 내 유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HAMBAKJAE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6)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매품 함박재 토종오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 x 60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으뜸상품 제3066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퀘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전·의경 포교 활성화'를 올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정하는 등 청년포교에 앞장선다. 또 일터와 가정을 수행의 정법도량으로 삼는 '참 불자 되기 운동'도 전개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이하 대한경불회)는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법당에서 제2기 중앙 임원단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전·의경 포교 올 하반기 중점사업 선정
직장·가정 수행도량 삼는 '참불자 운동'
대외협력·홍보·기획·사이버부 등 신설



◇'경찰불교 파이팅!'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법당에서 제2기 중앙 임원단 첫 회의를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불교회, 활동마당 넓힌다

특히 대한경불회가 이번에 전·의경 포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간 청년 포교의 텃밭인 의무경찰 포교에 소홀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체 신행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의경 법회 활성화를 중앙 차원에서 풀어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는 포교 프로그램 부재, 지도법사 부족 등 전국의 경찰불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경불회는 이를 위해 현직 조계종 포교사단 경찰포교팀장을 포교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구체적인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경찰출신 상임포교사 25명을 전·의경 법회에 지도법사로 투입하고, 지역별 경찰포교후원회 결성도 유도해낼 방침이다.

대한경불회는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참 불자 되기 운동'도 벌인다. 이 운동은 정기법회, 성지순례 등의 기본 신행생활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행일치' 운동 차원에서 펼쳐진다. 또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봉사활동도 일정 기간에 집중, 대사회적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조직관리도 내실화 한다. 현재 대한경불회 산하 13개 지부, 57개 지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책은 불교회 활성화 성공사례 제공, 등산 및 사찰 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별 연계활동 및 사이버 포교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한경불회는 지난 4월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2기 중앙 임원단을 수도권 중심의 실무형 인사로 선출하는 한편, 대외협력·홍보·기획·사이버부 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부별 임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전국 총무단 회의도 정례화 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이번 중앙 임원단 회의는 지난 2001년 창립 이후, 처음 모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조직운영의 내실화, 교계 신행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경찰불교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상주시청불자회 창립1돌 법회

경북 상주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최경수)는 5월 31일 상주시 남장사 설법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2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남장사 주지 수봉 스님의 법문, 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국회직원신도회 특별법회 봉행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길성)는 5월 29일 여의도 국회 정각회 법당에서 스리랑카 스마나트나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길성 회장은 "스리랑카와 뉴질랜드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있는 스님의 법문이 인생을 사는데 큰 가르침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청불자회 성지순례

서울시 중구청 불자회(회장 김용중)는 1일 경기 강화 보문사와 전등사, 선원사지 등으로 성지순례법회를 다녀왔다. 8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순례에서 김용중 회장은 "초심자 회원들은 물론 일반회원들에게 불교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유익한 시간 이었다"며 "회원들이 불심을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마산시청불자회 산사체험

경남 마산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박일춘)는 7~8일 이틀간 양산 통도사로 '주말 산사체험'을 떠난다. 이번 주말 산사체험에서는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 스님이 '불교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법문을 하고, 불자회원들은 일주문에서 금강계단까지 3보1배 수행 체험을 한다. 박일춘 회장은 "주말 산사체험은 불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안양시청불자회 창립
초대회장 김상문 씨

경기도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가 창립된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이하 불자회)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이달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기로 했다.

불자회는 올 3월 총무과 직원이 시청 게시판에 불자회 창립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화 됐고, 이후 50여 명이 참가의사를 밝혀와 이번에 출범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불자회는 4차례 창립준비 모임을 연이에 갖고,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초대지도법사로 위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김상문 초대회장(청소사업소장·51)은 "인근 경기도청과 의왕시청에서는 불자회가 있었지만, 정작 우리 시청에만 불자회가 창립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뒤늦게 창립된 만큼 부지런히 신행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모든 사업 재점검… 내실화 다질 것
철불협 3대의장에 추대된 조진규 씨



"이제는 내실화입니다. 그간 철불협이 벌어온 모든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전국의 산하 단체 역량을 한데 모아내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명실공히 철도공무원 불자들의 대표 신행모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제3기 의장에 추대된 조진규(철도청 조달본부장·55·사진) 씨. 조 신임 의장은 앞으로의 철불협 활동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철불협은 그야말로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방생법회, 환경 살리기 걷기대회, 북한어린이와 노숙자 돕기, 봉축열차 운행 등 일터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직접 참여해 불법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력을 탄탄히 다질 차례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의장은 또 직장 특성상 '안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전체 회원 1천여 명 중, 7~80%가 기관사 불자인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도 무사고기원 철도불자연합법회와 열차안 전운행캠페인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부산영도구청 법우회

우리 법우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10여 명의 불자들이 뭉쳐 지난 2000년 9월에 창립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갓난 아기였습니다. 사실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초짜배기 불자들이었지요. 불교교리나 제대로 알았나요? 부끄럽지만 무턱대고 불교를 믿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골수(?) 활동 회원만 50여 명이 넘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직장 신행단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냐고요? 궁금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법우회 자랑을 들어보십시오.

단연 우리 법우회원들의 신심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정과 일터를 가장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수행처로 만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체 법회를 매달 부산 영도구 미룡사에서 열었고, 이것도 모자라 구청 대회실을 빌려 교리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알아가는 불교교리에 회원들 모두가 환희심을 내곤 했습니다. 부산시 통합법회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씩 부산 서구 보타원에서 봉행되는 시 통합법회는 공무원 불자들 간에 교류와 친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로가 안고 있는 신행고민에서부터 가정사까지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법석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매년 하안거, 동안거 기간에는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대구 팔공산 일대며, 전남 향일암, 경북 포항시 오어사 등 전국의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스님이 화두를 들고 수행정진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법우회는 그 기간 동안 재가 수행자로서 몸과 마음으로 불교를 만났습니다.

물론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회원들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낮아 모임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또 과다한 업무와 직장내 비공식 모임이라는 점은 법우회 활동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들의 응집력은 커졌습니다. 신심이 깊은 회원들이 법우회 활성화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류춘희 현 회장(청소행정과장)과 두 분의 부회장을 중심으로 법우회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신입회원 모집을 위해 부서마다 홍보문을 붙이고, 청내 전산망에 홍보글을 수시로 업데이트 했지요. 또 불교라고 알려진 직원들이 있으면, 한사람 한 사람 만나 법우회를 알려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열성이었습니다.

가정·일터를 '신바람 수행처'로
도반 일깨우는 법명 불러주기 운동



◇올 1월 포항시 오어사 참배를 마친 부산시 영도구청 법우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 법우회는 '법명 불러주기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로가 도반임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영도구청 인근 사찰을 찾아 감로법을 듣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어떤 사찰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윤성진 총무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값 2,500,000원
기존 혁식판과 교환해 보실분은
값 800,000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각 순(旬)별 6권 증보발간 안내
「효사육임강의록」증보판 上 下권 무료 교환신청접수 안내

육임래정비법 일어판
값 272,000円
일본 판매 개시
(5월 15일부터)

본 「육임강의록」 하(下)권 국수편을 「시간별 래정」 과 함께

1. 갑자순(甲子旬) 10일치 1권
2. 갑술순(甲戌旬) 10일치 1권
3. 갑신순(甲申旬) 10일치 1권
4. 갑오순(甲午旬) 10일치 1권
5. 갑진순(甲辰旬) 10일치 1권
6. 갑인순(甲寅旬) 10일치 1권

씩 6권으로 나누어 얇게 제본하여 우리 활인천역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수해설과 정단별 류신구분 및 초사와 귀신침범여부 등을 포함한 본 강의록 하(下)권을 그대로 옮겼으며, 크기는 종전의 휴대용과 같은 가로 155m/m × 세로 105m/m이고 권당 두께 20m/m입니다.
종전의 휴대용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면에서도 본서에 비해 훨씬 떨어지므로 이번 이 책은 가히 육임래정의 완성편을 휴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값은 310,000원이고 단, 본 강의록 이나 수정보완본 또는 혁신판 등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보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강의록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회원 및 부설 전국 육임학당 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증보시킨 것입니다.
■ 기 「강의록」을 구입하신 분은 교환신청하여 새책을 보십시오.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上)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外)
- 사복법 一 · 二
- 부정빌미 원인(原因)
- 병인(病因) 병증(病症)
- 육임고시(考試) 문제집
- 육임백법(百法)
- 임상사례 모음

◆「사복법 一」의 항목(예)
① 저안에 물건이 들었는가 비었는가?
② 저안에 든 물체가 죽은것인가 산것인가?
③ 저안에 든 물체가 살았다면 무엇인가?
④ 저안에 든 물건의 품질은 어떤것인가?
⑤ 저안에 든 물건이 새것인가 헌것인가? 壯한가 老한가?
⑥ 저안에 든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것인가?
⑦ 저안에 든 물체의 안색은 어떤 색인가?

육임강의록 (下)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外)
- 국수해설
- 길흉성부단정항목 1쪽으로 독립
- 육임판단순서
- 정단별 류신(類神)구분
- 초사(初辭)
- 귀신침범여부

◆「사복법 二」는 사람의 신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⑧ 저안에 든 물건은 먹을수 있는것인가, 못 먹는것인가?
⑨ 저안에 든 물건의 맛(五味)은 어떤 맛인가?
⑩ 저안에 든 물건(돈)은 몇개, 얼마인가?
⑪ 돈이 오른쪽에 들었는가 왼쪽에 들었는가?
⑫ 저안에 든 물건이 계절이 지난 것인가 현 계절의 것인가? 다가올 계절의 것인가?
⑬ 저안에 든 물건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쓸 수 없는 것인가?
⑭ 저안에 든 물체의 속 색깔과 겉 색깔은 어떤색인가?
⑮ 저안에 든 물건이 한가지 인가 섞여 있는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육임학당 효사숙」강의 안내
효사숙 제 6기 강의를 시작 합니다.
오는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이고, 오행기초, 기본강의는 3시부터 2시간 사전 교습받게 됩니다.
본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본회 회원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5시부터 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임 고급실기강의 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는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 下권 (값410,000)을 드립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5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단, 활인천역자로서의 그릇 여부를 판단, 선별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 주문 전화 02) 993-8680 ● 본 휴대용 값 310,000원 ● 본 강의록 상·하 값 410,000원 ● 육임래정비법CD 2,000,000원 ● 육임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강의 비디오 900,000원
▶ 현금입금 후 전화요망 / 2일이내 도착 배본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지눌의 화엄사상 이해’ 재조명 돼야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전서 역주’ 중간결산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5월 2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보조전서> 역주와 보조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50차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년 동안 진행되는 <보조전서> 역주 작업의 중간 결산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역주 작업이 지눌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보조전서’ 역주 작업을 하고 있는 보조사상연구원은 5월 24일 중간보고를 겸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발족한 보조사상연구원이 보조지눌(1158~1210)의 저술과 비문을 한데 모아 1989년 간행한 <보조전서>는 번역하면 원고지 13,0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 아직도 한글 번역과 주석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보조전서>의 60%에 해당하는 <화엄론절요>는 국내에 한글 번역본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실장 인경 스님은 “보조의 저술은 다른 고전적인 원전들과 마찬가지로 인용문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보조 스님이 자신의 저술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전을 밝혀내 주석하는 것은 지눌 사상의 형성과 그 독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고 이번 역주 작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표적 예가 화엄 사상에 대한 입장이다. 지눌은 이통현의 화엄사상에 입각해 정통 화엄을 대변하는 법장(法藏)과 징관(澄觀)의 화엄사상을 비판했다는 것이 기존 학계의 대체적인 이해. 그러나 이날 ‘보조의 화엄교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을 발표한 인경 스님은 지눌이 <원돈성불론>에서 법장과 징관의 정통 화엄사상을 직접 비판했다는 기존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는 <화엄론절요>의 번역과 주석 작업이 주 테마. “화엄사상이 어떻게 수용됐으며 보조

“이통현 입각 법장·징관 비판” 잘못된 견해
고려 불교계 아류적 화엄사상 겨냥한 것

돈성불론>에서 인용한 원전의 고증을 통해 “지눌이 비판한 화엄사상은 법장이나 징관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고려 불교계에 유포되고 있던 아류(亞流)적인 화엄사상의 이해”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인경 스님은 “문헌적 고증의 결과 지눌이 비판한 것은 연기문(緣起門)을 끌어와 성기문(性起門)을 설명하는 등 법장의 성기설과 연기설을 서로 혼란되게 이해한 당시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지눌이 <원돈성불론>에서 법장과 징관의 정통 화엄사상을 직접 비판했다는 기존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는 <화엄론절요>의 번역과 주석 작업이 주 테마. “화엄사상이 어떻게 수용됐으며 보조지눌의 선사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경 스님의 설명이다.

인경 스님과 함께 역주 작업을 하고 있는 김방룡씨는 “한글세대인 후학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번역본을 제시함으로써 보조학을 제반 학문에 응용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원효가 ‘기신론소’에 주석한 수행법

천태의 ‘차제선문’서 인용한 것

최기표 씨, ‘소지관’ 통설 오류 밝혀내

원효(617~686) 스님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인 <대승기신론소>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밝힌 ‘수행신심분’이 교리를 설명한 ‘해석분’과 함께 본론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천태의 지관론이 인용돼 있어 원효 사상에 미친 천태 교학의 영향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일본 천태학의 권위자 세기구치 신다이가 1974년 발행된 <천태소지관>의 서문에서 밝힌 이후 ‘수행신심분’에 인용된 천태 지관론은 <수습지관좌선법요(‘소지관’으로 약칭)>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그런데 30여 년 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온 통설의 오류를 국내 한 소장학자가 밝혀내 관심을 끌고 있다.

5월 24일 한국불교학회(회장 권기종)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기표(동국대 강사)씨는 “<대승기신론> 가운데 실천에 관한 내용인 ‘수행신심분’에 대해 원효가 <기신론소>에서 주석한 내용은 상당한 분량이 천태(538~597)의 <차제선문>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승기신론소>의 ‘수행신심분’과 <소지문>, <차제선문>의 해당 구절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한 최 씨는 “<소지관>에서 인용한 구절이 두세 군데 나오지만 이는 <차제선문>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어느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행신심분’ 주석의 3분의 1 가량은 <차제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원효 이후 2~300년 동안 문헌에 인용된 게 없어 천태 교학의 국내 전래시기가 불분명했다”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온 <차제선문>이 원효 저술에 인용됐다는 것은 천태 교학이 7세기 무렵 전래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익산 출토 국보 ‘금제 금강경판’ 고려 아닌 백제 무왕때 제작됐다”

서지학자 송일기 교수 주장

국보 123호 순금금강경판(純金金剛經板)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년) 때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학자인 송일기 교수(전남대 문헌정보학과)는 5월 23일 열린 원광대 부설 마한백제연구소(소장 김삼룡)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금제 금강경판의 형태적 특징과 윤문현상(원문에 첨가된 글자나 문장의 첨삭 정도)을 검토한 결과, 구마라집이 402~412년 번역한 한역 <금강경>이 무녕왕(재위 501~523년) 대에 백제에 들어왔으며 이를 무왕 대에 금종이에 사경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1965년 익산 왕궁리5층석탑(국보 289호) 해체복원 때 발견된 금제 금강경판(사진)은 그동안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금강경판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을 얇게 펼쳐 만든 금종이 위에 각필(대나무를 깎아 만든 뾰족한 펜)로 눌러 쓴 사경이라는 주장도 정밀하게 조각된 나무활자로 찍어서 만든 것이라는 기존 학설을 뒤엎은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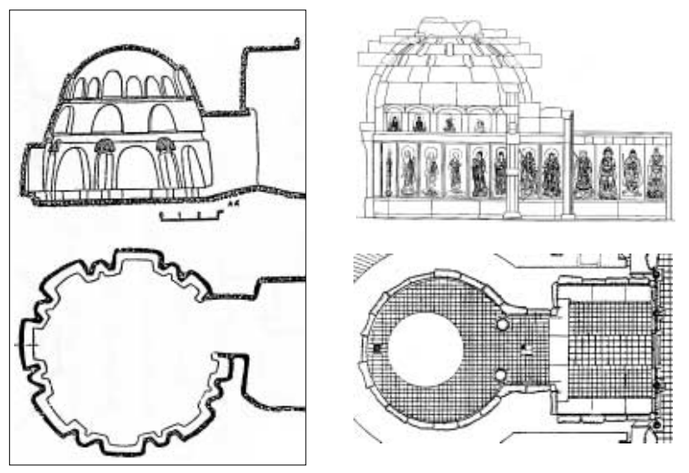


절(8)

석굴암의 뿌리

석굴암은 신라건축의 정화이자 신라조각의 절정이며, 한국건축의 완성이자 한국조각의 백미이다. 그런데 석굴암은 그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인도, 더 나아가 유럽의 문화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문화의 집적(集積)이자 총합(總合)이다. 어느 한 시대 한 문화의 영향이라고 못 박기에는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더욱이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신라적인 시각으로 조화시킨 역량이 돋보인다.

석굴암의 구조는 원형의 평면에 돔의 천장을 갖고 있는 주실에 사각형의 평면인 전실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전실에 걸쳐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바미얀이나 하아바크 등의 아프가니스탄의 석굴사원과 유사하다. 사각형의 전실에 돔 천장을 갖춘 원형의 주실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지붕 아래에 불상을 안치한 감실이 줄지어 있고 천장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장식한 점도 석굴암을 연상케 한다. 아잔타나 엘로라 같은 중인도 석굴사원의 길쭉한 원형 공간에 비하여 북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석굴사원에서는 둥근 원형의 돔이 등장하는데, 석굴암은 후자에 가깝다. 또한 간다라식의 석굴구조는 그 뿌리를 찾아가자면 비잔틴의 교회당에 닿아있다. 중국에서는



◇바미얀 168굴(사진 왼쪽)과 석굴암(오른쪽 위가 단면, 아래가 평면). 돔의 천장을 돌못의 패턴으로 장식하고 감실을 열 지어 배열한 방식은 아프가니스탄의 석굴사원과 유사한 방식이다.

돔 천장·감실 배열, 아프간 석굴사원과 유사
印→중앙亞→中 비단길 거친 역사적 산물

는 세속의 잡된 것으로부터 불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킴이들이 세 단계로 배치되어 있다. 제1선에는 8부중이 양쪽에 4구씩 나뉘어져 있고, 제2선에는 주실로 들어가는 통로 양옆에 인왕상이 각기 한 구씩 서있다. 그리고 제3선으로 통로 양쪽에는 2구씩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철통같은 지킴이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인 주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주실에는 가운데 본존불을 중심으로 보살들과 십대 제자가 호위하고 있고 2층 감실 안에 보살들과 유마거사가 앉아 있다. 전실은 속세의 공간, 주실은 부처님의 공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석굴암식의 구조를 갖춘 석굴사원은 간다라 문화권인 북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러한 구조가 석굴암보다 늦은 10세기 투르판에 있는 베제클릭 석굴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조각의 경우는 중국 당나라 조각과 관련이 많다. 둥근 석굴 중심에 불상을 모시고 그 주위 벽에 10대 제자상을 부조로 새긴 방식은 중국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원, 즉 낙양의 용문석굴 가운데 당나라 석굴인 간경동의 제자상들과 닮았다. 또한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천룡산 석굴에서 나온 당나라 십일면관음보살상(동경박물관 소장)과 비슷하다. 석굴암은 인도의 석굴사원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온 실크로드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듬고 조화를 꾀한 신라인의 국제적이자 역사적인 산물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국내최초 침대용 의료기기 허가획득
기념20%세일
『佛心同體』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돌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헬스700
₩4,800,000 → ₩3,840,000
헬스600
₩2,700,000 → ₩2,160,000
통증,근육통,혈액순환개선까지…
헬스라이프 보료
▶ 스님께서는 보료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싱 글 : ₩1,900,000 → ₩1,560,000
● 더 블 : ₩3,600,000 → ₩2,88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
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침구로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종업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의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헬스라이프 의료기기침대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G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재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 의장등록 제0304137호
● 품목허가번호 제03-272호
● 벤처기업확인 제021627032-2-5232호
● 제조업허가 제937호
● KS A 9002:1998/ISO 9002:1994 인증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 (02) 581-6011~3
공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1리 272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8-325-8802

영가천도후 확인을 한다면 시원하시겠지요
천도중 거의 확인시켜드립니다.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
해 원 사

구인 구직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이나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운전면허 1급 소지자 환영)
052)254-5125

처사님과 보살님
절일 도우며 평생을 수행정진하실분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선원
051)973-7158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일을 기도하실 스님)
▷40세 이하
016)521-0003
054)975-0003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
011-9477-2866

시달림. 49재 천도재. 각종불공 신행상담.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연락주시면 성의껏 해드립니다
011)9211-5299

부전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
011-9477-2866

주지소임을 원합니다
스님필요하신 사찰은연락주십시오
054)751-1058
011-883-005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까지
▷월 보시 80만원
(목욕비 지급, 월 3박4일 휴가)
▷경북 청송
▷대한불교 조계종
054)872-4183
011)810-0698

비구니스님 모심
암자,포교당 같이 운영할 스님
(서울,의정부,양평,대전)
▷25~40대
011-204-2522
02)2201-0796

산사에서 기도하며 함께 사실 스님을 모십니다
▷가평 백련사
011-278-620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공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011-9782-3216

기도스님과 행자님모십니다
공기맑고 숲이있는 정법도량입니다
사미스님도 환영
대 구 팔 공 산
011-9317-9181

조용한 산사에서 후원일하며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사실 보살님 모십니다
063)535-6800
보림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시 황룡동 보살님 사찰
054)772-2851
성 아 사

서울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사찰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012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시
시내중심에서 5분거리
054)636-3996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조계종 기도 스님 모십니다
▷ 경남 진해
055)552-5111

원하시는 기간동안 기도해 드립니다
019-357-5009



알림정보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효소)
발명특허원 15826호
가. 제품의 특성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를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된다.
나. 청국장의 효능
⊙ 정장 작용 - 변비 해소
⊙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효과
다. 가격 : 77,000원 (낫도씨, 볏짚, 불약콩 500mg 포함)
라. 양구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12,000원/1kg, 8,000원/1kg
※신청: 우리콩운동본부 033)481-4894. 온라인(농협) 123-17-000466 정락훈

氣 수강생 모집 功
중국秘傳十八代傳人 직접 지도
▶개강 : 6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련시간 : 오후 5시~7시 (2시간) 시간조정가능
▶치료병행 : 각종 남여 난치병 (중풍, 당뇨, 신경통 등)
▶초능력 개발
▶고급 기공 비법을 선별하여 전수합니다.
접수문의 : 02)935-2728. 017-208-2866

운세..통화 즉시 잘 맞추면 보세요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02-826-5067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찾아드립니다. 굿,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일체 안합니다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정 토 암 · 법명 : 정 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무량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6월 4일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 장 사
· 주 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석천리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법상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6월 4일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사람을 찾습니다

· 성함 : 범옥균 · 성별 : 남
· 나이 : 56세 키 : 165cm
·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 후사 : 200만원 사례하겠음
017-653-1077
011-9723-1043

동양학 수강생 모집
고금의 역학자료를 구비 동도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본원에서 다음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개강일자 : 7월 1일(주1~2회 강의)
◆ 강의실관계상 각 과목당 12명만접수
⊙ 태을 : 무료 강의 - 엄태문선생 (교재구입시 1년 강의)
⊙ 풍수 : 월 10만원 - 허정수 선생 (6개월과정)
⊙ 명리 : 무료강의 - 엄태문 선생 (3개월과정)
⊙ 육효 : 월 10만원 - 소명호 선생 (3개월과정)
역학도서관 www.edoseo.com
02)3673-3403 / 011-229-2801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탈 종 공 고
· 법 명 : 修 元 (2539-1202) · 속명 : 김창엽
· 주 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287-15
상기 승려는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5월 28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만 호 사 · 법명 : 도 운
· 주 소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산 135-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6월 4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 氣功 교육원
02)3446-4118

이화 기와 공장
청기와. 한식기와
세멘기와. 칼라함석
041)554-0112 / 011-9820-0112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옆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6월 2째주, 4째주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옮기지를 못하고 작고 가벼운 경험담만 허락을 받아 옮기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포교원을 운영하시는 지은 법사님.

경기도에서 포교원을 운영하시는 지은 법사님(017-755-0701)이 저의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수행(15기)하시던 5월, 네번째 주, 둘째날, 법사님이 **파동명상**요법으로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신도들의 사업체와 집을 **파동명상** 상태에서 영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흥 · 망 · 성 · 쇠의 흐름과 그 집이 위치해 있는 땅의 기운과 그 장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인 무리들의 형상을 보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무척 놀라워하고 감탄하셨습니다. 또한 법사님이 자신의 포교원을 살펴본 결과 법당에 좌정해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신장들의 또 다른 모습과 엄청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며 포교원 뒷산의 기운과 포교원이 위치한 그 장소와 법사님의 인연까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합장을 하셨습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안내

- 위치:부산 / 법당:36평 / 요사:150평 / 부지:755평 / 가액:25억
- 위치:충남천안 / 법당:25평 / 요사:95평 / 부지:300평 / 가액:3억7천
- 위치:경기가평 / 법당:15평 / 요사:40평 / 부지:1890평 / 가액:10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성남시내(지하철역 10분)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5억
- 계곡 및 산세 좋음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전철 10분)
- 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채 : 80평
- 양도 : 10억
- 역사깊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 면적 : 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가액 : 3억
- 위치 : 서울 포교당
- 면적 : 35평
- 전세 : 5천만원
- 교통요충지, 옥상사용가능
- 철학관으로 최고적지임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珍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사찰안내

- 위 치 : 김해
- 대 지 : 만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220평(2동)
- 가 액 : 5억

※부산에서 30분거리
※소나무산으로 둘러싸임

- 위 치 : 부산
- 대 지 : 약 22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5평
- 가 액 : 9억

※ 송림속의 도심사찰
※ 교통 주차 편리

- 위 치 : 양산
- 대 지 : 약 52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70평
- 가 액 : 5억

※내원사 인근
※ 교통 주차 편리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

어떠한 병증세에도 골반용명 압찰법과 함께하는 기공치료로 치유될 수 있읍니다

02)924-9904
011)254-0784
태극기공치료원
거사 해암 합장

상 담 환 영
개 인 지 도
스님할인혜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 앞뒤로 아파트단지. 주엽전철역150m
- 3층 건물중 3층, 25평, 방 1개
- 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3백만원
- 철학관으로 적합

031)919-0306
011)9701-0603

암자토굴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조적 1,2층 (2층 원룸) 양옥 68평
- 가액 : 1억 3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수련원 안내

- 경남 함양군 백운산
- 토굴, 수련원 적합
- 터 1만5백평, 대지 200평, 가 32평 포함
- 차량진입, 연못, 전기 · 전화 유
- 산세수려, 전망수려함
- 평당 2만원

055)943-787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토굴)안내

- 위치 : 신림동 / 부지 : 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2평 / 가액 : 5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8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북고령 / 부지 : 2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170평 / 가액 : 4억2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제일 요지 포교당
- 신축 빌라 24평
- 방 3개, 법당
- 가액 : 융자안고 2400만원
-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 권리금 없음

032)541-9428
011)9642-120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바닷가 옆) 종점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8천만원(조정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 부지 1만평, 평당 7만원 사찰터도 있음

031)533-242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대포동 서울서 45분거리 이천시내서 5분거리
- 2010년 전철 완공
- 대지 : 188평, 법당 23평, 요사 37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142-3737
031)634-2136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서까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암자 안내

- 서해안 암자 매매
- 가액:1억~1억5천만원 (절충 가능)

011)269-7208

사찰 안내

- 광주광역시 남구(시내권)
- 3층 법당, 1-2층 요사채
- 법당에 있는 불구(미륵불 포함) 일체 포함한 가격
- 가액 : 2억3천만원

019)602-4730

사찰터 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피아골 지리산 불락사 사찰 입구
- 밤나무가 심어진 2차선 도로접
- 5천 5백평
- 가액 : 9천만원

016)572-149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10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207-9436

포교원 안내

-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소재 조계종 포교원
- 4층 신축건물의 4층 : 층당 100평
- 법당1, 승방2 : 총62평. 후원채수각장 : 총12평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0만원 (임대 10년 계약 중 1년 경과)
- 건물 등기부상 일체 하자 없음. 포교원 조건으로는 최적지.

053)326-4317 / 011)9315-0554

사찰 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특징 : 잘 지은 절
- 가액 : 3억 3천만원

011)226-28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에서 2분거리
- 평수 : 빌라 2층 40평
- 법당 : 25평, 방 2, 주방 1
- 가액 : 1억 2천만원(평당 300만원)
-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051)512-0437
016)574-0437

사찰 전세 원함 (포교당 제외)

016)563-6826

사찰 안내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 대지 300평
- 법당 35평, 요사채 1층 40평, 2층 40평
- 4차선 도로예정지
- 가액 : 3억

031)334-483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 종점
- 임법당 한옥 목조 370평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법당, 지장전
- 임야 : 33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829-780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수욕장 옆
- 평수 : 55평. 법당 1, 주방 1, 방 4, 화장실 2
- 주차장완비. 포교당위치 최고A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상담후 결정
- 스님 사찰 불사관계로 이사감

011)595-1522/051)759-9058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광천
- 대지 182평 건평 슬라브 30평, 조립식 20평
- 300평 텃밭사용 가능, 주차장 완비
- ※270년 묵은 느티나무 정원수, 유실수, 주목 다수
- 시설 : 삼불, 신중, 영가단 살림, 집기 일체(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6천 8백만원

016)294-526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 남한산성 전철역 부근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0평, 방1, 도시가스
- 삼존불, 부처님 3분, 후불, 신중
- 보증금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

031)732-0471
016)265-2762

사찰터 안내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 부지 : 10, 500평
- 절부지 3천평, 건평 74평
- 가액 : 8억 5천만원

011)202-7253

사찰 안내

- 통영시 (경남)근처 섬
- 대지 : 100평(사용면적 300평)
- 법당 : 한옥(기와) 30평
- 요사채 : 17평
- 특징 : 기도 영험도량 신도많고 운영잘됨
- 가액 : 2억 2천만원

011)9677-2724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전세안고 5천만원 모든비품, 시설 포함한 가격

051)516-3374
011)598-867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언양터미널에서 7분거리
- 대지 181평, 농지 200평, 총 400평
- 임법당30평, 요사채 20평 1동
- 건물 완공 2년
- 특징 : 수려한 야산에 정남향 8m도로접, 교통 편리함
- 가액 : 2억 6천만원 불교집기및 생활집기 포함

011)9544-0997

사찰 최적 토지 안내

- 익산시 함라산 동남향 웅덩이 모양
- 면적 : 약 2만 8천평
- 지목 : 임야
- 번지내까지 차량 진입가능 자연경관 최상
- 사찰, 실버타운, 종교, 납골묘원등등 가능 지역임
- 평당 : 2만~3만원

건물 대지 안내

- 사찰, 암자, 종 교단체 휴양시설 적합한 건물 및 토지매매
- 고개정상의 민가와 떨어진 수행장소 최상
- 통나무집 4채 대지 1,129평 건평 110평
- 연락처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063)855-2005
016)605-001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시내 위치
- 종교용지 : 436평
- 법당 : 10평
-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 조계종 승려에 한함

011)9581-6044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팔공산 파계사 근교
- 대지 : 306평
- 목조 건물에 법당, 요사채 사용 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팔공산 순환도로에 인접
- 가액 : 3억(답사후 가액조정)

053)985-9824
017)522-5544

포교원 안내

- 10여년 포교의 보금자리를 산중불사 완료되어 이주코저 새로운 인연을 찾습니다
- 서울 도봉구 쌍문동 로타리
- 법당 약 25평(기도실, 상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011)703-6648

사찰 안내

- 경남 밀양시
- 대지 : 50평
- 임법당, 법당, 부엌, 광, 방1, 샤워실, 화장실
- 정원공사가 잘 되어있음
- 불자 동네임
- 가액 : 2천 5백만원

055)391-0044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527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사무실, 요사, 주방, 고시원, 방 18개 운영
- 가액 : 답사후 결정
- 교통좋은 산을 낀 취락지정 시가지의 요충지

031)643-9051
019)375-9051

암자별장 및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급)안내

- 현풍⇔창녕 국도 경계지점
- 평수 : 약 1,100평(종교부지 전환)
- 요사채 55평(실내화장실3개, 스님방 별도 화장실) 방 5개, 거실, 주방 ● 법당 30평(석가모니 대불)
- 마당(지장보살님, 팔각정 차방)
- 집기등 일체 다 드립니다
- 가액 : 2억 5천만원(5천~6.7천만)대출대체 가능

016)535-8833/011)543-1515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7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진역 앞 전철역 3분거리
- 법당 약 25평
- 법당, 방, 주방, 화장실
- 전부 600만원에 보시 하겠읍니다.

011)866-7372

토굴별장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각북면 대구에서 30분거리
- 대지 : 130 여평(텃밭 있음)
- 한옥 2채(방6칸) 40평
- 식당채 보일러 시설 정진방 나무때는 부엌
- 비구니 스님이나 노부부 모실 분 적당함
- 가액 : 4200만원

011)415-5558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600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암자 토굴 안내

- 경남 밀양 : 4500만원
- 대전 보문산 : 4500만원, 6000만원
- 공주 신원사 : 2500만원
- 굿당, 기도도량 : 2500만원
- 칠갑산 토굴 (보증금 500, 3년세 300만원)

※ 토굴 암자 수시 보유

017)409-9599

사찰터 안내

-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탄부저수지
- 전 1170평(준농림지)
- 용도 : 사찰터나 묘지터 납골당
- 도로 농로 나왔음 보은읍에서 7~8분 거리
- 평당 3만 5천만원(절충가능)

011)9122-079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51)517-1860/016)444-5758

포교당 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4층건물중 3층 30평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방1, 주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집기포함 2천5백만원

011)9852-8386

토굴처 안내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 대지 : 126평, 신축주택 (황토목조건물)28평 현재 도자기공방
- 방3개, 전시장, 작업실 15평
- 가스가마, 토련기 및 기자재 일체
- 정남향, 저수지가 보이는 명당임
- 가액 : 1억 2천만원

055)345-3952
011)9525-395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시내중심가)
- 법당 20평(2층), 요사채25평(1층) 방5, 창고1, 화장실2, 대지45평
- 시내중심가변에 위치, 교통편리. 삼존불 봉안. 도심포교에 능한스님. 철학하시는 스님. 시내토굴로 사용하실 스님. 좋은 위치에있는 사찰임. 시설완벽함(모든 시설및 모든 지원) 뒷산은 공원
- 주지스님 급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 : 9천 5백만원

019)9282-4080

사찰 안내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서당골 산과 계곡 접
- 목재 한옥, 임법당, 방4개, 단청필
- 보증금 3천만원, 월50만원 (1년 5백만원)
-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도보 50m
- 위치최고, 생활도구 일체제공 몸만즉시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57-5677

사찰(급) 안내

- 매입자 및 사찰운영자 구함
- 행정수도예정지 인접
- 서울서 1시간 거리
- 경부 IC에서 5분거리
- 전통사찰 건축 양식
- 주변경관수려(관광지 인접)
- 가액 : 8억원
- 사찰운영자는 절충하여 결정

011)9134-6723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방계리390
- 대지 : 200평, 밭 700평
- 임야 : 약 200평
- 법당 1개(기와), 아랫채 2동
- 가액 : 1억(가격 절충)

055)366-1619
054)833-4492(안내)

사찰기도터(급)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011)742-5925 / 043)422-1666

목어

무지개의 아름다움



도 수
정업도량 회주

80년대 초. 신군부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시절은 당시 발간된 소설의 제목 <어둠의 자식들>이 말해주듯 숨쉬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던 때였다.

어느 날,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자기 교회에 와서 법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목사님은 바로 <어둠의 자식들>의 실제 주인공이며 빈민운동가로 유명했던 허병섭 목사님이었다.

지금도 종교 간의 교류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더욱 어려웠다. 당시 그 교회에서도 나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독교도가 있어 내게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허 목사님이 적극 만류해 큰 탈은 없었다.

최근 불교와 천주교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반가웠다. 대구지역에서 스님과 신부님이 절과 성당을 오가며 강연을 하는 일이 잦아지는가 하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3보1배 정진 중인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이야기는 자못 감동적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정도까지 밖에 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이 아집과 독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종교의 전파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지개는 여러 빛깔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생명수나 휴거를 주장해야만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다. 자기 종교만을 앞세우다 화합과 상생의 길을 멀리하고 양심과 이성과 인륜을 마약처럼 마비시킨다면 그 어느 종교든 사이비이며 이단이 아니겠는가.

용호복지관 독거노인 장수잔치

칠순, 팔순, 구순을 맞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홀로 어르신을 위한 장수 잔치'가 열렸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5월 29일 2층 강당에서 24명의 어르신들께 잔칫상을 차려줬다. 이날 장수 잔치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케이크 자르기, 생신선물 증정에 이어 봉사단체 '정다운 회'의 노래공양, 어린이들의 무용 등 다양한 어울림 한마당 공연이 마련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장군죽비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의 희망?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요즘 전북지역 곳곳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관(官) 주도의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관변단체를 동원한 대규모 궐기대회에서는 으레 '새만금사업=전북도민의 희망'이라는 구호가 난무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 · 회의파들은 압력까지 받고 있다고. 마치 70~80년대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곤 하던 반공 궐기대회의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



불자 세상보기

구승회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편들지 않고 살기

막스 베버가 말했던가, '세상은 언제나 악마의 지배 아래 있으며, 누구든 일단 정치권력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미 이 악마적인 힘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베버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책임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반대로 말한다. '인간은 어차피 사악하고, 위선자이며, 물욕에 눈이 어두운 속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베버씨나 마키아벨리씨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지금 우리사회에 난무하는 주의(主義)와 주장을 다스릴 묘안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편들지 않는 것보다 현명한 처세는 없어 보인다.

편들지 않는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편들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정말로 애매한 경우다.

나이스(NEIS)를 둘러싼 싸움은 인권 보호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이다. 이런 갈등은 인권과 효율성에 대해 동일한 도덕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데서 발생한다. 인권은 효율성보다 높은 가치임에 틀림없으며, 그래서 폐기론자들은 당연히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운다. 하지만 나이스 폐기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가 심각한 정보유출이 아니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맨 정신으로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이데올로기)을 동원해야 하며, 이런 신념에 기초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s)이 되고 만다.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알지만, 옳음보다는 좋음을 선택하는 도덕적 기회주의자로 남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이냐, 중단이냐의 싸움은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사회적 선의 경중을 가리는 싸움이다. 이런 싸움은 대체로 사안의 우연적인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 왜 우연적인고 하니,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는 대립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연적인 외적 · 사회적인 요소가 개입되면서 정책결정자들의 용의주도한 눈치 보기에 차질이 생긴 경우이다.

세 번째는 두개의 상충하는 가치 말고 제3의 가치지향을 가진 경우다. 이런 태도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주로 취해진다. 우리 사회는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색깔에 따라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서로 더 정의에 가깝다고 말한다.

색깔 구분이 분명한 우리 사회에서 타인, 타 집단이 적색인지 청색인지 녹색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나 같은 사회적 색맹은 종종 비겁하다고 비난받는다. 타인의 색깔을 구분할 수 없어서 어느 쪽에도 편승(便乘)할 수 없는 나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편 색깔을 위해 결사 투쟁하는 사악한 정의보다는 '훨씬 자비로운 부정의(不正義)'로 용납될 것이다. 색맹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자신과 다른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과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들어 주지 않는다고 '못해먹겠다'고 원망하지 말자. 민주적 제도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하는 한 그들은 그들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그리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경불련, 노숙자 복지 불교계의 역할

최근 노숙자가 다시 늘기 시작한 가운데 불교계의 노숙자 복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정책위원회가 '노숙인 복지와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5월 23일 개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도 지난 98년 IMF 사태 이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편집자>

핵심은 주거문제, 불교계 후원 절실



◇경불련 제2차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노숙인 복지와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조성준(노숙자대책 종교협 간사)

실무자, '수행자' 아닌 '실천가' 돼야

'노숙인 보호사업'이란 영역에서 실무자로 활동한지 5년째다. 사실 그간 '노숙인 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 지난 98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정부와 민간복지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노숙인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당시의 노숙인들의 처참한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완화되거나 숨겨진 것뿐이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 왔지만 현장 실무자들도 지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고된 근무환경, 자기비전의 부재, 정체성 상실, 답답한 현실 등의 이유로 하나둘씩 이곳에서 떠났다. 특히 경제문제와 근무환경이 실무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는 '노숙인 복지의 실무자'가 아닌 '노숙인 복지사업 종사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탓이다.

노숙인 복지는 '사업'이 아니다. 노숙인을 위해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림길에 서 있는 정부의 노숙인 보호사업이 '노숙인 복지'를 실천을 뜻하는지, 아님 '노숙인 복지사업'을 의미하는지, 현장 실무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같은 '노숙인 복지사업'의 제도화로의 제도화를 선호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노숙인 복지'를 실천하는 활동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 김도진(구세군 충정로 사랑방 총무)

재활 · 자활 사업등의 프로그램 필요

구세군의 실직노숙자 사업은 1998년 정동 다일사 개설을 시작으로 전개됐다. 이후 구세군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실직자와 실직노숙자들을 위해 쉼터와 상담센터, 자활의 집, 무료급식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숙소와 식사 제공, 취업정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의료 및 사회적 재활을 위한 정신교육 등이다.

취업 상담은 중소기업청, 노동부, 각 기업체의 취업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또 사설 직업 교육 훈련기관, 구청 등 관공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담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담돼, 개별 · 집단 · 의료 · 귀가 및 귀향 · 심리 등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다.

구세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재활 및 자활사업이다. 이 사업은 알코올 상담, 대인관계 상담 등의 재활사업과 금전관리, 창업 지원 등의 자활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자활센터는 재교육 정보 제공, 건설 인력 시장 확보, 서대문고용알선센터와 자재결연, 후원처 개발 등의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자립의욕이 있는 노숙자에게는 '붕어빵 창업' 등 소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게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구세군은 이를 위해 '구세군 자활 노점 창업' 프로그램 15개를 개발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최윤숙(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 상담실장)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 중요

서구 사회는 노숙인의 문제 핵심을 주거문제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현재 불교계의 노숙인 복지는 쉼터 중심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숙인의 문제를 '주거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편견이다. 두려움과 공포 등의 감정일 거라는 편견의 뿌리는 약자들인 이들 노숙인들을 멸시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숙인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란 시선이 문제다. 이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불교계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2002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자 중 1,129명(69%)이 일용직, 임시직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실에서 불교계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선 노숙인 복지를 위해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이는 불교계 노숙인 복지단체들이 사업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정작 열악한 후원구조로 한계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에게 관심을 갖고 불법을 전파해야 한다. 특히 불교계는 노숙인 문제의 핵심은 주거문제임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유 보

2003년 6月 6日 동화사에서
개최예정이던 종단대 화합을 위한
결집대법회가 유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일정이 잡히면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화사 주지 지 성 합장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고의 빛과 소리 테크놀로지 -노바프로100
노바프로100 기본사양 오라진동 쿠션 옵션사양

*명상, 릴렉세이션, 학습, 창의력 등 100세션
*더 진보된 세션을 창조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세션
*CD나 카셋트 음악을 광안경 불빛으로 전환기능
*순백색광안경과 고급 다이내믹 헤드폰 등
*미국 포토소닉-마이크로젯사 제품
*오라진동쿠션(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미국 포토소닉 사 제품- 뉴욕 타임즈 기사 내용
"예전에 당신은 화롯가의 점멸하는 불빛에 의해서 마음이 안정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빛과 소리 기기가 당신을 이완시켜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라고 빛과 소리 기기의 사용자들은 말합니다…사용자들 중 일부는 세션 동안 이완되어서 수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즉각적인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의 감각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빛과 소리 기기가 적어도 나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명상에 잠기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리 기기들은 명상 동안 방황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점멸하는 빛은 집중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Rickhi박사는 "우리는 명상 하는 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 뇌파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빛과 소리 기기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의식의 변형을 가속화시키고 명상과 릴렉세이션 기기가 될 수 있다…빛 자극은 수동적이다; 당신은 릴렉스 이외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작동하게 놔두기만 하면 된다. 빛 자극은 두뇌의 인산염(phosphate) 수준을 상승시키고, 두뇌 대사작용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신경 통로들, 동조라고 부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뉴욕 타임즈 2003년 1월 30일
이 기사는 노바프로100을 생산하는 같은 회사 제품인 인너퍼즈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드리고 상담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766-6343

사찰음식의 대중화 선언!
이여영의 새롭게 선보이는 358가지
자연 건강 사찰 음식
-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12기생 모집 -


전권 값 38,000원
"이여영님은 30여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생활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정진에 대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을 통해 맑고 건강한 몸과 생활을 가꾸어 가기를 기원드리며 그 공덕으로 우리 사회와 자연이 똑같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正大
사찰음식의 특징은 어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있다.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 수련의 승화된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제월 통광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12기생 모집 안내
▣ 일 시 : 6월 10일 (매주 화요일)
▣ 과 정 : 1년 과정
▣ 장 소 : 감로당
▶문의: 전화 (02)3210-3397 H P 018-236-8734
자연건강사찰음식 연구원
원장 이 여 영

안동경찰서 — 특별 수사대
경북포항시 — 명예 감시관
경주박물관 — 핫 라인설치

문화재 지키기 "물 샐 틈 없게"

포항시와 안동경찰서,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수사대' 편성, 명예감시관 지정, '방범 핫라인' 개설 카드로 문화재 도난 도굴예방에 나섰다. 국립공주박물관의 국보강탈사건으로 인한 강력대응책의 일환이다.

안동경찰서는 5월 26일 4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지킴이 특별수사대' 발족식을 갖고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문화재 전문 수사요원 4명으로 편성된 '문화재 지킴이 특별수사대'는 지정 문화재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리체제를 유지해 문화재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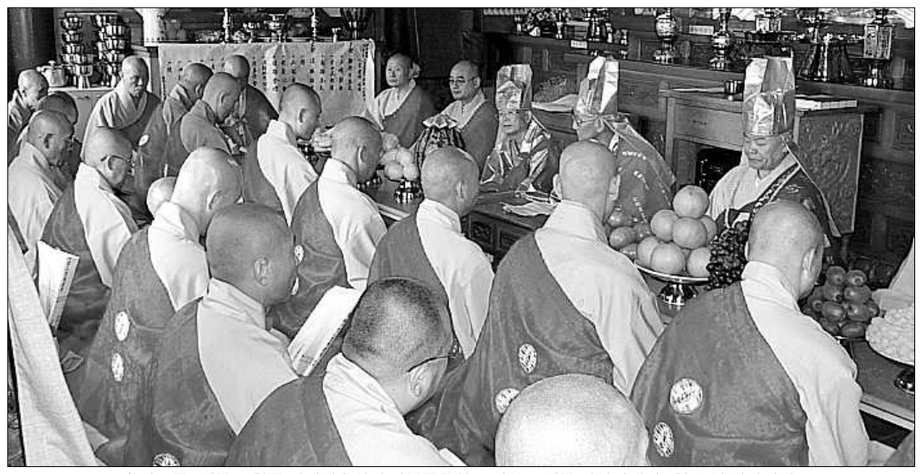
또, 포항시는 문화재별로 명예감시관을 지정하여 지방 문화재 보호에 나선다.

포항시는 최근 문화재 명예감시관을 통해 심야 등 도난, 도굴에 취약한 시간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이 보관하는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방지시설 및 위탁보관을 권장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장마기간인 7월에서 10월까지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박물관과 경찰서를 잇는 핫라인 개설을 통해 외부 침입에 의한 도난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체 방범 체계에 따라 외부인의 침입에 경보가 울리면 경비원들이 전화를 통해 경찰에 알리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태고종 4대문도 합동 법맥전수식이 경북종무원 주관으로 대구 관암사에서 5월 28일 개최됐다.

태고종 첫 합동 법맥 전수식

대구 관암사서, 스님 36명에 가사·법호

태고종 합동 법맥전수식이 5월 28일 대구 팔공산 관암사(주지 혜공)에서 열렸다.

태고종 종조인 태고보우국사 이래 상봉, 팔봉, 영파, 대륜스님 등으로 이어진 태고종 4대 대표 문도가 합동으로 모여 법맥을 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에서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는 상단권공으로 시작해 부처님전에 법맥전수를 알리는 고유문 낭독, 법통을 전하는 전법게송 등으로 이어졌으며,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합동 법맥전수식에는 태고종단 원로회의 의장 일우스님, 전 사정원장 연운스님, 전 총무원장 혜초스님, 대구경북 종무원장 혜공스님, 혜담스님, 진담스님, 지허스님, 환허스님 등 모두 8명의 스님들이 36명의 법제자들에게 가사를 전하고 법호를 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법을 전수 받은 36분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단한 수행정진을 통해 이 땅에 불국정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구 기자



◇해인사 승려노후복지원 '자비원' 전경.

승려노후복지원 '자비원' 개원

해인사, 무료양로원 3동 · 임대주택 갖춰

노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승려노후복지원이 문을 열었다.

5월 26일 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진 노인복지시설 해인사 자비원은 무료 양로원과 3개 동의 임대주택을 갖추고 있다.

자비원은 '가야산 실버타운'을 해인사 측에서 인수해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개원한 것으로 2000여평의 부지에 3층의 본관을 비롯해 스님들을 위한 3개 동의 임대주택과 선방 <광명선원>이 운영되고 있다.

자비원 선방에서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안거기간동안시설이나 임대주택에 입소한 스님들이 참선수행정진을 하고, 평소에는 사부대중을 위한 수행공간으로 개방된다. 해인사는 또, 하루 두 차례의 개인명상과 산책, 정기법회 등 심신안정과 노년에 삶을 재발견 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료 요양시설에 21명, 임대주택에 46명 등 67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입소해 정진중인 해인사 자비원은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승려 노후복지시설 운영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는 장기적으로 비구스님들을 위한 노후정진 공간도 별도로 마련,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현재 시설과 임대주택을 포함 104명으로 한정된 정원을 늘리기 위해 점차적으로 건물을 확충하고 향후 5년 내 5백여명 수용시설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의 (055)934-0805

박원구 기자

대구 앞산 은적사 주지 허운스님이 5월 25일 시지동 고산성당 일요미사에 참석, 종교간 화합에 대해 법문했다.

500여명의 카톨릭 신자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미사에서

"고산성당에 연꽃 활짝 피었다"

은적사 허운 스님, 종교간 화합 법문

허운스님은 "종교간의 화합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낙수물이 떨어져 구멍을 만들어 내듯이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모은 서로간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화합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은적사 허운스님의 성당 방문은 지난 부처님오신날 고산성당 정홍규 주임신부가 앞산 은적사를 방문한데 따른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스님의 법문에 이어 고산성당 정홍규 주임신부는 "성당에 연꽃이 활짝 피어났다"며 "스님의 말씀처럼 모든 종교가 화합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원구 기자

지장 스님 민요부르고 불자들 장단 맞추고

경기민요 이수자 지정 첫 발표무대



5월 27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중요무형문화재 57호 예능보유자인 묵계월 선생과 나란히 앉아 청춘가, 좌창 경기민요 12잡가 출인가, 노랫가락 등을 부른 창녕 영명사 주지 지장스님(사진 왼쪽 첫번째). 소리 경력 20년의 스님이 중요무현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지정된 것을 기념한 첫 발표회였던 이날 공연에는 김종규 창녕 군수, 영산재 지정 보유자 석봉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범패 등 불교문화 맥 잇는다

영산보존회, 대한불교전통예술대 개원



◇부산 영산재 보존회는 5월 26일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 개교식을 가졌다.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는 5월 26일 오전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학장 진하)을 개원했다.

범음, 범패, 작법무, 천수바라를 전수하는 대한불교전통예술대학(이하 전통예술대)은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연구 및 육성을 위해 개원했으며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안정사 해강스님을 비롯, 고문으로 추대된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스님 등 1백 여명이 동참했다.

경과보고, 감사장 전달 등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김해 은하사 대성스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김용하 민족문화출판사 대표가 전통예술대 후원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천미희 기자

소년소녀가장들에 성금

혜원정사, 열린음악회도

5월 28일 제2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열린 음악회가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 대웅전앞 특설무대에서 고산스님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음악회는 성시원, 신계행, 이동원 등 인기 가수 공연, 혜원정사 합창단 음성공양, 학생회 승무, 북춤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진행됐다. 혜원정사는 음악회에서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총 1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고산 장학회는 동국대 등에 재학중인 24명의 학인들에게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2003학년도 후기 학점은행제 대학(학부)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1.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4년제 학위 과정입니다.
2. 명지대 사회교육원에서 105학점, 명지대학교 시간제 이수로 35학점으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교육 인적자원부장관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
3. 진 로 : 학사학위 취득 후 일반대학에 편입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가능.
3. 모집기간 : 수시모집
5. 모집전공 및 인원
◆목조각전공(목조각, 소목, 대목, 옻칠공예) 각 10명
◆직물공예 전공 (염색, 자수, 침선, 매듭공예) 각 10명
◆단청 전공 (불화, 단청, 민화) 각 10명
6.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문화재 보유자 및 조교, 이수자, 전수생(이에 해당자는 조기졸업 가능)

2003학년도 후기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모집안내 (전통공예학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세분화 · 정보화 되어가는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한다.

1. 모집전공 : 목칠, 공예화(단청 민화), 직물공예(침선, 염색, 매듭)	1. 모집전공 : 공예관련 모든전공
2.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	2.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3. 특전 및 제출서류 ① 전공분야 경력자는 입학특별전형 ② 전공관련 기술자 자격시험 응시가능 ③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졸업증명서	3. 특전 및 제출서류 ① 본 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부여 ② 본 과정의 수료동문은 본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취득 ③ 본 과정의 수료자는 동일계열의 정규과정 진학시 우선권 부여 및 취득학점을 일정부분 인정 ④ 입학원서(본원양식), 사진2매(반명함판), 주민등록등본 1, 재직증명서

■ 전형일정 : ◇ 모집기간 : 2003년 5. 10(월) - 6. 20(금) ◇ 등록기간 : 2003년 6. 28(금)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수능시험과 무관)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3매(반 명함판 3cm × 4cm),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접 수 처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명지대학교 전통공예학과 사무실 우)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02) 300-1463~5

New Millennium Vison 사랑과 창조의 새천년 명지
명 지 대 학 교

탄허스님 열반 20주기…선양사업등 다채

유물전시관 개관·추모 세미나

탄허스님(1913~1983) 열반 20주기를 맞아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대전 자광사(주지 청아)는 5월 24일 70평 규모의 탄허 대종사 조사전과 유물전시관을 개관했다.

이번에 문을 연 대전 자광사 탄허대종사 조사전에는 유물전시관과 시민선방이 들어선다.

나침반·108염주·훈장·저서등 1천점 전시

일반인 참선지도 위한 시민선방 열어

유물전시관에는 탄허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나침반, 108염주, 낙관, 주민등록증, 훈장 등 유품과 77권의 저서 등 총 1천여점이 전시된다. 또 시민선방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문의 042) 822-9219.

또 24일 동방문화대학원과 화엄사상연구회는 서울 보명선원에서 '탄허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세미나'를 열었으며,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는 탄허스님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보명선원장 각성 스님은 세미나에서 "큰스님은 화엄사상에 입각한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다"며 "큰스님의 뜻에 따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탄허문도회와 탄허문화재단도 열반 20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9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탄허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 출판기념회, 서예전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7권(원고지 20여만장)의 방대한 한문 원전을 현토·역해하여 동양사상과 대승불교의 이해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탄허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다. 14~15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유학의 전 과정과 노장철학을 공부한 스님은 34(22세)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선사 문하에 출가했다. 53년 월정사 조실, 55년 강원도 종무원장을 역임했다. 66년 동국대 대학선원장, 67년 초대 중앙역경원연수원장, 동국역경원증의위원, 72년 화엄학연구소장, 75년 동국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불교·유교·도교 사상과 참선으로 닦여진 뛰어난 예지로 이 시대 민중의 진로를 제시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선지식이요, 대종사였던 탄허스님은 미리 예언했던 입적날인 83년 6월 5일 '일체무언(一切無言)'이라는 열반송 을 남기고 월정사 방산굴에서 원적에 들었다.



◇탄허스님 열반 20주기 추모법회가 5월24일 대전 자광사 탄허대종사 조사전에서 열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전면해체 보수착수

영화 '보리울의 여름'의 촬영장소로 더 유명해진 김제 귀신사의 대적광전(사진, 보물 826호)이 이달부터 전면 해체보수에 들어갔다.

17세기 대표적 불전 가운데 하나인 귀신사 대적광전은 외부에 노출된 부재와 일부 기둥의 부식이 심하고, 건물 뒷면의 벽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붕괴 위험이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이 국비 15억9천만원을 들여 직접 보수한다.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이다.

귀신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나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단층 맞배집(옆에서 보았을 때 지붕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대적광전은 17세기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99년과 92년, 83년에도 일부 부식된 기둥을 바꾸고 지붕을 보수한 적은 있지만 전면 해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형진 기자

광주 민주화운동때 산화 지광 김동수열사 추모제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던 시민들과 함께 장엄하게 산화해간 대불련 전남지부장 김동수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선대 총학생회는 5월 27일 조선대 김동수열사추모비 앞에서 5.18민중항쟁 제 23주년 지광 김동수열사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삼귀의, 반야심경, 열사약력소개, 인사말, 추모사, 유족 인사말. 추모시, 추모비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기자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 운영

우리는 선우, 위기가정 청소년 임시보호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가 최근 서울 목동에 청소년 그룹홈 '선재동산'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재동산은 부모의 불화 및 장기투병, 이혼, 가정 폭력, 가난 등 가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처. 위기 가정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양육권을 임시 위탁받아 운영된다. 선재동산은 입소하는 청소년들에게 대리가정의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가족 관계의 개선도 지원한다.

선재동산은 또 가정폭력과 부모와의 법률적 불협화음 등에 대비해 의료 및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문의와 자문 변호사 1인을 각각 위촉했으며, 24시간 함께 생활할 상주 위탁모를 채용했다.

시설은 건평 34평 규모의 다세대 건물로, 국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됐다. 문의 02) 2278-8672 김철우 기자

순천시청 공무원불자회 창립2돌 조직정비나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방우원, 이하 불자회)가 창립 2돌을 맞아 재도약에 나선다.

불자회는 10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창립 기념법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정비, 법회와 경전공부의 정례화, 회비 납부체계 마련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불자회는 지난해 6월 회원 35명으로 창립한 이래, 매월 순천 지역사암연합회 산하 사찰을 순회하며 법회를 봉행하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여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임정스님 열반 16주기 봉은사, 추모법회 봉행

봉은사(주지 원혜)와 영암스님 문도회(회장 대운)는 6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영암당 임성대종사 열반 16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추모법회는 삼귀의, 행장소개, 오현스님 법어, 주지스님 인사말, 문도대표 인사, 헌다 헌화, 추모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언제라도 찾는 열린도량 됐으면"

안성 백마사 장남숙 신도회장

"부처님 정법 알리는 일에 써야겠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3만평 시주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일죽 I.C에서 경기도 안성 방향으로 15분가량 가다 보면 야트막한 산을 병풍 삼아 황토법당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대승종 수행도량 백마사(주지 법성)다.

아직 일주문도 세우지 않은 절에 발을 들여놓자 황토법당 왼쪽으로 깎다 만 산의 경사지 속살이 보이고 포크레인 한 대가 방문객을 맞는다. 경사지를 다진 곳엔 법당과 시민선방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눈치 빠른 사람이야 이쯤 되면 알아차리겠지만 백마사는 건립 불사가 한창인 절이다.

이 절 주지 법성 스님은 손수 포크레인을 다루는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예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신도들 말에 의하면 소탈하고 법문도 재미있게 잘 한다고 한다. 대전이나 멀리 부산, 진주, 대구에서 찾는 신도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성 스님이 3년 전 이 곳에 온 것은 신도회장으로 있는 장남숙(69) 거사 때문이다. 사실 백마사가 들어서 있는 곳은 장 회장네 땅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을 그냥 썩힐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법을 알리는 일에 써야 겠다"는 장 회장의 결심과 "정말 수행에 뜻을 불자들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도량 하나 만들고 싶다"는 법성 스님의 서원이, 두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의기투합' 했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다 보니 어려서부터 '부처님' 하면 조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부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조상과 집안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죠."



◇주지 법성 스님이 신도회장 장남숙 거사(사진 오른쪽 첫번째) 등 신도들과 절일을 의논하고 있다.

불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58평 규모의 법당이 들어서고 찾는 신도 수도 20여 명에서 2백5십여 명으로 늘 정도로 제법 사격(寺格)을 갖췄다. 장 회장이 "열성적이면서도 절일 하나하나까지 신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스님 덕분"이라고 하자 법성 스님은 "오면 같이 삽질하고 풀 한 포기라도 뽑고 가는 장 회장 같은 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을 미룬다.

안성=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법성스님 백마사 주지

"환갑에 불교대학 입학한 신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장남숙 거사는 옆에서 봐도 부처님 법에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불자입니다. 환갑 나이에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 2년 과정의 불교대학을 마쳤고, 포교에 큰 뜻을 두고 3만여 평의 땅을 선뜻 시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 하나 내지 않습니다. 불사한지 3년 만에 법당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다 절일을 내 일 같이 여기는 장 거사 같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 한 권이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청아출판사

틱낫한

풋내기 수도승의 기억

"나의 수계식은 이튿날 오전 네 시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의 방에서 깜빡거리는 촛불을 곁에 둔 채
방석에 앉아 계신 스승님을 찾아뵈었다.
스승님 곁에 자리잡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경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승님께서는 낡은 갈색 승복의 해진 곳을 꼼꼼하게 깁고 계셨다.
만 사제(師弟)와 나는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바느질을 하고 계신 스승님의 모습은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 보살을 보는 듯했다…."



내 스승의 옷자락

틱낫한 지음 | 진현종 옮김 | 김담 그림 | 값 8,500원

틱낫한

어느 곳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리고 자유로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승이며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감옥 밖에 있어도 구속된 존재일 수가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틱낫한 지음 | 류시화 옮김 | 값 9,000원

달라이 라마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 값 8,500원

재정 아끼고 일 더하고…
‘모범운영 사찰’로 우뚝

도선사, 혜자스님 취임후 ‘日新又日新’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가운데)과 오도희 관리부장(우측) · 정동수 총무국장.

호국참회 기도 본찰인 도선사가 최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찰로 선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조계종에서 모범 운영 사찰을 선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계종은 왜 도선사를 모범 사찰로 선정했을까.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종정감사 결과, 도선사는 주지 혜자스님(사진)이 취임한 이후 그 전 해보다 재정 수입이 20억여원이 늘어났고 십수억에 달하던 부채도 6억원이나 갚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혜자스님은 “서은하 종무실장을 비롯해 정동수 총무국장, 오도희 관리부장 등 종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찰운영에 힘을 보탰기에 가능했다”며 “종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도들의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종무원들은 “주지 혜자스님의 투명한 재정운용 의지와 삼보정재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주지스님에게 공을 돌렸다.

혜자스님은 주지 부임 이후 줄곧 투명하고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2001년 11월 취임 인사에서도 “ ‘삼보정재 다루기를 비상(극약)과 같이 하라’는 청담 대종사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사찰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다. 혜자스님은 매일 수입과 지출을 손수 챙겨온 것이다. 한푼의 수입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대신 군법당 지원이나 사회복지 후원, 신도교육 등 불교와 종단, 사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과감히 투자했다. 사중일에 고생하는 종무원들의 급여도 40% 인상했다. 모범이 되는 종무원들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유급휴가를 보내주는 등 파격적인 대우로 신망 받는 지도자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담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성대히 치러냈다.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청담 대종사의 사상과 이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도선사는 물론 나아가 조계종 역사에 남을 성과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청담 대종사 탄생 100주년 사업을 원만히 회향함으로써 도선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반석을 닦았다. 또한 회주 혜성스님을 비롯해 부조실 현성스님, 청담기념관장 혜명스님,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 등 청담문도회 스님들의 원융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혜자스님은 남은 임기동안 도선사를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 · 교육도량으로 키운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청담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이어 청담 대종사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를 3년여에 걸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불사는 지장보살 3천기를 봉안해 지장보살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혜자스님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청담 대종사의 열반 직전 시봉 제자였던 혜자스님의 수행 면면에는 청담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다. 혜자스님은 검소한 생활과 매일 108참회를 몸소 실천했던 대종사의 유훈을 받들어 조석


◇도선사를 전국 모범 사찰로 이끈 혜자스님. 그 비결은 투명한 사찰재정 운용에 있다고 말했다.

‘삼보정재’ 비상쓰듯 재정 아끼고 투명운동
군법당 · 교육등 종단 · 사찰발전 투자 과감

“속세 그리워 눈물흘릴때 감싸주던 청담스님 아련”

예불과 108참회, 사시불공 등을 한번도 거르지 않는다. “이제 혜자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는 대종사의 현몽이 아니더라도, 혜자스님은 항상 청담대종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도선사를 처음 찾았을 때의 초발심을 잃지 않으리라는 서원을 이뤄나가고자 매일매일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 힘들고 속세가 그리워 저 도선사 계곡 큰바위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며 삼각산 꼭데기를 바라보던 기억, 그럴 때마다 말없이 다가오시어 어린 소납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은사스님, 배고픔에 허덕일 때면 잠자던 소납의 머리맡에 누룽지를 놓아주시던 사형님들, 여러 가지 번민에 휩싸일 때면 같이 고민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던 도반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도선사와 같이 해달라는 무언의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사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매달 말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과 소임 스님, 50여 종무원이 대중방에 모여 외는 경구다. 한달 동안 일한 보시금을 받는 이 자리에서는 “삼보정재를 아끼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혜자스님의 가르침이 설해진다. 때로는 피곤하고 짜증스럽겠지만 신도들은 정성을 들이려고 온 도량이므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가르침이다.

종무원에 친절 베풀기 생활화 교육
실달학원 중심 불교배우기문화 정착
청담기념관 개관 · 사리탑주변 성역화

또 이 자리는 도선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선사의 한달 살림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도선사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혜자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빠짐없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선사는 어느 덧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사실 혜자스님 주지 취임 이후 도선사는 많이 변했다. 혜자스님은 주지 취임 1년 6개월만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묘를 보이며, 도선사를 모범 사찰로 일궈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도력과 소신있는 종무행정을 실천한 결과다. 혜자스님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청담 대종사의 사상 정립과 사찰 재정의 투명성 제고, 신도교육 체계화, 화합대중의 실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이후 첫 사업으로 진행된 청담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청담대종사를 한국불교의 스승으로 우뚝 세웠고, 청담대종사의 유품과 휘호를 모아 청담기념관을 개관했다. 3천 지장보살을 봉안하는 사리탑 주변 성역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불사와 기도에 임하고 있고, 청담대종사의 유지와 사형 · 사제의 충고, 종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합대중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깔끔한 불사 뒷마무리로 도량도 어느 때보다 말끔해졌다. 이 때문에 혜자스님은 종무원들과 신도들로부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수행자 다운 수행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또 한가지 달라진 문화가 있다. 다름 아닌 신도들이 불교를 배우는 문화가 형성된 것. 혜자스님이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립한 도선불교실달학원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달학원은 신도들의 불교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기도도량으로 굳어진 도선사의 이미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도와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도량으로 가꾸겠다는 혜자스님의 의지가 빚어낸 결과다.

소외된 이웃과 낙후된 포교현장, 종립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혜자스님의 신념 때문이다. 복지시설인 혜명양로원, 혜명보육원, 청담복지관, 자혜방생원은 물론 청담장학문화재단과 청담중 · 정보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 인력 지원을 상향 조정했다.


◇청담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청담기념관.



◇올 1월에 열린 ‘도선불교실달학원’ 졸업식.

〈삼천 지장보살 봉안접수〉

도선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담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리탑 주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삼천지장보살 조성 및 청기와 불사를 봉행**하고자 발원하였습니다. 바라옵건데 뜻있는 불자제현께서는 지장보살 불사와 기와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이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여 구경에는 다함이 없는 무상보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3



계미년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7·7재 봉행

● 입 재 : 음력 5월 24일
● 회 향 : 음력 7월 15일

(매주 화요일 11시 호국참회원에서 7 · 7재 봉행합니다.)

만다라 문화원
만다라 실전 및 명상기도 전수
부처님을 만나는 티벳불교
02)3673-3881





긴 머리 땋아 틀어 은비녀 꽂으시고, 옥색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배곯을까 치마끈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이효정 씨 노래 '우리 어머니' 중에서)

◇이효정 씨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아기 돌보기보다 더 손이 많이 간다. 그동안 집안일 돌보는 아줌마가 50번이나 바뀌어 이제는 직접 돌볼 수 밖에 없지만 힘든 줄 모른다. 오른쪽은 초등학교 5학년때 어머니랑 찍은 사진. 사진= 고영배 기자

"어머니, 나의 노래는 당신의 숨결입니다"

불자 가수 ***이효정****의 '효심불심'*



◇사위고 딸이고 손자고 가리지 않고 툭하면 주먹질, 발길질에 심한 욕설까지 퍼붓는 어머니. 그래도 이효정 씨는 가까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트로트 가수 이효정 씨. 사람들은 그녀를 효녀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효녀는 못 된다"고 일축한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이상한가요? 너무 당연한 거죠"라고 오히려 되묻는다.

 # 어머니 봉양할수 있다는 사실 …감사

5월 21일 서울 아현동에 소재한 이효정씨 집. 오늘도 이씨와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힘겹게 씨름한다. 어머니는 조금만 못마땅해도 마구 소리를 지르며 성을 낸다. 심지어는 주먹까지 휘두른다. 가장 아끼는 막내딸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은 17년 전. 이씨가 결혼을 하던 바로 그 해다. 4남 2녀 중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10여 년간 병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떴다. 혼신의 힘으로 간호하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스무 살에 중풍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어머니 차례인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머니의 발병과 함께 이씨의 신혼기도 끝났다. 밤새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는 어머니와 함께 결혼의 단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때부터 대소변, 식사 수발을 이씨 혼자 도맡아 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어머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울곤 했던 이 씨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했다.

 # 국청사에서 키운 가수의 꿈

이씨의 집안은 경기도 남한산성 밑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다. 부모님은 모두 부지런한 분들이었고 농사가 끝나면 호롱불을 켜놓고 막내딸 이씨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이씨가 즐겨부르는 '노들강변'도 산성 위에 앉아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다. 그러나 오빠가 정신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은 깨졌다. 오빠가 무서워 집에 못 들어간 이씨가 찾아간 곳이 국청사다. 당시 국청사에 머물던 노스님은 어린 이씨를 무릎에 앉히고 민요를 가르치고 '효심이 불심'임을 가르쳤다. 불자들도 노래를 잘 부른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씨는 오빠 병간호로 공부를 못할 바에는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 유명하진 않지만 7집 가수, 팬클럽도 생겨

어머니와 함께 산지 9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병의 차도가 없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씨는 마음의 병마저 생겼다.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 동안 잊었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이 때 이씨를 인정한 작곡가 조운파씨가 기념음반을 내자며 제의했다. "성공은 못해도 좋지만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이씨는 그 때의 심정을 밝혔다. 이렇게 10년째 가수 일을 하다보니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7장의 음반을 낸 프로가수가 됐다.

규모는 작지만 팬클럽도 생겼다. '내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이 씨의 노래를 들은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이 씨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팬클럽 회원들은 2001년 이 씨를 위한 홈페이지(www.trotstar.com)도 만들어 주었다. 이 씨는 'KBS 가요무대'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몇 안 되는 가수 중 한 명이다. 그만큼 이 씨의 '어머니 노래'를 듣고 동감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 좋은 엄마 노릇 해보는 것이 '소원'

이씨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아버지가 제일 고마웠다고 말한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이씨를 불러 앉히고 "사위도 자식이니 장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씨는 집안 일을 제대로 못 돌봐도 싫은 내색 한번 안 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고맙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당한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딸 혜미(14)와 종언(12)이가 자라는 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효녀라지만 자식들에게는 나쁜 엄마인 셈이죠." 이씨의 소원은 좋은 엄마 노릇 한 번 해 보는 것이란다.

최근 수십년간 우리 민족은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이란 멍에를 벗어던졌다. 하지만 우리들은 늘 공허함을 느낀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천륜의 근본인 효가 아닐까?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릴레이 수행일기 〈下〉



이재규

한국전력기술 기술사

안팎으로 닥쳐오는 일체의 경계를 주인공에게 일임하여 집착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발현되면, 이번에는 그 주인공과 네가 하나가 되어라. 그 다음엔 주인공과 계합된 네가 이 세계, 이 우주와 더불어 크게 죽어라. 그렇게 크게 죽고 난 뒤에 열리는 경지, 그것이 그야말로 묘용(妙用)인 것이다.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나에게 이 가르침은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주인공에게 일임하는 공부가 조금씩 익어 가면서, 턱 맡기고 내려놓는 마음공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 동안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회한에 질펀한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였다. 좌선을 하고 있는 시간이나 수행 중에는 더 이상 경계에 혹(惑)하지 않고, 근본을 고요히 참구하면서, 수행의 요체를 이제 체득한 것 같은 착각에 젖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상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되면 우쭐해서 수행의 결과라고 위안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행력의 부족을 탓하며 안타까워해야 했었다.

이때쯤, 깨달음을 향했던 내 열정은 나도 모르게 올곧은 스승을 향한 애틋한 바람으로 변해져 있었다. 예불시간이나 108배를 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내면은 스승을 향한 서원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그러기를 3년여,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했던가! 도서출판 여래에서 펴낸 구도기 〈놓고 비우고 버리기〉 한 권이 내 손에 건네졌다. 대수롭지 않게 받아서,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주인공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충동에 나는 몸부림쳐야 했다. 이렇게 나는 우연처럼, 그리고 필연처럼 구도기의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수행자는 성주괴공(成住壞空)하고 생주이멸(生住異滅)하는 자연의 섭리에 빠져 죽는 일 밖에 없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삼라만상과 통(通)해지는 마음이다."

수행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여, 무한세계인 우주의 질서에 정상적인 상태로 연결되기 위함이지, 신비로움이나 그 무엇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수행을 해서 남은 것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긴 세월을 쉬지 않고 수행해 얻은 보람과 자랑스러움은 하늘만 아는 나의 비밀이다. 내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나의 이 마음공부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더욱 궁핍해 지는 부분은 마음이고, 또 이 마음공부는 계절을 타지 않는 것이며, 알아차려 깨어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으니, 이 일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생을 걸림없이 살다가 자연 섭리에 맞추어 마감할 수 있는 대복(大福)은 아집과 편견, 고정관념의 결정체인 굳은 생각 즉 집착을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현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수행해 얻는 보람, 자랑스러움은 나의 비밀

죽는 순간까지 마음공부도 함께 할 것

간화선 '문답-점검' 시스템 되살아 난다

"집중수행 기간에는 반드시 지도법사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위빠사나 선원들의 수련자 모집 안내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남방 불교에서는 수련회 등 집중수행이 있는 때는 거의 매일 또는 격일로 선원장이나 지도법사가 수행점검 및 지도를 해준다. 정진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어떤 장애에 부딪쳤을때 선지식의 지도점검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간화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조계종에서는 스스로 하는 '자기점검'이외에 선지식에게 받는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원이나 참선 공부모임에서 위빠사나의 수행점검 풍토에 자극받아, 선종 고유의 공부과정을 되찾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조사선의 기본적인 공부과정은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로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인이 최종적으로 크게 깨달아 '인가'받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조사선의 전통에 따라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검 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화계사 선우회, 전등사, 선도회가 대표적.

27년째 주말 참선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선우회는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이 회원들을 상대로 일대일 '공안 인터뷰'로 점검을 해왔다. 최근에는 숭산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선우회 회장 권유리심 보살이 대신 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의 선지식이었던 해안 스님의 가풍을 이어온 전등사 전등선림 역시 매달 15일 새벽, 스님과의 독대를 통해 수행 점검이 이뤄지며. '경책(警責)'과 '격려'라는 스님의 처방이 주어진다. 신도들은 수행 점검이 단 하루도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는 커다란 힘이라고 말한다.

종달 이희익 거사가 1965년 조직한 선도회 역시 '입실(入室)지도'라는 일대일 점검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초보자들은 수식관 등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부터 지도받지만, 구참자들은 무문관(無門關; 남송 무문혜개 스님의 공안집) 48칙(則)을 화두로 들고 체험한 경계를 점검받는다.

다수의 제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통해 수시로 수행을 점검하는 단체들도 늘고 있다.

안국선원 원장 수불 스님은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죽은 문자'(사구)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손가락 등을 통해 '살아 있는 화두'(활구)를 던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문답을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도점검을 해준다. 현정선원 원장 대우 거사와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 명상아카데미 설립자 혜봉 거사는 정기법회를 설법과 문답을 통해 진행한다.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형식화 되거나 사라진 곳 많아

경계·장애 문답통해 해결 단체 늘어

효과적인 수행 점검 체계 마련필요

이러한 지도점검과 함께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사이버 생활수행 도량인 '목탁소리'(moktaksori.com)는 평소 일터에서 정진하다가 3주에 1번씩 모여 '밝은 모임'이라는 수행점검시간을 갖는 한편 매일 사이버도량에 수행일기를 올리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매일 수행상담을 하는 양평 법왕정사(cafe.daum.net/sorisan) 주지 청견스님은 지난해 5월 12일 입제한 '100만명 매일 108배 만일결사'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수행점검표를 나눠주고 있다.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가 입실지도 하는 장면.

선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간화선에서는 스승과의 실제적인 '문답과 점검'이 절대적인 생명줄이 된다. 오늘날 간화선 수행풍토가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에베레스트 산악마라톤 완주 박희선 거사의 생활참선

"30여년 동안의 참선을 통해 익힌 정신집중과 호흡법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5월 18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중턱에서 열린 산악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해 다시금 노익장을 과시한 박희선 수요회 회장(84 · 전 서울대 교수 · 사진). 박 회장은 이날 해발고도 5,400m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지대를 출발, 3,500m 고도의 남체 바자르까지 42.195km 전코스를 완주했다. 68년 일본에서 박사학위 준비를 하던중 일본인 경산 스님을 만나 참선을 배운 후 30년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선을 해온 박 회장은, 95년 76세의 나이로 히말라야 메라피크봉(6065m)을 무산소로 등정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30년간 참선, 의학적 노화 10년째 멈춰

10초이상 내쉬는 장출식 호흡이 요체

'참선한 이후 의학적 노화가 10년째 멈췄다'는 그의 생활참선은 어떤 것일까. 박 회장이 말하는 생활참선은 크게 조신법(調身法, 자세)과 조식법(調息法, 호흡법)으로 나눠진다.

그중 조신법은 평소 앉는 자세를 고치는 수준에서 조금 발전한 방법이 있다. 우선 결가부좌 상태로 앉되, 상체를 약 5도 정도 숙이고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척추 끝(청량골)과 양쪽 무릎 끝에 각각 체중의 삼분의 일씩 무게가 배분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의 중력을 골고루 분산해 척추에 부담을 줄이고 인체의 중심에서 발산하는 기를 단전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참선의 진면목은 오히려 호흡법에 있다. 극도의 산소부족 현상을 보이는 고산지역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 그가 일명 출장식(出長式) 호흡법이라고 부르는 조식법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흔히 호흡기관으로 알려진 폐의 비호흡기능, 즉 호르몬 분비기능과 생체의 성장발육기능, 번식 등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숨을 짧게 들이마시는 대신 길게 내쉬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초 이상, 가능한한 길게 숨을 내뿜는 연습을 반복해야한다.

생활참선이 숙달되면 건강증진 효과를 발휘한다. 단전호흡이 가능해지면서, 무의식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 보다 깊은 수행을 가능하게 된다. 수요회는 지난 86년 박 거사의 저서 〈과학자의 생활참선기〉가 발간된 후 독자들이 만든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박 회장이 직접 제자를 지도한다. (02)581-3375

김재경 기자

▧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참선 수련회



금강선원(원장 혜거스님)은 강원도 홍천 선문장(참선수련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참선수련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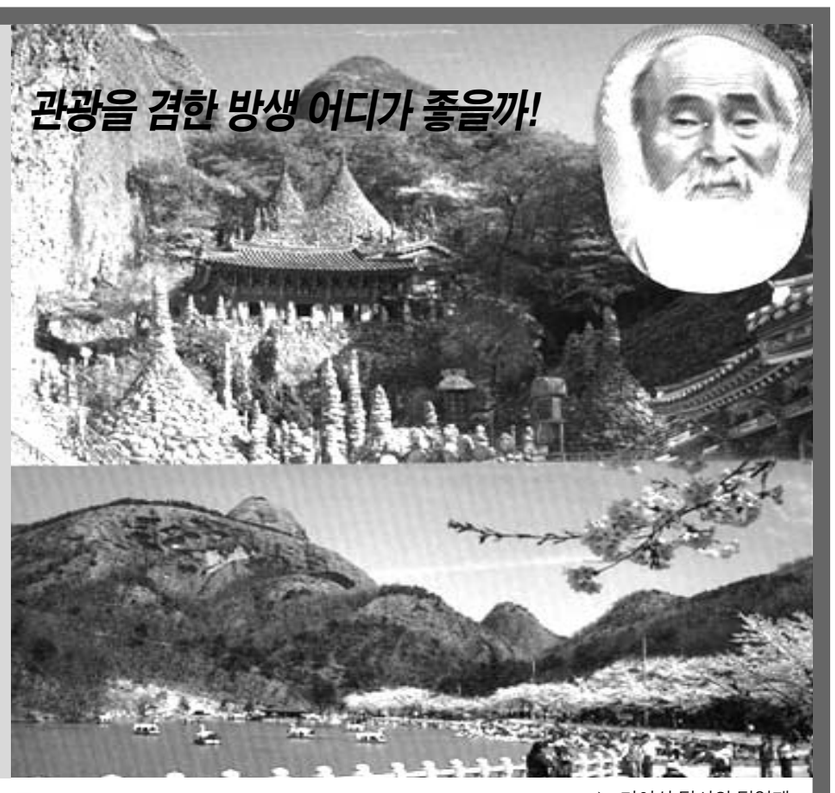
7월 13~16일(3박4일), 7월 28~31일, 8월 4~7일 3차에 걸쳐 대학생 이상 일반인 3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드는 법까지 지도한다. 수련회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특별지도 한다. (02)445-8484

▧ 우 자나카 스님 위빠사나 대중 설법

5월 20일~6월 8일까지 천안 호두마을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우 자나카 스님(미얀마 찬메수행센터 원장)이 대한불교진흥원 초청으로 6월 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마하시 위빠사나'에 대한 대중 설법을 한다.

마하시 선사(1904~1982)의 제자인 우 자나카 스님은 1979년부터 30여개국을 순방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영어 법문집 〈Vipassana Meditation〉이 있으며, 이 책은 김재성 법사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으로 번역 · 출간했다. (02)703-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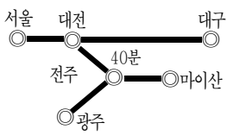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14년을 일심으로 함께 뛰어온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와 천마재활원 축구선수들은 5월 25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다.

바라밀현장

'축구 아저씨' 감사합니다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

"축구아저씨 왔다!"

5월 25일, 부산 천마재활원 복도가 떠들썩해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파티가 열렸다. 5월 15일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라이벌 대구팀을 물리치고 천마재활원 축구부가 따낸 금메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조촐한 파티였다. '축구아저씨'로 통하는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회장 전진호, 38)가 비바람을 뚫고 준비해온 음료수와 과자로 청년회원들과 축구부원들은 축배를 들었다. 장애의 고통과 한계를 극복한 축구 선수들의 기쁨과 그들을 뒷바라지 해온 청년회원들의 보람과 자랑으로 넘쳐난 작은 잔치였다.

이들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14년 전인 1990년. 부산불교보현회 소속으로 천마재활원 봉사를 해왔던 몇몇 회원이 장애우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축구 지도를 자원하면서부터다. 회원들은 몸과 몸으로 부딪히는 축구를 통해 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편견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 자신감을 얻길 발원했다. 그 바람 하나로 매주 일요일 천마재활원을 찾았고, 축구복, 축구화는 물론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했다. 전진호 회장의 월급 중 30만원 이상이 축구부 후원에 쓰여졌고, 회원들의 여가 시간은 천마 축구부를 위해 예약되었다.

"처음엔 무척 어려웠어요. 재정적 어려움과 무관심을 딛고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마음 따로 몸 따로였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전회장의 설명이다. "지금은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할 만큼 실력 있는 축구부가 되었어요. 선수들의 노력과 의지가 이룬 성과지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실제로 천마재활원 축구부는 95년 특수올림픽 준우승, 2001년 아시아 정신지체인 축구대회 3위를 비롯해 입상 경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다.

전회장의 칭찬에 축구부 주장 안흥수(36) 선수는 "장애에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자신감을 일깨워주었고 평생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고마움을 털어놨다. 20살 막내부터 최고참 안 선수까지 정신지체 3급의 선수 28명에게 13년을 한결같이 '축구아저씨'로 찾아온 청년회원들은 이제 봉사자를 넘어 형이자 친구이고 아빠다.

지금은 감독을 두고 훈련을 할 정도가 된 천마재활원 축구부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축구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3년 전부터는 봄, 가을에 축구부 후원을 위한 축구대회를 연다. 조기회팀, 직장팀을 초청 친선경기도 갖는다. 또한 천마재활원 축구부의 성과로 장애인 시설의 요청이 많아져 지난해부터는 성우원에도 축구팀을 만들고 성창만(37) 회원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 천마 축구부는 성우원 축구부 훈련 조교로 활동하면서 선배노릇도 톡톡히 한다.

이 밖에도 청년회의 연간 계획서엔 천마재활원과 성우원 생일자 명단과 추석 명절 용돈 주기, 원생들의 결혼기념일, 산타할아버지 방문, 소년의 집, 소아재활원 방문 등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내가 받고 싶었던 관심과 사랑을 소외된 곳에 전해주고 싶을 뿐"이라는 청년회원들. 나와 타인을 둘로 보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고,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는 단순한 명제를 실천하는 노총각들이 부산불교보현회 청년회엔 많다. 부처님 가르침 함께 실천할, 참한 신부감 어디 없을까?

부산=천미희 기자

매주 천마재활원, 성우원 축구부 물품 후원

장애 딛고 전국체전 금메달 따낸 밑거름



◇틈틈이 불구를 닦는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신도들.

"불구(佛具) 닦으며 마음도 닦아요"

이물질 많아 닦다보면 번뇌 사라져

지루한 작업 오히려 발심 계기

향로, 촛대, 찻잔, 요령…. 불교의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불구(佛具)들. 자칫 '허드렛일'로 여겨질 수 있는 불구 닦기를 자신의 수행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산 노적사의 '불구를 닦는 모임'은 9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타고 난 향의 재를 뒤짚어 쓰고 있는 향로나 촛농이 켜켜이 앉아 있는 촛대, 차나 다른 음식물이 묻은 찻잔 등의 불구를 초하루 법회 전날 깨끗이 닦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노적사에서 10여년 째 불구닦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곽영순 보살은 "놋그릇은 조금만 소홀히 방치해도 푸른 녹이 슬곤 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탓에 한번 시작하면 손을 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광순 보살은 "먼지나 이물질을 많이 묻어 있는 불구를 닦다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번뇌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구를 닦는 일이 이들 말처럼 그리 만만치만은 않다. 놋쇠로 만든 불구에 붙은 먼지와 촛농 등을 제거하고 광내는 약을 골고루 바른 후 신문지나 행주를 이용해 구석구석 광을 내는 일은 한번 시작하면 2~3시간은 족히 걸린다. 그러나 이런 지루함이 오히려 공덕을 닦고 발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구 관음사의 불구닦기팀 회장인 김자비심 보살은 "불구를 닦는 일이 곧 내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한다. 정기적으로 불구닦기를 하고 있는 유가사 관음회의 나경자 보살은 "부처님전에 올리는 불구들을 닦다보면 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신심이 절로 솟는다"고 말한다.

이 밖에 1999년 창립된 길상사 보현회는 요일별로 봉사팀을 조직해 불구닦기를 하고 있으며 도봉산 만월암 불구닦기모임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인덕원 삼천사도 자체적인 봉사모임을 결성해 각종 재일에 불구를 닦는다.

여수령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애니 파첸 돌마 (上)

티베트 독립운동에 헌신

"모택동의 통치시기에 수 천개의 티베트 사원이 파괴되었으며, 수 천명의 승려가 살해되었습니다. 수 만명의 티베트인들이 굶거나, 구타당하거나, 죽었습니다. 거대한 악업을 그가 모아서 지은 것이나 다름 없었죠. 하지만 나는 모택동의 죄가 소멸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의 적이 스승'이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애니 파첸의 '슬픈 산(Sorrow Mountain)' 중에서)

티베트를 침략한 중국에 의해 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낸 애니 파첸 돌마(Ani Pachen Dolma: 1933~2002) 스님. 티베트 독립운동을 벌이다 21년간 혹독한 수감생활을 한 스님은 2002년 2월 2일, 세수 69세로 그녀의 사원이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심장마비로 입적했다.

강력한 세력을 가진 티베트 부족장의 외동 딸이었던 애니 파첸은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했을 때 사미니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1958년 부친이 사망하자 수행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수개월의 게릴라전을 펼치던 그녀는 중국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쫓기다 결국 체포당하고 만다.

애니 파첸 스님은 그후 20여년의 세

독방 생활에 10만배 정진

고통 대신 받는 수행 계속

석방후 평화시위대 구성 도와

월을 티베트에 건설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수감기간 동안 1년이상 족쇄를 차고 생활했고, 9개월간 지하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 물론 가혹한 고문이 반복됐다. 손을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단 채 어깨가 빠질 때까지 구타하는 등 혹독한 심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수행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다. 이는 티베트불교 수행에 따라 정신을 육체에서 분리해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9개월간의 지하 독방 생활 때는 고통 속에서 10만 배까지 했다. 게다가 수감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는 '통글렌(tonglen)'이라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저들 대신 제가 고통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독방에 갇혀있을 때, 기도하지 않거나 기진맥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침울하지 않을 때는 간간히 화가 났습니다.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 나는 화가 마음에 뚜렷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나는 걀사이 린포체의 말을 회상했습니다. '친구와 적 사이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들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당신의 적이 바로 그대의 스승입니다'라는."('슬픈 산' 중에서)

애니 파첸 스님은 감옥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오른쪽 편에, 어머니가 왼쪽 편에, 그리고 '위대한 적' 모택동이 자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했다. 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스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일깨웠다. 모택동은, 역설적이게도 스님에게 이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였다.



◇애니 파첸 스님

매순간이 생지옥과도 같은 21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 1981년,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이 완화되자 많은 티베트 독립투사들이 석방됐다. 그중에는 애니 파첸 스님도 있었다. 그녀가 라사에 돌아왔을 때 집은 모두 파괴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스님은 슬퍼할 틈도 없이 중국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최초의 평화적 시위대를 구성하는 일을 도왔다.

1988년 스님은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망명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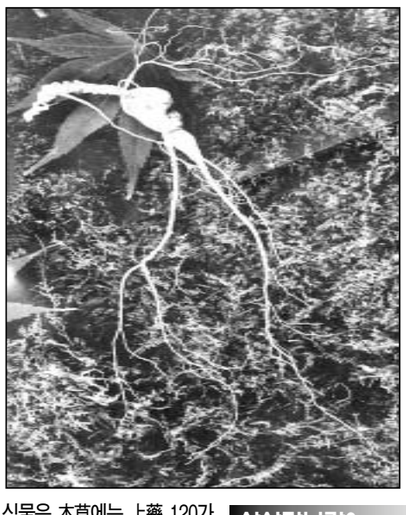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스승님,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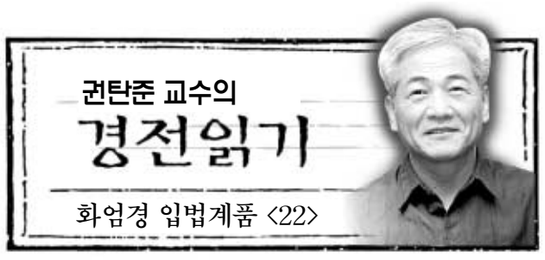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선재동자의 선지식 탐방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이 "선지식들을 친근하고 공양함은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일에 고달파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를 필두로 하여 50여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선재동자가 이들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묻는 내용이 한결같이 같다고 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아직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행을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물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입법계품의 내용은 일단 보리심을 발한 사람을 위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선재동자는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가?' 하는 오직 한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50여 선지식의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선지식은 선재동자가 발보리심 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우어 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발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선지식이 선재동자에게 엎드려 예경하면서 그의 대중들에게 선재동자를 본받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선지식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까지 하면서 보살을 교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입법계품의 내용이 진실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지향하려는 사람을 위한 얘기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가?' 질문

두루 자비 베풀 수 있는 보현의 덕 터득

50여 선지식들은 대부분 현실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문도 있고 바라문도 있다. 또한 고행하는 수행자 · 의사 · 장사꾼 · 뱃사공 · 기술자 · 거리의 여인 등 현실세계의 온갖 신분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도시와 시골, 온갖 마을에 있는 중생들의 처소에서 갖가지 형상과 위의, 여러 가지 음성과 언론으로 깨달음의 삶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들이 터득한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간다.

이들 선지식들은 이른바 '생사(生死)로부터 해탈한다' 든가 '생사를 초월한다' 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 하는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의 삶이란 현실의 중생세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여러 선지식들을 탐방하면서 일체의 세계에서 두루 널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보현의 덕(德)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지식들의 가르침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한 가지씩의 법문을 설한 뒤에, "나는 다만 이 한 가지의 법문만을 알 뿐이며, 보살들의 여러 가지 훌륭한 덕행이나 경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식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를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으라고 권한다. 이들 선지식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경계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겸손함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가르쳐 준다.

이러한 선지식들에 대해 선재동자는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따르려 한다. 선지식을 지극하게 공경하는 선재동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입법계품의 경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선재동자는 해탈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앙모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일심으로 생각하기를 '선지식을 의지하며 섬기고 공경하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지혜를 보았으니, 선지식에게 거스르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선지식에 아첨하거나 속이는 마음이 없으며 마음으로 선지식을 항상 순종한다. 선지식에게 어머니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나니 모든 무익한 법을 버리기 때문이요, 선지식에게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나니 모든 선한 법을 내게 하는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선재동자는 비목구사선인 앞에 나아가서 오체투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이제 진실로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니, 저로 하여금 진실한 도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여래의 지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경문의 예를 통해 보더라도 선재동자가 선지식들에게 얼마나 존경심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식을 존경하는 만큼 그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르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입법계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진실로 보리심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과 '선지식에 대해 선재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⑰

화두의 두가지 뜻

보조의 삼현문(三玄門)에 대한 해석은 교학과는 다른 선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체중현(體中玄)은 교학에서 말하는 성품의 바탕을 구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개념적인 견해가 존재하기에 선문답의 구(句)로서 부정하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드러낸다. 이것이 구중현(句中玄)이다. 그러나 구중현도 역시 떨쳐낸다는 지견이 남아 있는 관계로 다시 현중현(玄中玄)의 방과 할로서 그것을 털어내 깊은 침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삼현문의 각 단계는 부정과 드러냄이란 과정을 포함한다. 체중현에서는 교학의 논리적인 개념을 떨쳐내고, 본래의 바탕을 드러낸다. 구중현에서는 화두에 의해서 본래의 바탕이라는 교학의 흔적을 타파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에 계합하게 한다. 현중현에서는 떨쳐낸다는 화두의 의미까지 벗어던지고 침묵 자체를 체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삼현문에는 부정과 드러냄의 변증적 현상을 갖는다.

그 중에 화두가 있다. 부정은 교학의 개념적인 흔적을 벗겨내면, 깊은 침묵의 이치가 절로 드러낸다. 전자를 잘못된 이해를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파병(破病)이라고 하고, 후자를 진리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제시(提撕)라고 한다. 병을 깨뜨리면, 건강은 곧장 회복된다. 본래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에서 자유로운 순간에 모든 법계가 그대로 여래의 출현임을 체득하게 된다. 이 순간에 보조는 경전을 머리에 이고 법당을 돌면서, 눈물을 흘렸다.

활구는 살아있는 삶, 개념적 이해 말라

덕산의 제자인 보안도 선사는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이란 삼구 밖에 별도로 일구를 두었는데, 오는 사람에게 "무엇이 삼구(三句) 밖에 일구(一句)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소리를 질러보라. 귀가 멀고, 하늘이 부서지듯이, 그러면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마른다. 그 때, 보안도 선사는 말하였다. "내게 묻는다면, 남악과 천태라 하리라" 했다.

삼구 안에 있으면, 병을 깨뜨린다. 삼구 밖에 있으면, 온전히 드러낸다. 화두를 참구하는 그대는 삼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장로 선사는 어느 날 말하였다. 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셋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문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반도 잊고, 셋도 깨져버리니, 이제야 물맛이 차가운지 알겠다. 또한 운문선사는 어쩔 때는 삼구로 설법하고, 어떨 때는 삼구 밖에서 핵심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면, 화두는 삼구 안의 병을 깨뜨리기도 하고, 삼구를 벗어난 뜻을 크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는 말한다. 화두를 철저하게 참구하는 이들은 삼구 안이니, 밖이니, 병을 깨뜨린다. 진리를 드러낸다는 생각도 없다. 오히려 병을 깨뜨린다는 생각이 숲에서 길을 잃게 하고, 진리를 온통 드러낸다는 의지가 바로 의식의 강물에 떨어진다. 활구는 살아 있는 삶이다. 그곳에 다시 개념적인 이해를 내지 말라.

그래서 화두는 맛이 없는 다만 언구일 뿐이다. 만질 수도 없고, 불에 태울 수도 없다.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일 뿐,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제하지 않고, 그곳에 어둠의 심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낱같은 화두에 자신을 맡기면서, 대혜종고 선사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때 홀연히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 곧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리라고, 그곳에서 산새가 날아올라감을 보리라고.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생명의 기원과 진화

지난호에 불교의 '이제(二諦)의 원리' 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제의 원리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어, 물질의 앞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속제(俗諦) 혹은 유위법(有爲法)이라고 부르고, 물질의 뒷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 불교에서는 제일의제(第一義諦) 혹은 무위법(無爲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무위법이 마치 '초의식' 과 같은 성질이 있어 스스로 창조하고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불교의 이제(二諦)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현대의학에서는 생물의 기원과 사람의 진화에 관하여는 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하여 왔다. 다윈은 <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구가 우주로부터 탄생하고 지구 위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과 같은 화학물질이 수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우연적이고도 극적인 섬광에 의하여 이들 화학물질로부터 단세포가 기원하였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복잡한 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의 기원은 '우연의 일회적인 사건' 에 의해서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창조된 생명체는 "자연의 선택과 우연한 돌연변이" 에 의하여 진화를 거듭하였다고 주장한다.

무위법, '초의식' 성질 있어 조직능력 존재

생물 목적의식 가지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동물이 추운 기후에 이겨내기 위하여 두터운 모피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다윈의 해석에 의하면 동물은 자연의 압박에 이겨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모피를 생산하는 DNA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순전히 '우연' 에 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윈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은 '우연' 에 의해서만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돌연변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다윈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설명은 옳게 말한 부분도 있고 틀리게 말한 부분도 있다. 옳게 말한 부분은 사람은 단세포에서 진화하였다는 부분이다. 즉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윈의 틀린 부분은 '우연한 돌연변이' 에 관한 주장이다.

불교에서는 '이제의 원리' 에 의하여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뒷면에는 '초의식' 이 있어 자기조직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무기질도 자기조직하는 능력에 의해서 합목적으로 세포를 만들 수 있으며, 일단 세포가 되면 세포 자체도 '초의식' 이 있고, 세포가 수없이 모인 식물이나 동물도 '초의식' 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초의식' 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의식을 갖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의 논리이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이 시대 최고의 명리학 이론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출간'
이 책 한 권이면 누구나 다 팔자 명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고급양장 / A-4용지 / 620 페이지

본서는 팔자 명리학을 <팔자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 놓으신 <대만> 명리학계의 대가이셨던 <하 건 충>선생이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해 내셨던 고급명리 이론들을 15년간 명리학 연구를 해온 저자(오산 정대균)가 우리말로 쉽게 재구성 편집한 것이라,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서의 주요 장점 :

- 팔자학의 제반 근본원리 규명(오행,십천간,십이지지 창조원리 등).
-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희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강약용신, 음양용신 및 구조용신).
- 최고급 사주분석이론인 심리분석론, 궁위론, 변성 및 변궁론, 일간 진입론 등 공개. 그 중 <일간 진입론>은 명리학 사상 최고급 수준의 명리이론임.
- 각종인연 (육친, 재물, 지위, 결혼, 등)분석에 관한 고급 추명 비결 공개.
- 십이지지 상호간에는 <정.반.합>의 법칙 및 <사상(四象)운동>에 의해 <12종의 상호 작용원리>가 존재함을 공개.
- 대운 및 유년운 해석비결 공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하기 홈페이지 주소로 방문하셔서 본서의 자세한 내용소개 및 구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시중 서점에는 판매를 하지 않음.

www. 8-fortunecode.com

사주공부를 해본 여성으로서, 본 연구소에서 함께 일할 여성직원 한 분을 찾습니다 (30-40세 사이)."

www. 8-fortunecode.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779-15호
전화: (02) 831-0055 팩스: (02) 831-0058 H·P:011-208-0051

반야심경반지



반야심경 270자가 각인된 반지를 펼친 모습

국내 최초로 제작된 반야심경반지
18K Gold 폭 8mm 5.5g (수공이므로 ±5% 오차)
반지 내부에는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정밀하게 각인(양각)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농 협 131-01-368761 예금주: (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홈페이지 http://www.xpialand.com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2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한다"

〈출전 : 잡아함경 제12: 335경 2-92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삼보일배

갯벌 중생과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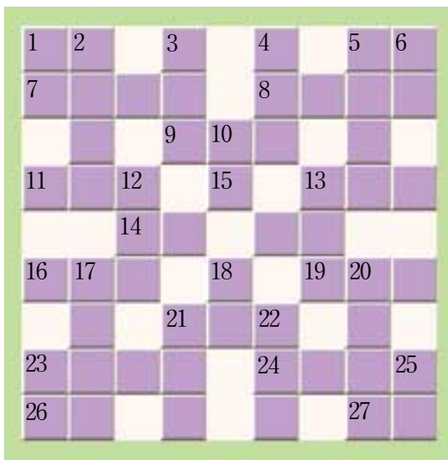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며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이 시작한 삼보일배 정진이 회향됐다. 비행기를 탔다면 1시간도 안 걸렸을 거리를 60일이 넘도록 정진한 두 분의 노력에 선재는 우선 머리를 숙인다. 그저 존경의 표시로만 알고 있던 삼배가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추락한 스님들의 위상을 높여 신도들이 삼배를 하도록 한 것은 1947년 봉암사결사가 처음이었다. 불과 60년도 안 된 일이다. 그런 삼배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보다 더욱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선재가 법당에서 올리는 삼배를 처음 배웠을 때 삼배에는 경배의 의미와 함께 참회의 의미를 담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를 상대의 가장 낮은 곳인 발보다도 더 낮게 함으로써 경배하면서, 그 경배 속에 나의 잘못을 참회한다는 것이다. 예전 주석가들은 '참회(懺悔)'를 '참'과 '회'로 나누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회'라고 설명하였다. 참회를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반성을 아비달마에서는 '참괴(慚愧)'라고 설명한다. '참'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며 느끼는 부끄러움, '괴'는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한다.

두 달이 넘게 절을 한 수경 스님이 그토록 부끄럽게 참회하신 일은 무엇일까? 원래부터 그렇게 살고 있던 갯벌의 중생들에 대한 참회이고, 새만금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참회이다. 그러나 티베트 순례자의 모습 그대로인 스님의 모습에서 정작 참회하고 참괴하는 것은 삼보일배니 새만금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선재 자신이었다.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423호「교리퍼즐」정답〉

신	원		대		대		파	종
사	형	제	도		장	군	죽	비
	질		사	령	부		지	
수	막	새		민		박	세	리
		우	보		삼	진		
만	월	등		평		역	발	산
	년		기	상	대		열	
사	생	자	부		참	선	요	지
연	초		금		회		법	등

가로

1.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5. 하늘 위 7. 천지간에 있는 모든 물체,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8. 얼굴에 소가죽을 발랐다는 뜻으로 매우 뻔뻔스런 사람을 지칭 9. 심령현상을 일으키는 독특한 방법 11. 보합을 유지하는 시세 13. 정초에 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나눠주는 조리 14. 정신의 세계 15. 좋은 말 16. 충남 공주에 있는 산으로 갑사와 동학사 등의 사찰이 있다 19. 전생의 일을 담은 이야기 21. 정갈하고 맛이 좋은 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23.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24. 여러 진료과목을 설치한 병원 26. 비처럼 내리는 얼음덩어리 27. 일의 이치.

세로

1. 암소의 젖 2. 한 건물에 주거와 상업공간이 복합적으로 수용된 경우 3. 평상시의 마음 4.최면상태로 이끄는 술법 5. 하늘과 신령의 도움 6. 코끼리 가죽 10. 신령스럽고 슬기로운 지혜 12. 영산회상곡의 세 번째 악곡 이름 13. 마귀가 숨어 있는 전당이란 뜻으로 번지르르한 면목아래 끊임없이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뜻함 17.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두 강자가 싸움을 벌일 때를 이름 18.불을 담는 그릇 20.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21. 감사의 뜻을 담은 문서 22. 경기도 양수리 운길산에 있는 나한도량 23. 가랑비 25.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 바탕이 되는 근거.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30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30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건강을 잡아라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氣



부드러운지압용 장수호두약돌(小)



강한 지압용 장수호두약돌(大)

황토생명공학 센타에서 황토와 , 음이온, 원적외선, 氣(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놀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氣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

천년 베일 벗은 中 법문사 비밀

'부처의 진신사리 1, 2'

웨난 · 상청융 지음 / 심규호 · 유소영 옮김

일빛 / 각 1만2천8백원



◇봉진신보살상



◇불사리가 들어있는 '유금쌍봉문은관'

탑 재건중 진신사리 · 唐 황실 보물 발견
불교유입 과정 등 픽션 · 다큐멘터리로

중국 산시성 푸펑현에는 법문사라는 이름의 유서 깊은 절이 있다. 2세기 무렵 한 · 위나라 시대에 첫 삽을 뜬 뒤 당나라 초기에 완공돼 왕실 사원으로 이름 높았던 이 절에는 명나라 때 쌓았다는 13층탑이 있다. 사리가 담긴 '진신보탑(眞身寶塔)'이다. 지난 1986년 그 탑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만 것은 그 절이 천여년 세월 동안 간직해온 놀라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이듬해인 1987년 이 탑을 재건하려고 기반 정리작업을 하던 발굴조사단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허물어진 탑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거대한 지하 궁전이었다. 그곳에서 측천무후의 자수치마, 비색 도자기를 비롯해 1천여점에 이르는 당나라 황실의 보물들이 쏟아졌다. 그뿐이 아니다. 갓 출토된 유물들을 조사하던 학자가 발견한 보석함에는 사료로만 전해오던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가 담겨 있었다. 1113년 동안 간직해온 법문사의 비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규모는 작지만 유물 가치가 진시황의 병마용 못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발굴로 "세계문화의 금강좌(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수도한 자리)"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발굴에 참가한 학자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세계 언론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위나라 시대 인도에서 전해져 9세기 당나라 때 봉안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부처의 진신사리>는 천여년 동안 진신사리를 간직해온 법문사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과 유물발굴 과정을 씨실 삼아 660여쪽 분량에 풀어낸 소설이다. 그 날실은 법문사를 에워싸고 명멸했던 당나라 시대 인물군상들이다. 사리가 발굴되는 과정은 물론 지하 궁전에서 발견된 여러 보물들중 법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섞어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발굴과 유물 관련 자료를 상당한 고증을 거쳐 정확히 인용 · 분석했다. 법문사 지하궁전 발굴을 통해 당나라 역사와 중국 불교의 유입 · 발전에 대한 인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 책은 당시의 불교사는 물론 정치 · 문화 · 역사까지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은이 웨난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함께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과정과 불법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인도와 중국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어려운 발굴 용어와 불교 · 역사 용어는 가장 최근 대만에서 출간된 판본과 학술자료를 참고로 해 주석을 달아 놓아 쉽게 읽혀진다. 또 지하궁 단면도와 중국 고대 19좌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보탑 분포도, 법문사 연혁을 비롯해 70컷의 컬러 화보 사진과 그림, 도표 등은 다큐멘터리 한편을 감상하는 것처럼 입체감을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스님들의 사관학교' 시절 에피소드



'도반 1, 2'

글 · 그림 / 원성 스님

리즈 앤 북 / 각 9천원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이 자신의 해인사 강원(講院) 시절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첫 소설 <도반>을 펴냈다. 이 책은 군대보다 규율이 엄격하다고 해서 '스님들의 사관학교'로 불리는 4년의 강원 수행과정 중 첫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총 30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것이다.

아직도 행자 티를 벗지 못한 초보 스님들이 강원의 혹독한 규율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묘사한 이 소설을 읽다보면 절집이란 곳도 결국 속세사람들이 사는 곳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책에는 지원 스님을 비롯해 강원에서 만난 천재 동자승 혜솔 스님, 괴물 광진 스님, 서울 깍쟁이 무량 스님 등 15명의 도반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겨울이면 눈싸움도 하고 봄에는 꽃구경 삼아 포행도 떠나는 등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수행의 깊이도 더해간다는게 줄거리다.

이 소설 탈고 직후인 지난 3월초 4년 예정으로 영국 유학을 떠난 원성스님은 책 서문에서 "주인공 지원스님이 강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설 '도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먹과 화선지 대신 수채화로 삽화 100여점을 그렸다. 이 소설은 '도림픽처스'와 영화판권 계약을 맺었다. 영화는 내년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 공예미술의 정수' 소개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신대현 지음

한길아트 / 1만5천원

모든 탑에 사리를 모실 수는 없었으므로 보석류로 사리를 대치하기도 했지만 진신사리처럼 경배했으므로 사리장엄을 만든 정성은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리장엄은 '불교 공예미술의 정수'로 불린다.

이 책은 사리장엄에 관한 설명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책은 첫 부분에서는 사리신앙(사리를 받드는 신앙)과 사리장엄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한국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각각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감은사에는 682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삼층석탑 2기가 있다. 서탑에서는 1959년, 동탑에서는 1996년에 해체 복원을 하면서 사리장엄이 발견됐다. 서탑에서는 사리 1과, 동탑에서는 사리 54과가 나왔다. 두 개의 사리장엄은 모두 사각형으로 된 금동 사리 외함(外函)과 내함(內函), 유리 사리병으로 구성됐다. 외함에 새겨진 사천왕상의 부조 및 내함의 난간과 연꽃 조각은 신라 공예기술의 우수성을 엿보게 한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위빠사나 수행법 · 법문 소개

'위빠사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엮음

샘이 깊은 물 / 1만2천원

빠알리어의 '위(vi)'와 '빠사나(Passana)'의 합성어로 '자신의 참다운 성품 수행을 통해 직접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0년간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문화권에 건너가 근본불교 수행에 전념한 거해 스님의 책 <위빠사나 수행의 길>에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위빠사나 수행법과 미얀마 마하시 수도원장 마하반딧 우빤디따 스님의 법문들이 소개돼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위빠사나는 움직이건, 앉아 있건, 생각하건, 말하건, 침묵을 지키건 상관없이 늘 정념(正念)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제목은 <깨달음의 길>이었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목을 바꿨다.



봉사 · 불교귀의 통해 속죄

'수미산 가는길'

김용철 지음

뿌리출판사 / 8천원

소설 <수미산 가는길>은 여주인공 유하가 어려서 실수로 사촌을 죽인 죄의식과 중학교 교사가 된 후 저지른 불륜의 죄책감 등으로 번뇌하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참회와 구원의 길을 떠나 장애아동들을 돕는 봉사와 불교적 귀의를 통해 속죄한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두 개의 얼굴 즉 야누스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현대인들이 돈과 명성, 지위와 애욕 때문에 위선과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실상을 이 소설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돌부처 만남서 제모습 발견

'돌부처님의 나들이'

지호진 글 / 서석원 그림

행복한세상 / 7천원

산속에, 절터에, 오래된 마을 한 곳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은 돌부처가 나들이를 한다. 버스를 타기도 하고, 뱃사공이 되기도 하고,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만나기도, 원두막에서 한가로운 여름날을 보내기도 한다. 또 다리가 아프면 당나귀를 타고 여정을 계속 잇는다.

<돌부처님의 나들이>에서 우리는 돌부처와 여정을 함께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외로움, 즐거움,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 돌부처의 여정 마디마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와 시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 공 사
2	유식30송	서광스님	불 광
3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4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나무
5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자엮음	시 월
6	니가 누고?	경봉스님	명 정
7	힘	틱 낫 한	명 진
8	기도	일타스님	효 림
9	법구경	석 지 현	민 족 사
10	초의	한 승 원	김 영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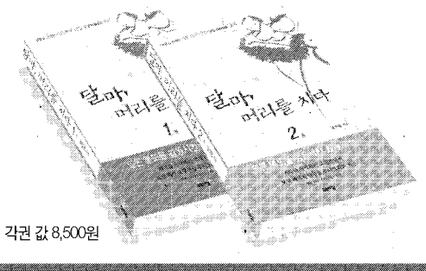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오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눈 선문답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법회 선사가 있었다. 법회는 저 유명한 마조 도일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이리 짐자코 오너라." 법회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마조가 한 주먹 쥐어박았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귀가 여섯이 있어서 은근한 모의를 할 수 없다.
내일 다시 오너라."

—「머리에서 벗어나라」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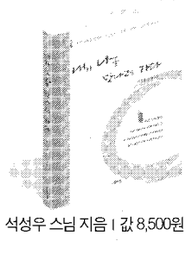


素空慈 지음 | 각권 값 8,500원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마음 명상 태교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 지음 | 값 8,500원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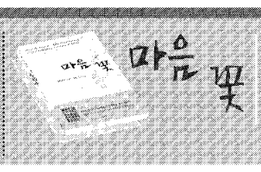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체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법현 역 | 명정 | 값 8,500원



마음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 〈편집지 리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큰선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스님 外 | 값 9,500원




◇보조 스님


◇탄허 스님


◇각성 스님


◇이기영 박사

보조국사가 밝힌 '참마음'은?

'진심직설 다시읽기'

손창대 엮음
교림 / 1만9원

바른 마음 · 깨달음 · 수행 · 체득의 요체 제시
한문 · 한글 번역 · 주석 · 강설…공부하기 쉬워

불일보조(佛日普照: 1158~1210) 국사의 선사상을 간결하게 서술한 <진심직설(眞心直說)>.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지은 많은 글 가운데 후세 학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책이다. 이 책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주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 '참마음(眞心)'임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참마음을 밝게 드러내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진심직설>은 일반 불자들에게는 널리 읽히지 못했다.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진데다 선(禪)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화엄학회장 손창대 박사가 엮은 <진심직설 다시 읽기>(교문)는 참마음에 대해 보조스님이 깨달은 바를 자상하면서도 군말없이 전하는 해설서가 될 것이다. 원문 <진심직설>에 탄허 스님이 토를 달고(懸吐) 이기영 박사가 강의했으며, 각성 스님이 감수하고 발문(跋文)을 썼으며 손창대 박사가 현대 국어로 읽기 쉽게 편집했다.

엮은이 손창대 박사는 "이번에 우리 마음의 요체를 간명하게 밝힌 <진심직설>만을 따로 뽑아 간행한 이유는 이 책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간결한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부처임을 확인한 후 닦음의 길을 가야한다'는 보조 국사의 돈오점수 사상체계를 따르고 있는 <진심직설>은 참마음의 본체와 현상, 작용을 근본으로 한 바른 믿음(信), 바른 깨달음(解), 바른 수행(行), 바른 체득(證)의 요체를 간단명료하게 밝힌 명저다. 참마음의 바른 믿음(眞心正信), 진심의 다른 이름(眞心異名), 진심의 묘용(眞心妙用) 등 15항에 걸쳐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해설한 책이다.

특히 참마음이 고스란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열가지 공부방법을 제시한 '진심식망(眞心息妄)'장은 오늘날 생활속의 마음공부법으로도 적절하다. 그 열가지 잘못을 없애는 공부 가운데는 △일체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을 쉬게 하는 공부(休歇) △객관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올바로 유지하는 공부(泯境存心) △마음과 객관세계가 일체이자 같은 뿌리임을 알고 행동하는 공부(內外全體)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하고 만들고 나누어 가지는 일들이 다 참마음의 작용임을 아는 공부(內外全用) △나와 바깥세계를 가리지 않고 대해탈 속에서 위화감 없이 한덩어리가 되어 사는 공부(透出體用) 등 수행법이 들어있다.

김용정 동방문화대학원장은 "이 책은 보조국사의 명저에 탄허스님의 완전무결한 현토, 이기영 박사의 원효사상 연구와 손창대 박사의 화엄 및 보조사상 연구가 어우러진 결과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문화교류차원 한일관계 조명

'일본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홍윤식 엮음
솔 / 1만5천원



<일본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쓴 8편의 논문을 통해서 불교, 유학, 신화, 건축, 음악, 연극, 미술 등 양국의 문화교류를 논증하고 있다.

이 책에서 동국대 홍윤식 명예교수는 '고대 일본 불교에 미친 삼국 불교의 역할'이란 논문을 통해 "6~8세기에 걸쳐 불교를 국교로 만든 일본 불교는 전적으로 백제 등 삼국 불교의 영향과 지원 하에 발전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테즈카야마대 가와다 사다무 교수는 '일본 전래 불교 공예품을 통해 바라본 7, 세기 일본과 신라의 교류'란 논문에서 신라의 불교 공예품이 일본으로 대량 수입되어 일부는 귀족이나 승려의 식기로 제공 되고, 도다이사(東大寺) 등에서 음식 공양도구로서 불전에 올려졌다고 주장, 일본인 스스로 그들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삶과 수행의 귀결점은?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초능력'

변성식지음
현암사 / 1만2천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세계 초능력>은 기(氣)의 세계, 영혼, 꿈, 풍수지리, UFO 등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되, 이러한 현상들을 검증하려고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다. 영남일보 기자인 변성석씨가 직접 취재한 기사와 사진들로 엮은 이 책은 생생한 현장감마저 준다.

하지만 이 책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능력과 기(氣)', '초능력의 끝, 깨달음'이란 장에서는 명상, 참선 등 정신적 수행을 강조하며 성철, 서암, 서옹 스님 등 큰스님들의 법문과 인터뷰 기사를 다루기도 했다.

저자는 초능력자도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한 능력자가 아님을 지적하고, 오히려 큰스님들의 평상심이 진정한 초능력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책은 흥미와 정신적 수양이라는 두가지 소재를 통해 '인간의 삶과 수행의 귀결점이 어디인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 서평

요가철학



'요가철학'

이태영 지음
여래 / 8천원

물질세계에 가린 정신회복 과제

요가심리학 불교영향 받아 형성
사상체계 전반 일목요연하게 정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여러 부류의 요가행법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는 하타요가(hatha-yoga)와 라자요가(raja-yoga)를 꼽을 수 있다. 하타요가는 육체적인 조절법을 위주로 하며 라자요가는 심리적 명상수련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요가의 정전(正典)이라 할 수 있는 <요가수트라>에는 윤리적 단계에서부터 육체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리적 수행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기술된다. 금계(禁戒) · 권계(勸戒) · 좌법(坐法) · 조식(調息) · 제감(制感) · 응념(凝念) · 정려(靜慮) · 삼매(三昧) 등이 그것이다. 육체 · 심리적 양 부류의 실천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요가 수행의 전반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저자는 <요가>(여래)를 출간한 적이 있고 이번에 <요가철학>(여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수행법을 계승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전자가 실천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후자는 철학적 근거에 대한 조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들 저작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전에 입각한 균형 잡힌 요가서'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요가의 실천법은 고대 인도의 거의 모든 종파에서 수용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요가라는 용어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여러 학파에서 거론하였다. 대승불교의 유식학파(唯識學派)는 유가행파(瑜伽行派, yogacarya)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는데, 번역하면 '요가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고대인도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베단타 학파'에서도 요가는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데, 현대의 인도들에게는 베단타의 교설이 요가 본래의 그것으로 인식되는 경향마저 있다.

따라서 요가의 온전한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가수트라>부터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요가수트라>는 물질세계(prakrti)와 정신성(purusa)이라는 이원론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현대 인도사상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일원론적 경향과 분명히 구분된다. 더불어 요가의 심리학은 정통 힌두철학이 아닌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요가수트라>에 나타나는 고유의 사상에 대해 살펴본 연후에, 주변의 이론에 대한 고찰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가수트라>의 중심 과제는 어떻게 해서 물질세계에 가려진 정신성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요가수트라>의 해답은 식별지(viveka)이다. 즉 현상적으로 드러난 세계와 참자아가 본래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물질세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혜에 의해 해탈이 있고 무지에 의해 속박이 있다'는 교설은 <요가수트라>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요가의 실천론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이란 참된 본성인 정신성을 물질세계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한 동일시야말로 범부의 일상적 의식이 갖는 특징으로서 무지이다. 따라서 요가의 수련은 무지에 사로잡힌 일상 의식을 가라앉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삼매의 상태란 그러한 의식이 가라앉은 정도를 단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며, 식별지란 바로 거기에서 발현되는 초월적 지혜를 가리킨다. 궁극의 경지는 이렇게 해서 드러난 식별지에 의해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고 난 이후의 상태를 가리킨다.

<요가철학>의 전반부, 즉 제 1장에서부터 제 3장까지는 이상과 같은 요가사상의 기본 틀로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조명으로 할애된다. 그리고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심리학과 수행론이라는 테마로서 전반부의 형이상학을 실천적인 측면에 접목시킨다. 마지막에는 부록으로서 <요가수트라>의 산스크리트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이러한 <요가철학>의 내용구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요가의 사상체계 전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이하고 명료한 문체는 기존의 전문학술서와는 달리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지나칠 만큼 간결한 내용전개의 양상은 소위 '요가철학'의 맛을 실감나게 음미해 보는데 있어서 하나의 아쉬움이다.

■임승택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 책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고전요가 연구로 박사학위(동국대 인도철학과)를 받은 한국요가연수원 이태영 원장의 수행 체험과 학문적 연구 결과의 종합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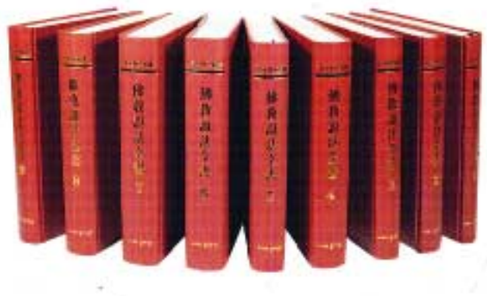


은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입니다.
해 학이 담긴 만화와 교양이 되는 불교상식을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 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에 **법보시나 선물용으로도 최고!**


글 방경일 · 그림 김장섭 | 본문 272쪽
4×6변형판 칼라인쇄 | 값 10,000원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
모두 구입하실 경우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불교설법전서>는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
설법에 필요한 각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1권(500쪽) 3만원 · 6권(816쪽) 5만원
2권(536쪽) 4만원 · 7권(884쪽) 5만원
3권(612쪽) 4만원 · 8권(730쪽) 5만원
4권(798쪽) 4만원 · 9권(720쪽) 5만원
5권(720쪽) 4만원

지금 여기에서 100% 행복해지는 연습
실험처럼 살 · 아 · 라



"읽는 순간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
이 책에서 페마 최된 스님은 우리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유머, 융통성, 용기, 지혜의 원천을 찾아 주는 수행법들이 가득 담겨 있다.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 옮김 | 신국판 양장본 | 본문 176쪽 | 값 8,000원

神妙章句大陀羅尼 講解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말로 풀이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하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각 스님

저자 원근동 | 원형 신국판 양장본 | 본문 208쪽 | 값 10,000원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환경운동을 바라보며

요즘 세간의 화두는 환경이다. 특히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를 비롯하여 기독교의 목사와 원불교의 정남이 함께 새만금방조제 설치 반대를 내세우며 3보1배를 벌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개발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 사회를 짓누르던 시대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명제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이제까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자연은 인간의 문명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였으며, 그렇기에 자연파괴를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최근 일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혹자는 이것도 역시 인간들의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환경운동이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간들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되자 그 업보 역시 인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자연을 인간과 별개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서양문명 속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영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과 인간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 인간과 환경을 별개의 존재 내지는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왕반야경>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국토와 내가 둘이 아니다. 국토가 중생이며, 국토가 곧 부처인 것이다. 국토와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라 선언한다. 신토불이의 이론적 근거가 이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근본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의 하나인 <법구경>에서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이 하라. 꿀벌은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며, 자연에게서 회복할 수 있는 자생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이 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분율>에서는 "땅을 파지마라. 살아있는 나무를 꺾지 말라. 노지에 불을 놓지 마라. 고의로 축생들의 목숨을 빼앗지 마라. 벌레 있는 물을 마시지 마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살아 있는 나무도 생명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자연,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
환경보호될때 우리 삶·터전 윤택

자연과 인간을 평등한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에 <화엄경>이 있다. 여기서는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들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화엄은 일체의 존재를 법신불의 현현으로 파악한다. 때문에 그것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인간 내지 생명체와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선 국토와 중생이 평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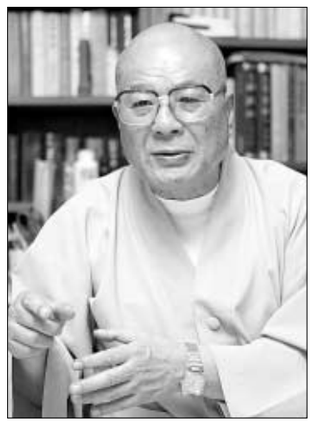
수경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새만금 갯벌 살리기에 진력하고 있다. 그 속에 살고 있던,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숱한 생명들을 생각해보자. 환경을 파괴하며 개발하는 일에 대한 인간들의 산술적인 경제적 가치는 우리들의 눈을 현혹할 수도 있다. 당장은 약간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손만대를 생각한다면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리석음 벗는 것이 '성불'

지상 백고좌

혜 경 스님

(서울 무설정사 조실)



기도는 눈앞의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 위한 간절함으로 하라

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번뇌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뇌의 원인은 탐진치 삼독에 거만 질투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번뇌 중 탐진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우치(愚癡, 어리석음)가 가장 근원적이지요. 어리석기에 탐욕도 부리고 성질도 내는 것입니다.

탐진치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치(무명)가 중심이 돼 작용하면 번뇌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불'입니다. 마음의 분별력이 없어지면 번뇌도 깨달음이 됩니다. 참선하는 것도 마음의 분별력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선 삼매에 들어가면 의식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마찰하게 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통하지만, 4차원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4차원 즉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체(體, 몸)와 용(用, 몸짓)의 한량없는 우주가 온통 내안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생명있는 몸이라면 반드시 몸짓이 있게 마련이며, 그것이 본디 하나임을 안다면 깨침의 세계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한 마디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살도는 반야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란 너와 내가 하나 즉 동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의 최고 형태를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나쁜 습을 바꿀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새는 백번 날개를 지어야 날아갑니다. 보살도도 계속 연습해야 이뤄집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살을 연꽃에 비유합니다.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으면서 다른 꽃보다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중생을 떠나서는 보살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떨어지면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 조건이 맞을 때 피어납니다. 한번 파종된 불성은 어떤 조건만 맞으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연꽃은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는 그 자리에서 약속되어 있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갖추어진다는 뜻입니다.

연꽃의 세 가지 덕은 인간세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으로 유전하며 오탁의 진흙 투성이가 되어 극히 무거운 죄로 더럽혀지면서 마음속에 불성은 연꽃처럼 계속됐습니다.

진흙 속에서 태어나지만 연꽃처럼 그것에 침해받는 일이 없는 한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불성은 지옥, 축생도로 유전하더라도 조금도 낡거나 훼손되지 않으며, 때가 되면 기필코 싹을 틔우며 나타납니다.

인간들이 미덕의 뿌리를 쌓으면 동시에 선한 과보가 약속됩니다. 반면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과보가 약속됩니다. 중생의 어리석은 눈으로는 인과의 도리를 꿰뚫어 볼 수 없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인) 하화중생(下化衆生: 과)은 하화중생(인)하면 상구보리(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살이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면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꽃이 핌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연꽃의 화과동시(花果同時)의 덕(德)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거룩한 부처님이 때 묻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은 채로 항상 계셨습니다. 인과가 동시에 생기는 것처럼 선근을 심기만 하면 성불은 틀림없습니다.

불교의 주안점은 '자기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만족했던 것이 불안으로 바뀌어 괴로워지고, 후회하며 그 현실에서 저절로 기쁨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자기에게 납득이 되는 생활철학인가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



고 자기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자기창조인 반야를 탐구하는 자세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투쟁가운데 확신하고 체험해 가면서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실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형상은 없지만 성품은 이 세상에 두루 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있다는 것은 힘과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친견하려는 견불(見佛)의식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사바세상에서 떠나시자 직관을 통해 부처님을 느끼는 관불(觀佛)의식이 생겼지요. 그러다보니 수많은 부처님이 생겨납니다.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등.

중생들은 대승경전에 의해 창출된 부처님이 항상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중생을 보호하지도, 제도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면 지금처럼 삼계에 중생이 있지도 않습니다. 벌써 부처님 재세시 일거해 제도됐을 것입니다.

지금의 불교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편에 너무 치중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소원성취와 입시기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원성취도 서원은 깨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영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조끼·몸배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라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 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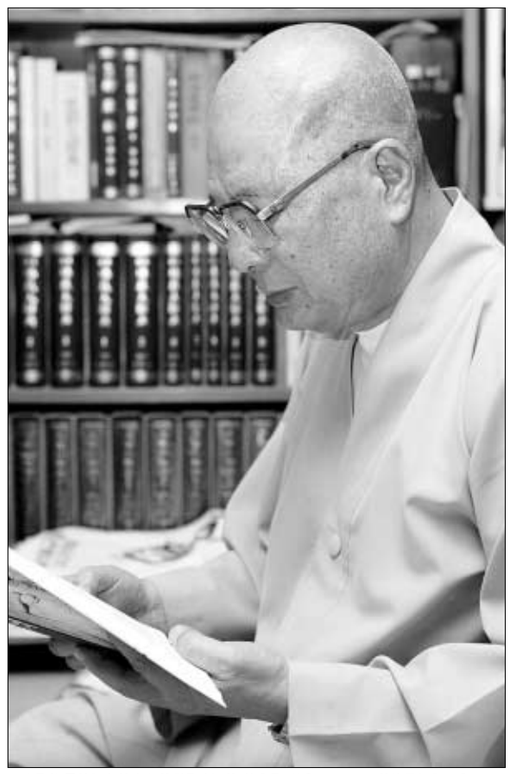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평생 무욕의 삶을 살아온 혜경스님은 〈법화경〉 번역과 저술,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는,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관계 없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중생들은 각자가 부단히 노력하여 스스로 성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건지는 이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사람의 식에는 아메바부터 최근의 인류까지의 진화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메바나 인간들은 현재의 몸뚱이만을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인간도 아메바에서 쭉 진화하여 커진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온갖 생물 무생물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 무생물까지 함께 '우주의 대생명'에 의해 살려지고 있기에 존재가치는 근본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간들은 유정물이나 무정물을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소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즉시 바로 잡지 않는 한 인류는 곧바로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구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2천5백여년간 약간의 고승대덕을 제외하고는 우주의 실상을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부족하고, 해설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여 우주의 이치를 증득한 고승들마저도 언어와 문자의 부족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

지옥·축생도로 유전한다해도

조금도 낡거나 훼손되지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틔워

당시에 지구가 1초에 30만km를 가고, 굉음소리를 내며 나선형으로 우주공간을 활보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반야심경에 '불생불멸(不生不滅) 부증불감(不憎不減)'처럼 중생들에게 블랙홀과 화이트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들 알아듣지 못했겠지요. 최근 포항공대가 원자가속기를 들여왔는데 우주의 이치를 설명한 불법의 이치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명료한 사상을 불자들이 모른다는 것은 안될 얘기입니다. 또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대 큰스님이신 탄허 스님이 '허공을 삼켰다'고 하는 것과 부처님께서 10월초 여드렛날 '샛별을 보고 깨쳤다'는 것은 우주와 계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우주관 인생관을 갖게 될 때 명확해집니다.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생명의 실상을 바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자기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부처님이 될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성불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법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공부에 더욱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입시, 사업성취등 그야말로 목적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상보시가 안됩니다.

지금 절에서 하는 것처럼 경전의 힘을 빌어 병이나 고친다면 연천의 D교단처럼 생명수로 치료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찰의 필요는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인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찰마다 새로짓기 운동이 벌어져 정법과 비슷하면서 형상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합심할 때 불교가 살아납니다. 사찰과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끊임없이 어

기자가 본 혜경 스님

법화경의 권위자…수많은 경전번역·저술

법화경 홈페이지 준비…후학위한 배려

혜경 스님은 1933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불가에 귀의했다. 법명은 혜경(惠耕) 당호는 회옹(晦翁).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스님은 85년부터 현재까지 무설정사에 주석하며, 경전번역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법화경 번역의 권위자로서 경전공부모임을 이끌며 출·재가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이 번역·저술한 불경만도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 다수. 스님의 저술은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학을 아우르는 해박함과 정교한 논리로 부처님의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스님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보살행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스님은 요즘 법화경과 관련한 홈페이지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까지 해온 저술과 번역작업이 후학들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일인 만큼 미래세대가 이에 바탕하여 한층 넓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방편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의 생활은 '무욕' 그 자체이다. 평생 어느 것도 소유해본 적이 없다. 사찰의 주지를 맡아 본 적도 없다. 사찰을 지어 곧바로 불교재단에 상좌 명의로 등록한 뒤 작은 방 한 칸만 얻어 살고 있다. 사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도 모두 불교재단 명의로 상속했다. 스님의 삶은 한마디로 보살도의 삶 그 자체이다.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원스님

내가 현원스님을 처음 만난 것이 84년, 통도사 극락암 선원 여름안거에서다. 스님은 십여 세의 어린 나이로 표충사에 들어와 통도사 강원을 마쳤다. 현원스님은 그의 어머니 표현대로라면 '부처님전에 시주한 아들'이다.

선방에서 만났을 때는 20여세 였지만 20년가까이 지난 지금도 앳된 얼굴이다. 그 또래의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잠이 많아 입선죽비를 치고 둘러보면 빈 좌복만 놓여있곤 했다.

"혜도(현원스님 법호)야! 죽비 쳤어, 빨리 들어가야지."

찾아보면 이불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곤 했다. 깨워도 응석부리는 아이 같이 몸을 더 구부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입선시간마다 벌어지는 이런 밀고 당기기에 익숙해질 무렵 안거가 끝났다. 헤어지기가 서로 아쉬워 걸망을 둘러멘 우리는 청도 죽림사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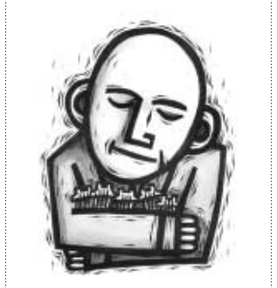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한동안 선원을 다니던 현원이 어느 날, "나, 인도 여행하고 올게" 하더니 바람처럼 떠나고 나서, 4개월이 지나서야 돌아왔고, 잠시 토굴에서 정진하던 그는 다시 1년여 동안 50여 개국을 돌아보는 세계여행길을 혼자서 훌쩍 떠났다. 그로부터 터키의 소인이 찍힌 엽서가 배달되어 왔다.

"현봉(나의 법호)아! 여긴 이스탄불인데, 유럽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만약 유럽에 한국인 거지가 한 명 생겼다는 방송이 나오면 난 줄 알아."

몇 달이 지난 후 씩씩하게 돌아온 그는 여행 중의 실수담을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었다.

이런 현원과 내게 있어 93년은 아무래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해였다.

신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의 십자가만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건영그룹의 엄상호 회장과 구룡사 정우스님이 건영이 짓는 아파트의 상가마다 포교당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 첫 번째 원력불사로 다섯 군데의 상가에 포교당을 설립했다. 분당의 연화사, 문정동 법계사, 중동신도시 서래사, 평촌 보림사, 송탄(현 평택)의 지산사와 4개의 유치원이었다. 이후 엄회장과 정우스님은 10개가 넘는 포교당과 유치원을 만들어 나갔고 이는 한국 불교 현대사에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 본다.

정우스님과 작은 인연이 있었던 나는 송탄의 지산사 주지로, 정우스님의 사제인 현원은 분당 연화사 주지로 부임했다. 그것이 선원의 수좌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포교인생의 시작이었다.

93년 5월 개원할 당시, 분당은 입주가 막 시작된 아파트들과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들로 곳곳의 길이 파헤쳐 있었다. 제대로 도시의 기능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현원스님은 적극적으로 포교를 시작했다. 짧은 시간내에 180평 법당에 불자들이 가득 찰 만큼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포교의 좋은 방법들을 조언하며 힘든 서로를 격려하곤 하였으니 사람 키우는 불사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불사라는데 공감했던 것이다.

포교당 주지라는 것이 힘든 자리라면 참으로 힘든 자리다. 아파트 안에 절이 있으니 매일 찾아오는 불자들의 눈이 무서워서도 예불 한번을 거를 수가 없다. 법당 염불소리가 시끄럽다고 목청높이는 이교도나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아예 포교당 문을 닫을

어머니 "부처님전 시주 아들"

신도시 지식인·어린이 포교 헌신

수 밖에 없다.

현원스님은 포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나는 포교원에서 열심히 진리를 전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토굴의 스님들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그러나 이 둘은 하나의 인연으로 묶인, 같은 수행의 다른 모습일 뿐이야."

어린이 법회, 거사림 법회, 일요가족법회 등 신도시의 지식인들에게 맞는 법회를 개설하고, 37번의 백일기도를 성취할 만큼 신심으로 투철히 뭉친 현원스님. 외국을 나갔다 올 때도 어린이 법회의 아이들 주겠다며 수백개의 초콜렛을 사서 무겁게 지고 들어온다.

도심포교에 헌신한 현원스님이 5월 17일 연화사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또다시 분당 시내에 440평의 땅을 사고 50억 여원의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법당을 완성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새 도약을 꿈꾸는 스님은 분명 부루나존자의 후예인 것 같다.

덕혜스님은 1959년 전북 진안 生으로 78년 법주사에서 출가, 79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92년까지 전국 선원에서 참선정진했으며, 지산사·달성사 주지와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정법사 주지와 남대문 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명가의 명향 - 건강향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세균번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맵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한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흡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02) 538-7161

http// : www.hyangga.com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 法徹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삼십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底紙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할까나.
某師燒却成學語	고사(某師)가 소각함은 말을 배움을 경계했음이니
至今流通一場悉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抹底何曾限碧巖	지울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랴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아라.
無所說已多語	설한 바가 없음이라 함도 이미 말이 많음이니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헤아림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 泰華淨圓 –

300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성보박물관 등에서 불교관련 특별전이 잇달아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9일까지 개최하는 특별전 '통일신라'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유물 5백여점을 전국 40여개 박물관과 공공기관에서 수집해 마련한 전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126호), 금동보살입상(국보 184호), 송림사 5층 전탑유물(보물 189호) 등 국보와 보물도 10여점 포함돼 있다.

박물관 전시회 잇달아



◇금동보살좌상(좌)과 금동불좌상.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일신라 불교문화진수 눈길

국립중앙박물관 29일까지 특별전 열려
국보 '대다라니경' 금동사리함등 50여점

전시 주제는 신라의 중심부 경주 왕경이 6부(部)였다는데 착안해 6개로 나뉜다. 불자들이라면 4부 '부처님나라'의 전시실 앞에 걸음이 멈출 것 같다. 앙옆에 나한상을 배치한 '부처님 나라'에서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구를 비롯해 금동사리함, 금동전각형사리기, 상원사 동종(국보 36호), 십이지신상 등 50여점의 불교유물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리니경은 보존을 위해 조명없이 2주일 동안만 전시된다. 이외에도 구미 봉한리 금동보살입상(국보 184호)과 경주 황복사지 금제불상(국보 79 · 80호) 등 10여점의 불상도 선보인다.

윤형원 학예연구관은 "통일신라 문화의 대부분이 시대적 특성상 불교와 관련이 많아 '부처님나라' 전시실이외에도 다수 작품이 전시돼 있다"며 "특히 국보와 보물급 불상들은 잠깐 스쳐 감상하기 보다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의자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한다. (02)398-5120.

국립민속박물관도 16일까지 중앙홀 기획전시실에서 '삶 속에 나툰 부처, 나한'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나한도 516점과 삼존도, 10대 제자도 등 520여점이 벽에 걸린다.

제 1주제인 '나한 신앙의 세계'에서는 문헌과 구전설화에 나타난 나한의 모습, 우리나라의 나한 신앙 성립과정 등이 소개된다. 또 제 2주제인 '영겁의 미소'에서는 이숙일 화백이 유화로 표현한 나한의 모습들이 설명과 함께 선보인다. (02)734-1346.

민속박물관 삶속에 나툰부처…나한·삼존도등 전시

대구박물관 사찰단청·벽화·석조미술 사진전

통도사박물관 국가문화재 지정 불교회화 90여점 선뵈

국립대구박물관도 7월 10일까지 전통 건축, 사찰의 단청과 벽화, 불교 석조미술, 국보급 문화재를 소재로 한 '우리 문화재의 美' 사진전을 연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인 김대벽, 관조 스님, 한석홍, 안장헌씨가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비롯해 여수 흥국사 대웅전 천장화 등 34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053)768-6052.

동국대 박물관도 13일까지 개교 97년을 기념해 제 2전시실에서 기념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화 선원사지와 보령 성주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비롯해 정조대왕의 어필 파초도(보물 제 743호)와 국화도(보물 제 744호), 청화백자송죽문호(국보 제 176호) 등 50여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02)2260-3462.

이외에도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0월 19일까지 국가문화재 지정 통도사 불교회화 90여점을 전시하는 '국가지정문화재특별전-통도사의 불화'를 연다. 영산전팔상탱(보물 1041호)을 비롯해 보물 탱화와 경상남도지방유형문화재 53점 등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055)382-100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정교한 전통·응용사경 100여작품 출품

LA관음사 초청 김경호 사경展 1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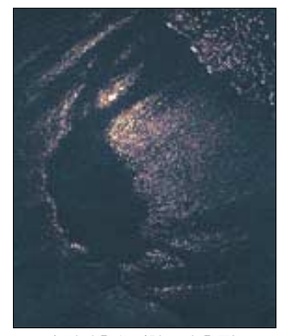
◇김경호씨의 '응용사경'.

한인미주이민 1백주년을 기념한 LA관음사 초청 '김경호 사경전'이 17일까지 LA로투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25년간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경기법을 천착해 연구해 온 김씨는 한국에서 전래된 사경기법을 기록한 일본 천평시대(8세기)의 고문서까지 두루 섭렵하며 전통에 바탕을 둔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었다. 특히 금·은니 사경 후 표면의 아교를 제거하는 것과 금·은을 3회이상 정제해 순도를 높이는 작업은 김씨만의 독창적 기법이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탄생한 김씨의 금·은니 작품은 묵서보다 더 정교한 필획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사경과 응용사경 작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응용사경작품은 자못 흥미롭다. 상원사종 비천상 감지에 금니로 복원한 후 사경을 했는가 하면, 불보살 그림과 문양을 그린 후 영문으로 사경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양대 탁본에 사경한 작품, 해인사 대장경판에 사경한 작품 등도 전시된다.

김주일기자

이경홍 사진展 '창조적 혼돈'…空의 세계 표현

부산 프랑스 문화원에서 16일까지 열리는 이경홍사진전 '창조적 혼돈'의 작품을 대하면 사진에 등장하는 모습과 형상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무(無)의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우주만물이 생성되기전 존재했을지 모르는 적막하고 쓸쓸하지만 무엇인가 무한히 창조될 수 있고 텅빈 충만을 느낄 수 있는 공(空)의 세계를 표현했다. 사진의 인화를 컬러 프린터로 한 것이 독특하다. (051)565-0306.



◇이경홍 作, '창조적 혼돈'.



◇불교방송 '살며 생각하며'를 진행하는 덕신 스님과 김민정 작가, 서용국 PD(왼쪽부터)가 한자리에 모였다.

"차분히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 되길"

불교방송 '살며 생각하며' 다시 청소년곁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27일 밤 10시.

"원고는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노래가 뭐였지?" 방송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바빠지는 이들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불교방송 청소년 포교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 제작진들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스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강점"이라는 서PD는 "종교를 떠나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김민정 작가는 심야방송의 매력으로 '편암함'과 '친밀감'을 꼽는다. "방송을 들으며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만의 색깔을 결정짓는 사람은 진행자 덕신 스님. 서 PD는 "스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열린 시각이 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 같다"고 말한다. 스님은 "일반 라디오 방송처럼 단시간에 큰 인기를 끌지는 않지만 방송을 통해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오래 가게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청취자 중에는 자녀와 함께 라디오를 듣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스님의 방송은 꼭 챙겨듣는 청취자들도 있다.

덕신스님의 편안한 진행 청취자들 호감

올해 봄 개편부터 방송되고 있는 '살며 생각하며'는 지난해 가을 방송이 폐지된 후 '다시 듣고 싶다'는 청취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이번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매일 청취자 게시판에는 10여건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방송 중 진행하는 인터넷 채팅 참가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요일별로 다양하게 꾸며진 프로그램도 인기 비결. 한주간 인터넷 인기검색어를 통해 시사문제를 짚어보는 '클릭! 베스트 검색어'와 선생님과 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이제 한 달 남짓. 제작진들은 "앞으로 공개방송이나 청소년 캠프 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령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불교텔레비전 <ch 32>

05:45 고승열전
06:05 불교강좌
10:55 우리들의 찬불가
16:10 음악의 마을
19:00 BBS저녁종합뉴스
21:05 불교문화산책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4일 07:40 팡팡 룸비니 동산
5일 16:40 최완수의 우리문화 바로보기
7일 09:20 설수진의 러빙유
8일 07:40 시가 있는 찻집
9일 13:20 덕신스님의 사찰문화기행
10일 15:25 혜봉스님의 차와 선 이야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국악발견(8일 14:05)- 젊은 소리꾼 김용우가 소개하는 우리 음악의 새로움과 우리 가락의 신명을 만나는 시간 '국악발견'에서는 소리꾼 남상일이 출연, 판소리에 대해 설명하고 판소리 한 자락을 가르쳐주는 '남상일의 판소리 따라잡기'를 진행한다.

■**불교텔레비전**:▷설수진의 러빙유(7일 09:20)-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설수진 씨가 진행하는 '설수진의 러빙유' 8회에서는 탤런트 이하얀 씨가 출연해 자신의 데뷔시절과 방송생활, 탤런트 허준호와의 결혼생활과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불자로서 또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稀譚石 희담석 mahamall.co.kr 마하몰이 추천하는 효도선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선물-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연카키, 살구색



〈희담석 찜질팩〉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보료〉
● 고급형 보료: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2,5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l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과 희담석 찜질팩은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태교엔 정성스런 음식이 최고"

약선식 연구가 정세채씨의 '밥상위의 태교'

"모양 반듯하고 빛깔 고운 음식을 먹고, 예쁘고 좋은 것들만 보고, 험한 말은 삼가고…."

우리 전통 태교에서는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공기오염, 환경호르몬, 식품에 첨가된 화학물질, 전자파, 스트레스 등 현대의 환경은 임신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 〈밥상 위의 태교〉를 펴낸 음식환경연구소 정세채(경북과학대 바이오식품계열 교수) 소장에게 태교를 위해 임산부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들어본다.

맑고 향기로운 음식 섭취로 산모체질 바꿔

음식태교는 임신기간과 임산부의 증세, 태아의 성장발육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알맞게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약선식(藥禪食) 연구가인 정 소장은 "임신 전부터 맑고 향기로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며 "한 끼의 식사로 태아와 산모가 당장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 달 동안의 꾸준하고 정성스러운 음식태교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여진 산모의 체질을 바꾸어준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이용해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설탕 같은 인공조미료 대신 천연양념을 이용해 조리한다. 시판하는 된장이나 간장을 사 먹더라도 과일이나 함초, 보리 등을 첨가함으로써 영양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교를 위한 특별식'이 임산부를 위한 전부일 수는 없다. 정 소장은 "균형있는 식사를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태교음식을 먹음으로써 올바른 영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임신초, 입덧·몸 상태등에 따라 조절 필요

임신 전 심신의 안정을 돕는 음식으로는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함초를 이용한 함초다시마 콩국과 피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연근을 딸기즙에 조린 연근딸기조림 등이 있다.

임신을 한 상태라면 시기별로 음식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 초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아욱죽이나 옥수수 야채구이를, 4~5개월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위해 두부조림이나 애호박죽 등이 좋다. 입덧이 심한 사람은 숙주초나물이나 참취주먹밥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금치김치와 풋콩버섯카레 등이 효과가 있다. 임신 6~7개월부터는 태아에게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 연근전이나 호두죽, 표고버섯탕수 등의 음식을 먹는다. 출산을 앞둔 9~10개월에는 김장아찌나 다시마밥 등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이 좋다. 출산 후에는 너무 달거나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 튀김 등은 피하고 더덕생채나 근대송이된장국을 먹는다. 모유 수유를 돕는 음식으로는 냉이다시마국이나 수수경단 등이 있다.

업무환경 고려 기능성 선식 섭취도 좋아

임신한 직장여성을 위한 10가지 충고도 눈여겨 볼만하다. 임신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임산부들에게는 제철과일과 복령가루로 만든 떡 등의 기능성 선식을 가지고 다니며 먹는 것이 영양섭취를 위한 한 방법이다. 전자파예방을 위해서는 치자차와 청미래덩굴차가,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우엉연급즙이 좋다. 커피를 오래 마셔온 임산부라는 청미래뿌리차가 도움이 된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숭아즙이나 생강차 등을 사무실에 준비해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여수령 기자

◈ 임신 전 심신안정을 돕는 '우엉호두강정'



우엉 200g, 호두 100g, 은행 20알, 찹쌀가루 1컵, 생강 1톨, 조림장(다시마 우린 국물 1/2컵, 진간장 2큰술, 물엿 2큰술, 참기름, 후춧가루, 볶은 소금)

1. 우엉은 껍질을 벗긴 후 씻어 쌀뜨물에 잠시 담가 떫은 맛을 뺀다. 반은 강판에 갈고 반은 잘게 다진다.
2. 은행은 팬에 살짝 볶은 후 껍질을 벗기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간다. 호두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삶아 속껍질을 벗긴다.
3. 볼에 찹쌀가루와 1, 2를 넣고 섞은 후 반죽한다. 반죽을 둥글게 완자 모양으로 빚어 160℃ 기름에서 두 번 튀긴다.
4. 냄비에 분량의 조림장을 넣고 센불에서 끓이다가 1/3로 줄어들면 튀겨놓은 우엉완자와 호두, 은행을 넣고 함께 졸인다.

◈ 태아의 두뇌발달을 돕는 '단호박밥'



단호박 1개, 현미찹쌀 1컵, 쌀 1/2컵, 팥 · 조 · 검은콩 50g씩, 조 1큰술, 청주 4작은술, 은행

1. 팥은 씻어 냄비에 담고 삶는다. 물이 끓으면 따라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팥알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는다.
2. 검은콩은 5~6시간 정도, 현미찹쌀은 3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씻어 체에 건진다. 조와 쌀도 30분 정도 불린다.
3. 단호박은 껍질째 씻어 아래쪽 꼭지 부분을 둥글고 평평하게 자른 후 안의 씨를 긁어낸다. 속을 긁어낸 단호박 안에 불린 현미찹쌀, 콩, 조, 쌀, 팥을 채워넣는다.
4. 3에 청주를 뿌린 후 잘라둔 꼭지 부분을 덮어 김이 오른 찜통에서 20분간 찐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포대화상 향로



포대화상은 9~10세기의 스님으로 지팡이 끝에 커다란 자루를 메고 다니는데, 자루 속에서 무엇이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었다고 해서 포대스님이라고 불렸다.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미륵불의 화현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다.

흑단으로 만들어진 '포대화상 향로'는 크기는 폭 19cm, 높이 11cm로 포대화상향로와 전단향 1통이 9만원이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일상속의 깨우침



자신의 나이는 60세이고, 불교에 입문한지는 35년이 되었다고 하는 초로의 부인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 분의 내면에는 맑은 기운이 서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 온 분들에게서 느끼게 되는 그런 맑은 기운 말입니다.

부인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 후 "며칠 전 제가 다니는 절에서 1박 2일의 참회정진 기도를 간다고 하기에 따라 갔습니다. 참가 인원은 약 70명 정도였는데 저희들은 스님과 함께 참회정진 기도문을 앞에 놓고 진언과 독송 그리고 108분의 부처님 명호를 거명하며 108번 절하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전체 기도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리는 힘든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가 다 끝났을 때는 저희들 모두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두 깊은 환희심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를 하는 동안 절에서 두 번 식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저녁식사와 기도가 끝난 후에 한 아침식사였지요. 제가 여기서 식사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식사를 하면서 경험한 일이 저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절에서 제공한 식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뷔페식이었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음식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양만큼 덜어다 먹는 식사법인데 70명 정도가 함께 공양을 하다보니 음식량을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음식을 덜어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은 늘 음식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식사는 죽이었고 반찬은 잘게 채 썬 양념 김과 미나리나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반찬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뒤에 사람은 맨 죽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음식을 덜어 간 사람은 뒤에 사람이 맨 죽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이 덜어 온 김과 미나리나물로 맛있게 식사를 하더군요. 절에 도착하면서부터 묵언을 하게 해서 뒤에 온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져온 죽을 먹었습니다. 소금기 없는 죽을 반찬 없이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저 역시 아무 불평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 사는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말이죠.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식탁 위에 기도 온 사람들이 먹을 양만큼의 반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은 반찬을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은 소금기 없는 맨 죽을 반찬 없이 먹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루 고루 나누어 가질 양만큼의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지할 몫보다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성공이란 이름으로,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풍요도 결국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챈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자식을 봐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은 기도를 다녀와서 느꼈던 소감을 말한 후 자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사춘기에 접어든 3남매를 데리고 혼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맏아들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맏아들을 잘 키워 놓으면 아버지 대신 가장이 돼서 동생들을 돌보아 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맏아들이

행복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세요

행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는데, 맏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고시에 합격한 후에도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동생들한테 돌아갈 몫을 독식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동생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맏아들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할 뿐, 뒤쳐져 있는 동생들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김과 미나리나물을 수북이 담아가지고 와서 맛있게 죽을 먹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부인은 그런 맏아들이 너무도 괘씸해서 인연까지 끊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분배를 고루 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슬하의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말이죠. 부인의 말을 다 듣고 난 저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행복은 누리는데 있는 게 아니라 발견에 있다고 봅니다. 자녀분들한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세요. 그 일을 돕는 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겠지요."

제 말을 듣고 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얼굴로요.

化緣 (02)704-3577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행복한 삶을 위한 노니"



노니(noni)는 2000년 동안 폴리네시아인들이 민간 요법으로 애용되어온 열대과일 노니를 100% 원액으로 만들었습니다.

Bula Noni는 순수 100% 엑기스이기 때문에 질병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Bula Noni는 건강하게 살려는 모든 현대인들이 일반 음식으로 부터 취하기 힘든 Xeronine이란 성분과 기타 인체의 면역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각종영양 성분의 섭취에 필요한 건강 보조식품 입니다.

노니는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관절염
- 아토피성피부염
- 당뇨
- 위장질환
- 고혈압 두통 및 통증
- 암
- 알레르기성 비염
- 불면증
- 간질환 신장병
- 갱년기 장애

※궁금 하신 분 자님들은 문 의해 주 시면 정성껏 상담해드 립니다.

총판, 대리점, 주부사원 모집

상담 : 02)534-9264
러브인노니 코리아 www.loveinnoni.com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3화 웃타카 라마푸타 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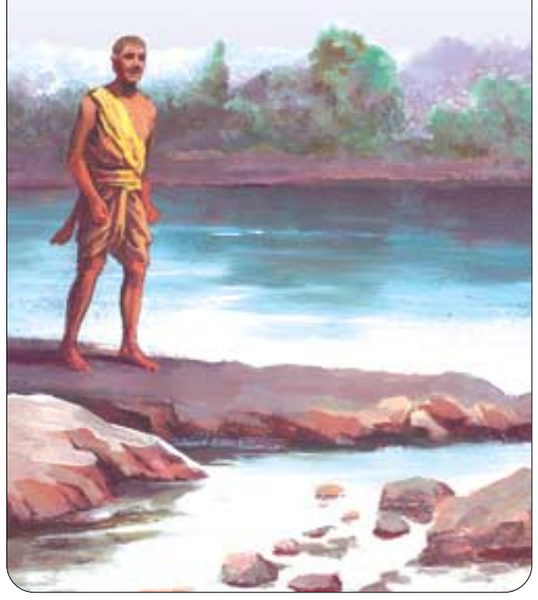


비사라 왕의 일행이 되돌아 가버리자 싯다르타는 다시 알라라칼라마 선인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았다.

문제는 비록 미세하나마 '나(我)'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싯다르타는 알라라칼라마 선인에게 구닌(Gunin: 물체)과 구나(Guna: 속성)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마치 따뜻함이나 불빛이 모두 불이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는 것인바 불이 없으면 불빛도 없고 따뜻함도 같이 없게 되어 다 같이 있든지 다 같이 없든지 한다는 뜻으로, 불 자체를 부정하면서 불빛이나 불의 열기의 존재만 말할 수 없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천지를 헤매면서 높은 스승을 만나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해 보겠다는 싯다르타의 꿈이 어쩐지 허망해 보였다. 알라라칼라마 선인 같은 사람이 한평생을 다 바쳐 깨달은 도가 겨우 그 정도라면 나는 과연 얼마나 더 긴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인도 천지엔 웃타카 라마풋타 선인 만큼 명성을 얻고 있는 선인은 없다.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웃타카 라마풋타 선인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갔다.



웃타카 라마풋타는 라마(Rama)족 사람으로 쉬바(Siva)를 모시는 루드라카(Rudraka)의 손자였다. 루드라카는 성선(聖仙)으로 그의 가르침이 웃타카 라마풋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강력한 마가다 국의 선인으로서 그의 명성에 걸맞게 7 백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뜻밖에 샤카족의 왕자를 맞은 웃타카 선인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싯다르타의 소문이 어느새 이곳까지도 퍼져 있었던 것이다.

쉬바(Siva)의 영향을 받은 웃타카 라마풋타 선인은 요가의 수련법도 같이 행하고 있어서 이곳의 분위기로 보아 이번엔 무언가 크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인 앞에 공손히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

"생사유전(生死流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려면 열반(涅槃, NIrvana)의 경지에 올라야하는데 그것은 요가(Yoga, 禪定)속에서 가능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수련을 쌓아야 하는 것이로다."

"요가라면 결국 선정(禪定, Sanabbi)을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오기 전에 알라라칼라마 선인으로부터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을 배워 이미 그 정도의 경계까지는 도달하고 있사옵니다. 듣건대 스승께서는 이미 무소유처정을 뛰어넘어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라는 선정삼매(禪定三昧)까지 도달해 계신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비상비비상처가 즉 해탈의 경지라 하시면 이 사문(沙門, Sramana)도 뒤를 이어 열반에 오르고 싶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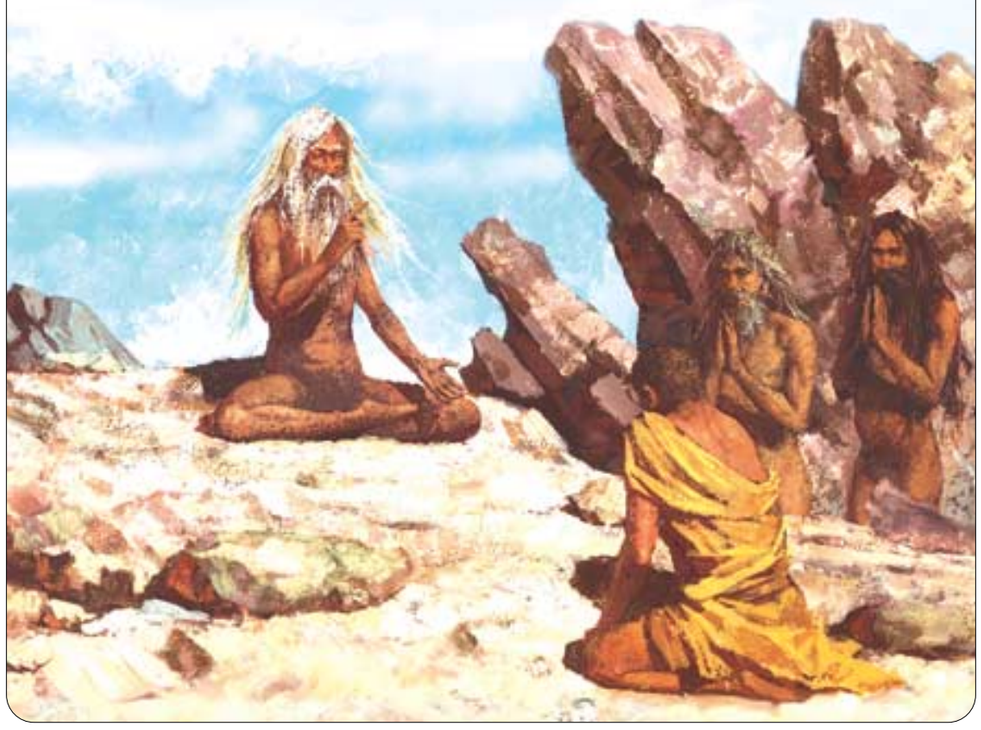


그러면 인도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윤회사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윤회(輪廻)란 글자 그대로 돌고 돌아 한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사람은 죽은 후 그 생전에 행한 보상으로 천당이나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삶과 죽음이 반복되니 결국 윤회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한번 죽음으로 만사가 끝나면 좋은데 몇 번이고 생로병사를 반복해야 하고 또 사후에도 지옥불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면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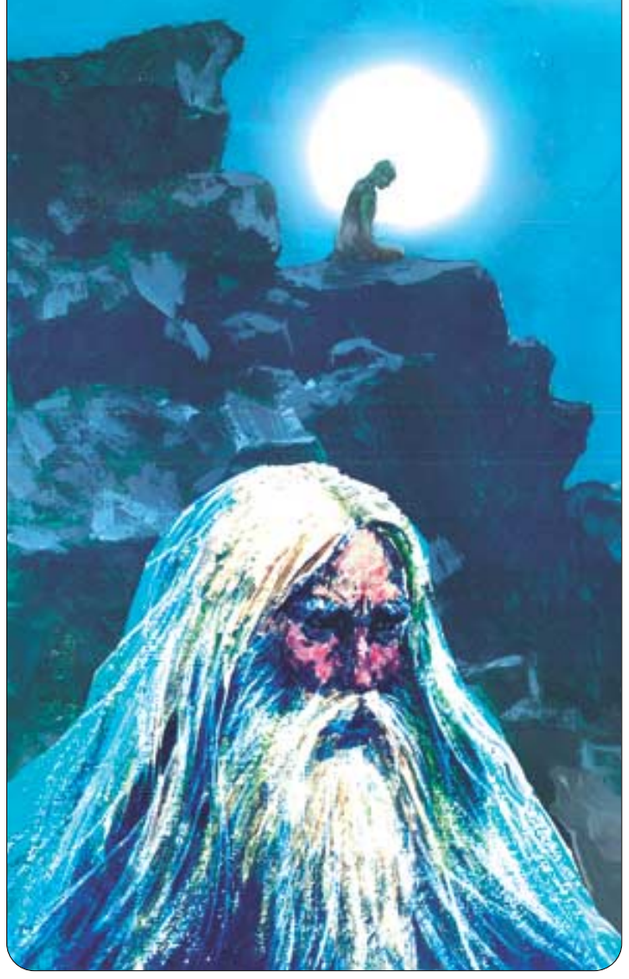
"윤회(輪廻)상태에 있는 생물 중 특히 사람은 마치 마차의 움직임과 같아서, 마차를 끌어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수레는 육체와 같은 것이다. 마음이 흔들려 험한 길로 가게 되면 육체는 그저 마음이 정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馬,마음)과 수레(肉體,육체)를 함께 매어두는 것이 요가(Yoga, 요가)이니 우선 똑바로 다리를 걸고 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정신을 통일하여 좌선(坐禪)에 들어간 다음 명상을 방해하는 일체의 상념을 없애고 공간은 무한대임을 사유하면 공무변처(空無邊處)에 이르고, 공간을 넘어서 의식이 무한대에 이르면 식무변처(識無邊處)에 이르며, 그 위에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까지 명상이 이르를 때 소위 무소유처선정(無所有處禪定)의 경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샤카족(Sakya)의 왕자를 가르쳤다는 알라라칼라마 선인이 헤매고 있는 경지로 아직까지 해탈(해탈, Vimoksa Vimukta, Mukti)의 경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선정을 뛰어넘어 최고의 경지인 완전한 무상(無想)의 명상법에 도달하였으니 비상비비상처선정(非想非非想處禪定)으로 이제야 비로소 열반(涅槃)에 올랐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음은 무엇을 어찌해야 좋은지 나 자신도 알수가 없구나. 모든 사고를 초월하여 순수한 사상만을 남긴 상태로 모든 사람들의 최고 소망인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도달하고서도 그 다음의 갈 길을 잃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스승께서 선정삼매의 최고단계까지 오르시고서 아직도 다음 길을 몰라 또 다시 번뇌(煩惱, Klesa)속에 빠지셨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해탈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셨다는 증거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노력하여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스승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료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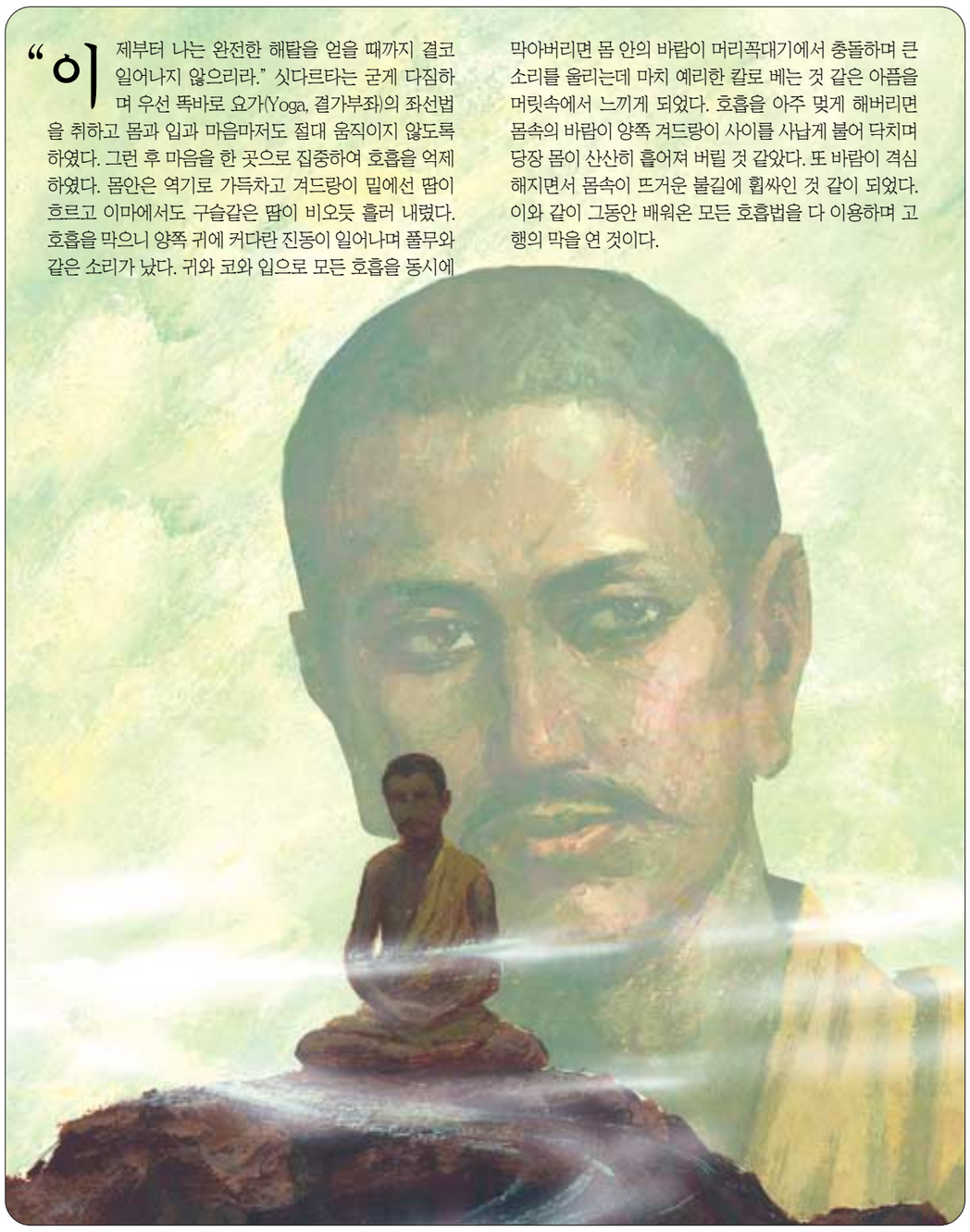
그날 이후 싯다르타는 웃타카 라마풋타 선인의 지도를 받으며 그가 도달했다는 비상비비상처에 이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며칠 후, 싯다르타는 마침내 그 선정을 성취하는 희열을 맛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로서 웃타카 선인이 평생을 바쳐 겨우 이룰 수 있었던 경지를 불과 며칠의 노력으로 그 경계에 진입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싯다르타는 완전한 무상(無想)에 도달함으로써, 과연 생로병사의 윤회를 초월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된 것이다. 역시 스승의 말씀처럼 아직도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해 사람들을 고통의 수렁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싯다르타는 당대에 유명했던 알라라칼라마(Alarakalama)선인과 웃타카 라마풋타(Uddakaramaputta)선인의 두 스승을 모셨으나, 그들이 도달했다는 선정법(禪定法)의 한계 때문에 죽음(死)과 삶(生)을 초월하려는 그의 소망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스승들은 후일 싯다르타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전수해 주었으니, 그 첫째는 요가의 좌선법(坐禪法)이요, 둘째는 단식법(斷食法) 등이었다.

싯다르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본 웃타카 라마풋타 선인은 역시 알라라칼라마 선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교단에 남아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것은 싯다르타의 출가목적과 동떨어진 것으로 결국 그곳을 이별하고 산을 내려와 보드가야(Bodhgaya)에 이르러 먼저 나이란쟈나(Naurabgabam)강 가까이에 있는 가야산으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나는 완전한 해탈을 얻을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싯다르타는 굳게 다짐하며 우선 똑바로 요가(Yoga, 결가부좌)의 좌선법을 취하고 몸과 입과 마음마저도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 후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호흡을 억제하였다. 몸안은 역기로 가득차고 겨드랑이 밑에선 땀이 흐르고 이마에서도 구슬같은 땀이 비오듯 흘러 내렸다. 호흡을 막으니 양쪽 귀에 커다란 진동이 일어나며 풀무와 같은 소리가 났다. 귀와 코와 입으로 모든 호흡을 동시에 막아버리면 몸 안의 바람이 머리꼭대기에서 충돌하며 큰 소리를 울리는데 마치 예리한 칼로 베는 것 같은 아픔을 머릿속에서 느끼게 되었다. 호흡을 아주 멎게 해버리면 몸속의 바람이 양쪽 겨드랑이 사이를 사납게 불어 닥치며 당장 몸이 산산히 흩어져 버릴 것 같았다. 또 바람이 격심해지면서 몸속이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배워온 모든 호흡법을 다 이용하며 고행의 막을 연 것이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한 철 사는 동안 몸 안에서 벗어나야 세세생생 자유로움 얻을 수 있어

몸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문 항상 싱그럽게 살라고 법을 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에서 벗어나야 자기를 굴린다고 하셨고, 창살 없는 창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음의 항아리를 굴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내고 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고 내고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의 항아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마음이 있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인데 굳이 몸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가 왜 마음공부를 해서 벗어나야 하는가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우리 몸 안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한데 뭉쳐진 혹성이라고 할까, 그 안에서 모두 별성이 움죽거리는 것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가 우주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모두가 몸 안에서 벗어나야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 있는 자재권을 가질 수 있다이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서 그 자생중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서로 뭉쳐지고 영혼의 뿌리와 더불어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정자 난자를 빌어서 이 세상에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무의 싹을 말입니다. 나무의 싹이 제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싹은 죽고 말 겁니다. 제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싹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만이 그 뿌리에서 수분과 철분, 모든 것을 올려보내기 때문에 나무는 푸르르게 살 수 있고 또 그 싹은 태양열과 공기를 흡수해서 내려보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즉 모든 것이 귀합이 돼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사람이 밝게 움죽거릴 수가 있고 자유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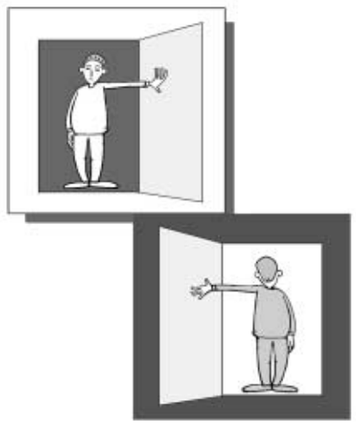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즉 말하자면 오신통이라고 이름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 남의 속을 빤하게 알 수 있는 것,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 속에서는 자유롭게 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깥으로 탁 나와야 내 몸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거니와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몸에서 벗어나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들이 물 바깥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물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도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격이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각자 자기 통신 안테나를 먼저 세워놔야 통신을 받을 수도 있고 통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 자신부터 알고 너부터 깨우쳐라. 과거 '부'와 현재 '자'가 서로 상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모든 진리를, 넓게 마음을 가지고 파악하셔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시점의 어려운 과정을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밥을 대신 먹어서 배부르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대신 누가 아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다 알아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깊은 뜻을, 그 오묘한 도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불제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사실 불제자든 불제자가 아니든 전부 불제자이지 불제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지금 참구하고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빌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철 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세세생생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죽어서 요다음에 태어나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함이 천하없어도 아랑과 둥그런 진리를 모른다면 대통령 노릇도 못한다는 거죠. 부모의 은혜로 대통령이 됐어도 자기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공덕으로써 그렇게 된 사람은 나중에 회향을 아주 거북하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욕을 먹고 그렇게 회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빼놓고 대신 밥 먹어주고 대신 살아주고 대신 똥 눠주고 대신 잠자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뿌리인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립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하는 것도 그 자리고, 또 그걸 한 손가락으로 들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니까 거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고 사는 생사를 다 버렸거든요. 생사를 가지고 논의(論議)한다면 항상 내 목숨이 살아야 한다고 하고 집착하고 끄달리기 때문에 모든 게 진행이 좋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주인공 뿌리에 합쳐서 둘 아니게 거기다 놓는다면,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게 놓는다면 그게 둘이 아니게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철 사는 동안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해서 우리 몸 안에서 벗어나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고, 우주 안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고 불제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을 모두 탐험해가면서 앉아서 죽어 가는 고목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면…

문 주인공이라는 반야줄을 항상 놓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잘해 나가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건데 놓치고 안 놓치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나깨나 모두 각자 주인공으로 인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건데 놓칠 게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본래 줄창 나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끌어 왔고 현재도 이끌어 가고 미래에도 또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아이구! 요 줄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공부하는 데 군더더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맘 턱 놓고 '내가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사는 것이 그대로 주인공에서 굴리는 거로구나. 주인공으로 인해 그냥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놓치고 안 놓치고가 없어요. 본래 하고 있으니까요. 반야줄이라는 건 자기 마음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를 지내거나 하더라도, 또 무슨 천도재니 무슨 천도재니 할 것도 없이 그냥 반야재(般若齋)입니다. 그러고 모든 것에 감사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면 충분히 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단 몇 시간도 물이 없어서 못 마시면 못 살고,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바람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사에 감사한 줄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왜? 독불장군은 없으니까요. 내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모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움죽거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배울 수가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두 있어 주니까 내가 알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돌 한 쪼가리도 내 스승 아닌 게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둘 아니게 살아야 합니다. 일체에 감사한 줄 알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산다면, 우리 몸 속에는 은하계의 샛별처럼 자생중생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수레가 돌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다 직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말한 걸 남이 못 들었다고 해서 다 모르려니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면은 전체가 다 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돌도 생명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들고 말고도 없이 그냥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반야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 한 각도 내 스승 아님 없으니
일체에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좌선시 관하는 방법

문 한마음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입니다. 스님께서는 일상생활 중에 늘 주인공에 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좌선을 할 때도 주인공을 화두삼아 들고 있으면 되는지요? 저는 좌선을 즐겨 하는 편인데 좌선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답 모든 것이 한군데 주처에서 나고 든다는 것만 알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뜻으로 다 통하게 됩니다. 왜 뜻으로 "참 광대무변하구나. 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구나. 참 신비하구나!" 하는 그런 환희심을 느끼실 때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참 이 자리에서는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갖은 행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힘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원심력입니다. 원동력 말입니다. 주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뜻이 있다. 예전에는 "이 뭣고?" 하고서 관했는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이지 너무 홀쩍 뛰어넘어 가리만큼 아주 머리가 선명해지고 정말 많은 지혜를 얻고 세상물리가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이 뭣고?" 해서는 생 맷돌 돌아가는 거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본다면 이게 들이고 내는 데 문이 없어서 들어갈 문도 없고 나올 문도 없이 나고 든다는 걸 안다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근데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는 나가 있어요. 거기서 다 들이고 내고 천만가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든, 또 보이는 세계든 육신과 더불어 같이 회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묵지묵한 심력이 있어 작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 심력을 딱 인정하고 관한다 하면은 거기에서 언제나 힘이 배출이 되는 것이며, 거기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더 뜨지도 않고 내려뜨지도 않는데 이 마음의 눈은 거기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눈이 거길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장. 지장은 땅 속에 묻혀있는 보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 속에 묻혀있는 보배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가 바깥으로 나와서 광을 내면 바로 관세음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 따로 있고 지장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다고 하면 어지러워서 종교를 어떻게 믿습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겠느냐는 겁니다. 나같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야, 산신 찾으러 가라, 칠성 찾으러 가라." 이런다면 그 못 믿을 겁니다. 내가 피곤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여기 놔야 되고 저기 놔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또 온통 끄달려서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우리는 다 타파하고 부처님 한 분 모셔놓고, 그 몸이 내 몸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이 아닌 그 점을, 도리를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의 근원과 물질과 모든 이름과 허공의 이치를, 유생 무생을 다 알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고, 조그만 풀잎하고도 같이 말할 수 있고 송장하고도 말할 수 있고, 말 없이도 말할 수 있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눈은 건당 뜨고 마음의 눈으로 거기를 지켜보면서 관하세요. 각자 여러분 마음의 눈 말입니다.

한마음으로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것 거기다 놓는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 없어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문 참선 등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깨닫기 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자기는 변했으나 상대방은 변하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빗대어 불교는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하였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상대를 밟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제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를, 하나로 묶여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해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럿이 모이지 않곤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분담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근본으로 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해서 모두 보풀어져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차만별의 그 광대한 법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잘 먹고 산다 못 먹고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지구를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웬만큼 납득하고 이해하기 이전이라도 '진짜로 내가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형성시켰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간에 양 갈래 길을 다 자기 한 손에 쥐어야만이 그걸 부처님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팔자 운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생각을 잘 해서 말을 잘 하고 행을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팔자 운명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돌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우리 인생들도 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뭐가 팔자니 운명이니 하고 붙을 게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 열고 있지 않습니까. 발 움죽거리고 냄새 맡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뚫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살펴보고, 그냥 스쳐 가는 대로 앞뒤를 보고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체가 다 알고 있어 … 직결 돼 있기 때문에

☞30면으로 계속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道요 진리
내 속에 놔두고 어디가서 찾습니까

☞29면에서 계속

우리는 과거로부터 살아오던 습이 있어서 마음으로 그 습을 놓질 못하는 겁니다. 그 습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다 못한다라는 이유가 너무나 많고, 또 알면서도 습이 나오는 그대로 그냥 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실천을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난 지금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지구라는 집 하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로 죽고 불로 죽고 이렇게 세계가 극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전멸시킬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한편 세세생생을 얻게 돼서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서 힘이 배출돼 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인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라 걱정도 할 게 없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할 게 없고,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힘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은통 걱정을 하고 돌아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으면서도 그것은 다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불교라는 것이 목탁만 두들기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건 일체 생명을 뜻하고 교(敎)는 서로 전달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그냥 불교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대로 불교요 종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살라고 해서 인간으로 진화돼서 태어났고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구실을 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소를 타고 피리 불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찾으려고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다 두고 어디 가서 도를 찾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족한 거는 마음의 정신세계를 판단치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지금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포착했다면 과학자들한테 가고 옴이 없이 전달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딴 데다 지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서 부족한 재료를 딴 데서 끌어들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겁니다. 수명이 짧은 것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선 첨단의 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몸뚱이도 지탱을 못 하고 이렇게 간대서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내면의 심봉을 붙들고 하루하루 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진화를 하고 마음의 계발을 해야 됩니다.



그림 · 최주현

올바른 기도 방법인지요?

문 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체 주인공이 하는 건데, 주인공!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하는 건 벌써 둘로 나누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건 둘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두고 누구더러 뜻대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건 이미 나와 나를 둘로 보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수련과정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놓고,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감사하게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변이 다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걸 그 뜻으로 다 거기서 나고 든다는 거를 알면은 뜻으로 감개무량하게 감사한 일이니 뭐 매일 매일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만날 오늘이죠 뭐, 오늘.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지 기도드린다는 둥 뭐 당신 뜻대로 하라든가, 뜻대로 하긴 뭘 뜻대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을 지극하게 들인답시고 하다가 보면, 만약에 기계 고리가 말입니다. 지금 나는 이 고리에다가 이 물건을 달아줘야 됩니다. 근데 기계 고리가 수천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리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리에다 달아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쉴 사이 없이 수없이 돌아가는데 들어서 척척 걸어줘야 돌아가는데 이거를 잘해서 달아준다고, 이걸 정성껏 잘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벌써 빈 고리가 저만치 다 가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달아줍니까. 우리가 벌써 생각했다고 하면요, 생각했다고 보면 벌써 그 생각한 거는 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발견했다 하거나 생각했다 하면 벌써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든 아침이든 잠시 잠깐이라도,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둥글리면서 해나가는 만법의 그 기준을, 내가 타의의 상대방과 만나는 기준과 모든 점에 의해서 "당신을 믿어. 당신이 형성시킨 이 몸이 아프니깐 당신이 해결을 해야지. 당신밖엔 해결할 수 없잖아." 하고 믿고 놓는다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해주시오. 저게 되게 해주시오." 하고 비는 기도로 알기 때문에 그 언어를 좀 바꾼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행동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자인공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굴려서 놓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초발심자인지라 많이 헷갈립니다. 놓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답 마음을 닦는 법이란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바로 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굴려놓을 줄을 안다면 굴려놓고서 다시 끄집어내서 착을 가지고 쥐고 놓질 못해서 다시 쥐고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애고가 닥쳐도 탸파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놓고 가는 도리입니다. 지혜롭게 바로 돌려놓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굴려놓는다고 하니까 다른 뜻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기 때문에 경계가 닥쳐오는 것도 체가 없는 데서부터 체가 있는 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여 들어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근본, 선장이 회장입니다. 그 회장이 사장과 더불어 같이 공장장들을 죄 이끌고 나가는 선도자입니다, 내 마음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하기를 다 한마음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 놓는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과학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해서 돌아간다면 그대로 천체물리학을 짐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줄 아시고 이 마음의 도리를 터득해서 자유스럽게들 사시기 바랍니다.

놓는 법과 굴려놓는 법

문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마음공부를 접하게 된 불자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경계가 닥쳤을 때 무조건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굴려서 놓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놓는 법과 굴려놓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답 놓는 법이란 말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모든 것이 놓아집니다. 놓는 것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굴려놓는 것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굴려놓는 것입니다. 굴려놓는 것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 닦는 법

먼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바로 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다시 끄집어 내서 착 짓지 않으면
이것이 진실로 들어가는 지름길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매사를 한군데서 들고 나게 해야

기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 말 자체가 좋긴 좋은데 지금 모두들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비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관하는 걸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체만법이 다라고 그랬죠? 하여튼 몸이 아프거나 한다면, 지금 내 몸 속에는 공장장들이 여필요하다 이겁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는 이미 늦어지는 겁니다. 버스가 이미 지나갔는데 아무리 버스 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서라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당당하고 에누리가 없고 지혜롭게 하라고 가르치셨지 허무맹랑한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장소도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요런 물자는 어느 지점에다 가게를 내야 잘 될 건지, 지금 현 사회에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잘 먹혀 들어가는지, 어떠한 것을 잘 쓰고 들어가는지를 모두 잘 살피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그것도 보지 않고 아무 데나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돈 꾸고 뭐 해서 그냥 딸깍 망해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뺏기게 되는 그런 행동은 없어야 되겠죠. 이것이 모두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탓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 벌써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깐 이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당신이 마음먹는 데에 따라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믿고 말기고 그냥 하지 못하고, 믿고 말겠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그거를 다시 끌고 나와서 또 그거를 생각합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겠으면 말긴 대로 지켜봐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말겨야 그걸 받은 사람이 일을 알맞게 충실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말겠다 다시 뺏고 또 일을 말겠다 다시 뺏고 이러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해서 이미 말겼다면 그대로 지켜볼 일이지 그거를 도로 뺏어들고 나오지 말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잘 집어먹고 잘 알아듣고 수행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삼천 년 전 그 때 그 시절의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에겐 상당히 어려워서 그걸 뜻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용어로써 보고 나가고 듣고 나가는 데서 그냥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만 듣고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나라에 위기가 닥쳤든, 가정에 위기가 닥쳤든,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로 위기가 닥쳤든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렸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걸 타파해나가고 실천을 하려면 지혜롭게 굴려서 자꾸 갈아써야 합니다. 갈아놓고 갈아 써야죠. 사람 몸도 헙면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죽는 겁니다. 기계도 녹이 슬고 망가지면 다른 기계로 바꿔서 새로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일체를 내려놓고 관하면서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할 때까지 어디에도 녹이 슬지 않고 입을 수 있게, 빛 바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몰록 그 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더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살 수 있는 건데 녹이 슬게 하고 빛이 바래게 하고 잘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한 가정인들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놔들 기계라면 미리미리 기름을 발라서 녹이 안 슬게 하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그렇게 미리미리 단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파를 겪으면서 살아나가려면 너무나 닥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모두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미리 봉을 박아놓는 겁니다. 봉을 박아놨어도 앞서에 봉을 박지 못해서 오는 것은 다가오게 돼 있지만 닥치는 대로 오고 난 뒤에 봉을 박아도 되는 겁니다, 진실로 말겨놓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자꾸 돌려놓고, 나쁜 것이 돌아올 때도 거기다가 굴려놓는 겁니다. 자꾸 돌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게 좋게 생각을 해서 굴려놓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성계가 꿈을 아주 나쁘게 꾸고 나서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그 꿈 얘기를 물으니까 지혜로운 무학대사는 그 꿈 얘기를 듣고서 묵묵히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기를, 꽃이 피었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꿨으니 그 얼마나 언짢습니까? 까마귀가 그냥 울고 가는 꿈을 꿨고, 대문에 허수아비 모가지를 매서 대롱대롱 매달아놓은 걸 봤고, 색경이 걸렸던 것이 그냥 와르르르 떨어져서 깨지는 꿈을 꾸고 그랬으니, 생각해보십시오. 이성계가 얼마나 언짢게 생각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비할 수 없이 언짢은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다니고 바로 다니고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다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도 됩니다. 그러니 꿈조차, 꿈이 고정됨이 있겠습니까? 그건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친다면 청와대에 들 꿈이고, 가옥 가옥이니까 말입니다. 색경이 와르르 깨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는 것이고, 꽃이 피었다가 우수수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목을 매서 대문 밖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은 모든 만민이 쳐다본다는 것이라고 무학대사께서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줬더랍니다. 하하하.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되기도 했더랍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물뿐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에도 들어갑니다. 물 안 들어가는 데 없지요? 일체가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도 피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피도 물이니까요. 모두가 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듯이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굴려서 놓고 바꿔놓는 데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놨으면 진짜로 믿고, 도로 뺏어 가지고 나오진 마십시오. 허허허.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누굴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믿어야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도 거기에 한 찰나에 들고나고 들고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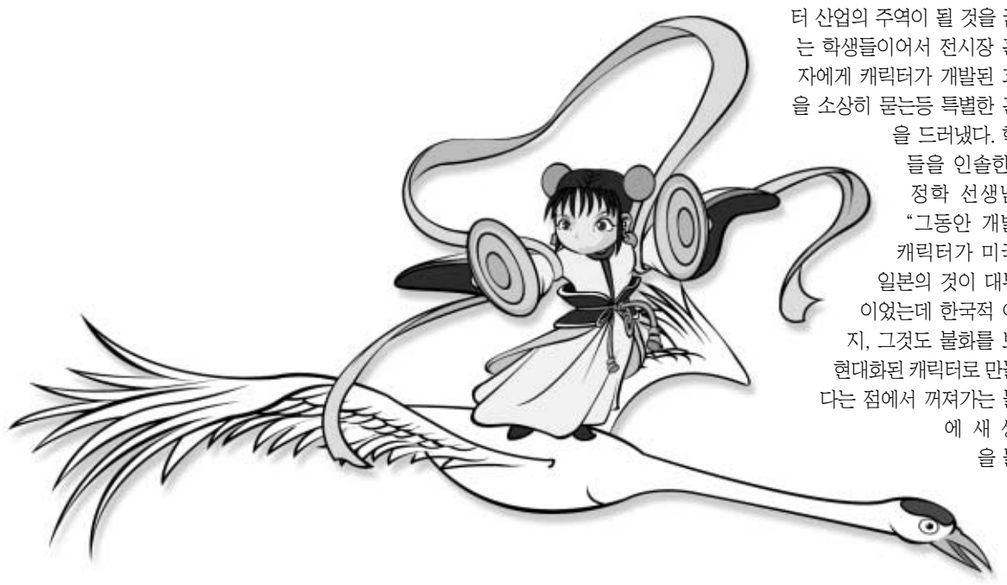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체를 놓고 가는데, 초심자들에게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놓고 난 후에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 믿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일은 되게끔 돌려놓고, 언짢은 일은 좋게 잘 돌아가도록 돌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면에 굳건히 내 주인공을 세우고 나쁘고 악한 거든지, 그런 게 다가올 때는 마음 한 생각을 잘 내서 굴려서 거기 놓고, 자기가 선행을 했든 좋은 일이 생겼든 모두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매사를 다 그렇게 한 군데서 들고 나게 하십시오.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 화 + 캐릭터,

코드가 맞았군!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展' 성황

청소년 불자 뜨거운 관심 표명, 스님들도 '격찬'

불교계 최초로 열린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 전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불화 속에 나타난 부처, 보살, 신중들이 디지털 기술과 현대 디자인 기법의 접목으로 현세에 화현한 캐릭터를 보기위해 매일 200명이 넘는 불자들이 전시장을 다녀갔다.

이번 전시회는 중 · 고등학생 불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이근우 교장이 네트워크 디자인과 서정학 선생님과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 40명을 데리고 전시장을 찾았다. 캐릭터 산업의 주역이 될 것을 꿈꾸는 학생들이어서 전시장 관계자에게 캐릭터가 개발된 과정을 소상히 묻는등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학생들을 인솔한 서정학 선생님은 "그동안 개발된 캐릭터가 미국과 일본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적 이미지, 그것도 불화를 보다 현대화된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꺼져가는 불빛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며 "불화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번 캐릭터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불화 뿐만 아니라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도 부천 동중학교, 일산 백마중학교, 통진 종합고등학교 학생들과 중 ·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다수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특히 이들 청소년 불자들은 방명록에 "짱이다", "넘 멋쩌"라는 한글 표현을 비롯해 "=w=", "T.T", "l _ l ll" 등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미술계 인사들도 다수 전시장을 찾아 처음으로 시도되는 현대화된 이미지의 불화 캐릭터를 관람했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이번 전시회는 불교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장르로 앞으로 이같은 불교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롭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시회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교수는 "색의 화려함에 비해 전체적인 통일감이 떨어지고, 인물 복장이 중국풍인 점과 지물의 표현이 다소 서툰 것이 보완되어야 할 과제"며 선이 조금 더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영천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난 이후 대구에서도 전시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캐릭터를 개발한 디자이너와 함께 현재 만불사에서 추진중인 이미지 통합작업을 같이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도 "일본의 경우 불교관련 소재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교소재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외 경향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일간지와 본지, 종교신문, 월간 캐릭터 등 전문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소개했고,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 '종교와 인생' 프로그램에도 전시회가 소개되는 등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낸 정석규 호남대 교수는 "문화콘텐츠는 한가지 소재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여러분야에 활용될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완구, 팬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불교문화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종무관리 프로그램

무료~320만원 까지?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무관리 프로그램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관리 · 교육체계도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92년 불교계 최초로 개발되어 가장 널리 보급된 종무관리 프로그램인 '아란타'는 줄곧 무상 AS 1년 조건으로 150만원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윈도우 버전 출시 이후 '달마'로 이름을 변경한 '아란타'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부터 매년 3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받는다.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업데이트를 지속해 많은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고 있는 '금강장사'도 업무처리 용량에 따라 프로그램 가격을 51만 3천원에서 320만원까지 받고 있으면 설치비와 1년 회비를 10만원에서 56만원까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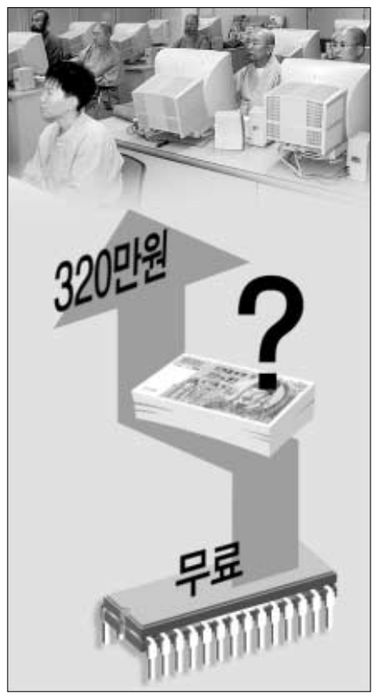
이와달리 후발 업체들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성능을 가진 종무관리프로그램을 값싸게 보급하고 있다. 지우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신도 · 회계관리에 핸드폰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의 기능이 부가된 '상황 모바일 종무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 조계종도 종단 통합 전산화의 일환으로 표준재무회계 방식의 재무회계 프로그램과 신도관리 프로그램을 합친 '가람지기'를 연간 유지 보수비 40만원을 받고 종단 산하 사찰에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 적정가격 50만원
업체와 입장차 커
실무자 특성 고려한
AS, 정보교육 절실

종무관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업체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실 사용자인 스님이나 전산 종무원들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종단협의회 등이 지난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님들은 종무관리 프로그램의 적정 가격이 5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발 업체와 실 사용자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급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종무관리 프로그램도 사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받고 있어 개발업체에서는 직접 사찰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고장시 전화 신고를 받고 방문 수리를 해 주고 있다. 조계종도 매년 2차례 전산 종무원을 대상으로 가람지기의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방문 수리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때 뿐, 실무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개발 업체와 불교정보화협의회 같은 불교단체, 종단 등에서 스님들과 전산 종무원을 대상으로한 상시적 컴퓨터 교실 운영 등의 정보소양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방문 수리 및 1:1 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전체 집체 교육 형식의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두식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정토진종 동본원사 (http://www.tomo-net.or.jp)



진종의 가르침, 역사, 관련사진 열람
사찰 곳곳 관광할 수 있는 코너 마련

일본 진종대곡파(동본원사)에서 운영하는 토모넷(http://www.tomo-net.or.jp)은 진종의 공식 사이트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본원사는 교토에 위치한 명찰로 일본 정토진종(염불종) 대곡파의 본산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종의 가르침, 본원사의 역사, 종조 친난스님, 연여스님, 불교의식과 출판물 소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동화도 마련되어 있다. 진종대곡파에서 출간하는 월간 <동붕> 5월호의 일부 기사도 서비스 한다.

'방문자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본원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종조 친난스님의 목상을 모신 건축물로 세계 최대의 목조 기념물인 어영당과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인 아미타당을 비롯해 정원인 섭성원, 종조 친난스님의 묘소인 대곡조묘 등이 관심을 끄는 곳이다.

게시판 엿보기

⊙수행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깨닫게)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닦는 것이란 말씀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냄, 탐심, 어리석음이 그 더러움의 근원이 아닐지.

무상, 보리수선원 게시판

⊙부처님도 왕궁이나 부모 처자보다 생(生), 노(老), 병(病), 사(死)의 마에 끌려가지 않는 일이 더 급한 것을 깨닫고 출가하여 대열반락을 얻었으니, 우리 중생은 생, 노, 병, 사가 무서운 줄 알고 위대한 열반락을 구한 뒤에, 먹던지 자던지 해야 합니다.

도리, 선객 회원게시판

⊙내가 부처라는 것. 하루 하루 시간 시간 순간 순간을... 나는 부처다, 부처 아닌게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로 나오는 미소…. 그 미소가 부처 인가 봅니다.

관심, 목탁소리 도반의 향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 소 및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50 정욱빌딩 503호 051)632-0064 / 011-219-506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녕 / 의령	혜봉스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5)353-1196 / 017-650-1196
대구지사	대구 · 경북	손문철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016-813-800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 /1 054)634-3429 / 011-9373-3778
광주지사	광주 · 전남	주용직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 063)255-2274 / 011-9644-4579
동해지사	동해 / 삼척	해동스님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 14번지 성불사 033)521-6293 / 019-9767-6297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15/2) 광덕사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대전시 서구 월평동 807번지 불교조각원 지하 042)489-9390 / 017-433-6523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 동방 · 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폴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 동방 · 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지압 건강 천하
(발명특허품) (발명특허 제0306046호)
LIHIS 건강 지압 양말
LIHIS 건강 지압 보호대
EVERLIS 건강 지압 팬티
EVERLIS 건강 지압 내의
쾌적함 온열감. 습윤감 등으로 인하여 쾌적함, 숙취해소, 무좀, 습진, 발냄새 제거, 땀냄새 제거, 건피부, 피부노화방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청바지, 지압 장갑, 브라자 속지, 거들, 허리 건강 벨트 등 지압실로 만든 제품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바랍니다.
(주) 화 동 섬 유
문의전화 (053) 582-1244~5